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라.
악한 말은 자신과 남에게 해를 입힌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1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9월 16일)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한계봉착 디지털 교육 '온·오프 소통' 활로를

[현안 진단] 조계종 온라인 교육 현황과 발전 과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이 2012년 야심차게 출범한 조계종 디지털대학이 '졸업자 급감'이란 문제를 드러낸 가운데,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포교 · 신도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네트워크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디지털대학(운영위원장 가섭)은 10월 18일 서울 조계종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조계종 디지털대학 발전방향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운영위원장 가섭 스님을 비롯해 양흥식 교학처장, 윤기중 포교사단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해 조계종 디지털대학 활성화 및 온라인 교육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계종 종단 차원의 불교 온라인 교육은 1996년 조계종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행정 전산화와 함께 간단한 교리 내용을 넣으며 시작됐다. 2006년 조계종 포교원이 사이버불교대학을 개설하고, 이후 포교사단의 포교사 대학원과 통합, 2012년 디지털불교대학으로 명명하며 본격적인 불교 온라인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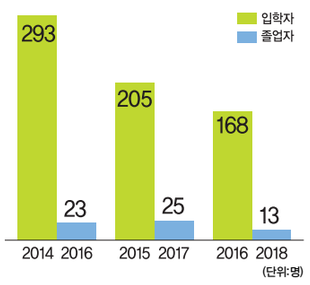
입학 비해 현격히 적은 졸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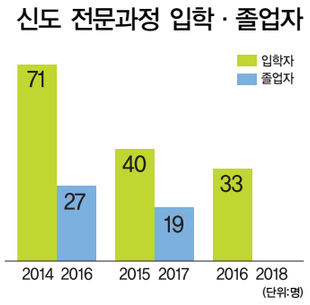
조계종 디지털대학 현황을 보면 불교 온라인 교육의 한계는 명확히 드러난다.

2년제인 조계종 디지털대학의 과정별 이수자 현황을 보면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의 졸업자 급감이 눈길을 끈다. 신도 기본과정 입학자는 2012년 179명, 2013년 178명, 2014년 293명, 2015년 205명, 2016년 168명, 2017년 208명, 2018년 117명 등이었으나 졸업자는 2014년 79명, 2015년 30명, 2016년 23명, 2017년 25명, 2018년 13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신도기본과정 이수자가 밟는 신도전문과정 입학자 또한 기본과정 졸업자 감소로 2014년 71명, 2015년 40명, 2016년 33명, 2017년 30명, 2018년 32명 등 감소 추세이며, 신도전문과정의 졸업자도 2014년 65명에서 2015년 30명, 2016년 27명, 2017년 19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중도 이탈자에 대해 디지털대학 측은 △2016년 이전 제작된 콘텐츠가 대부분인 콘텐츠의 질적 낙후 △교리중심 신도기본과정과 현장중심 전문과정의 연계성 부족 △재적사찰의 오프라인 교육과의 충돌로 중도파기 발생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디지털대 졸업자 급감
기본졸업 79명→13명

중도이탈 주요원인으로
'소통 · 실천 부족' 꼽혀

지역사찰과 MOU 필요
네트웍 · 현장 콘텐츠 개발

상담, 실참 등 온라인 한계 드러나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론교육과 지도, 실천의 병행이란 불교교육 중 지도 및 실천 부분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날 '온라인 불교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발제를 맡은 前포교원 사무국장 원묵 스님은 "불교에서는 불교사상을 체화하는 과정을 '문사수(聞思修) 3혜(慧)'로 설명한다. 문은 듣거나 보거나 하여 정보를 얻는 과정, 사는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과정, 수는 그 정보를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종단의 온라인교육은 '수(修)'에서 한계에 봉착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원묵 스님은 "사찰에서의 불교대학 교육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스님이나 강사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고 수행지도, 현장실천 또한 바로 이뤄진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은 이런 기회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흥식 디지털대학 교학처장은 "수강생이 신도기본 · 전문과정으로 연계될 때 재적사찰이 없는 경우 사찰로 연결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디지털대학과 지역별 사찰 MOU를 확대하고, 포교사단 지역단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과제를 밝혔다.

이어 양 교학처장은 "포교콘텐츠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며, 온오프 연계를 위한 사찰 동참에서는 사찰별 맞춤형 주지 스님 법문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교육과정에 함께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고 대안을 제안했다.

온-오프 연계 콘텐츠 · 사찰 동참을

여기에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포교신행 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제안했다. 윤 단장은 "신행단체, 포교사 등과 논의해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가는 강의 개발이 필요하며, 포교 토크 등 분야별 토론, 소통형 강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하는 민간자격증도 더욱 확대해 동기부여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욱 스님은 "디지털대학의 강의 내용도 디지털 대학뿐만이 아니라 5~10분으로 편집해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일부 공개해 평가, 반영하고 주요 교육대상인 3~40대를 대상으로 홍보를 늘려야 한다. 종단 온라인 교육의 상징인 디지털 대학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CI개발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조계종 디지털 대학은 그동안 불자들 중 전법 포교인력을 양성하고, 일반인들이 불교를 알아가는 교육기관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기능과 함께 신행 포교의 네트워크 속에 함께 자리한 사이버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심이 그려낸 부처님 세상 동심의 눈으로 바라본 부처님 얼굴이 도화지마다 담겼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10월 18일 조계사 앞마당서 제11회 불교아동미술큰잔치 '맑고 밝고 향기로운 우리들 세상'을 개최했다. 이날 복지재단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아 400여 명이 모여 그림 솜씨를 뽐냈다. 특히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경내를 돌며 석탑, 불상 등 다양한 주제로 그림을 그린 어린이들에게 직접 단주를 채워주며 격려했다. 사진은 대회에 참여한 원아들이 직접 그린 부처님 그림을 들어 보이는 모습. 글=김지원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작지만 강한 승가결사체 '전법행'

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가결사체 활발

청소년 · 환경 등 다방면 활동
현장-종단 지원 시스템 구축
내년 승가결사체 공모 진행도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올해 처음 실시한 승가결사체 제도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승가결사체는 일종의 전법을 위한 스님들의 소모임으로 조계종 교육원이 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을 승려연수로 인증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마련됐다. 교육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승가결사체 인증 공모를 했고, 심사를 거쳐 20개 단체가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활동 기금을 종단에 지원받으며 현재 활동을 전개 중이다.

승가결사체 안양계(安養界)는 대표 재마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과 경찰병원 지도법사 무관 스님, 사회복지사 지선 스님, 중앙승가대 학인 청하 스님, 속리산 탈골암 성윤 스님 등을 주축으로 청소년 교정교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불교 가치를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 정심정보산업학교 정기법회 및 수계식, 예술 매체와 접목한 명상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 중이다.

또한 10월 26일, 11월 2일, 11월 10일 세 차례 걸쳐 교정교화 봉사자를 위한 연수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 시대의 언어를 통해 불교를 재미있게 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승가결사체도 있다. '세상을 알다. 세상과 소통하다'를 기치로 설립된 승가결사체 '세간해연구소'는 시대 언어와 방편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법하고 있다. 결사체에는 혜장 스님을 비롯해 견명 · 도문 · 성민 스님이 참여 중이다.

지난 10월 14일에는 서울 삼보사에서 '화통: 꽃으로 통해요, 숨통: 호흡으로 통해요, 맘통: 마음으로 통해요(이하 통 · 통 · 통)'를 진행했다.

세간해연구소의 '통 · 통 · 통' 프로그램은 〈화엄경〉의 용궁전래설을 바탕으로 한다. 바다 속 용궁을 모티브로 한 촛불(candle)을 만들어 촛불 명상과 호흡체험을 통해 자존감 향상을 추진하는 게 주요한 목표다. 참가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청소년 참가자인 이지원 양은 "맘통 프로그램의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법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며 "나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제일 쑥쓰러웠지만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했다.

세간해연구소 대표 혜장 스님은 "맘통은 우리의 마음이자, 엄마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다양한 화엄놀이를 통해 본래 내 자리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교육원은 이 같은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원 연수국장 무일 스님은 "개별적으로 고군분투했던 스님들을 승가결사체를 통해 연수교육 인증과 지원으로 연수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는 올해 대비 100% 증가한 단체를 선발해 연수인증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원에서는 승가결사체들이 임의단체를 넘어 향후 더 확대된 조직으로 성장해나가는 인큐베이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승가결사체들도 교육원의 연수인증과 지원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한 단체로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조계종 교육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내년도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신청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으로 구성한 '승가결사체' 혹은 전법교화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임의단체'에 가입돼 있으면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정체성 확립 · 조직화, 불교 세계화 요인”

혜유 스님, 10월 19일 향상포럼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 국제화 · 세계화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을 가진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조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서 수행중인 혜유 스님〈사진〉은 10월 19일 중앙신도회 전법회관 3층 보리수실에서 열린 ‘10월 향상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불교 국제화를 위한 비구니 역할, 전망,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혜유 스님은 현재 비구니 승가를 진단하고 대만불교와 한마음선원을 불교 발전과 세계화 사례로 들며 향후 방안들을 진단했다.

스님은 현재 한국 비구니 교단은 1600년 전통이 지속된 승가집단으로, 평등의 실천모델로 봐도 무방하지만 현실에서의 위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개별적, 신행적, 종교적 영역에서의 역할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혜유 스님은 “다른 나라의 비구니보다 한국 비구니의 교육 수준은 상당히 높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비구니들이 강원 졸업 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다. 사찰에서 돌봐주던 풍토가 바뀌어 각자도생의 풍토가 현재 불교계에 접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혜유 스님은 한국불교 국제화를 위해 비구니 승가가 뚜렷한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된 조직 구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대표적 사례로 대만불교계와 한마음선원을 들었다.

40년 전만해도 전 국민의 30%를 밑돌았던 불교 신자를 80%까지 끌어올렸던 대만불교는 교육 · 조직 · 복지 · 문화 · 수행 등의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국제화를 위해 세계 각국 진출에 적극적이다.

이와 같은 대만불교의 부흥기에 비구니 스님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 혜유 스님은 대만 비구니의 리더십 향상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다른 불교국가보다 대만이 남녀평등 이념을 빠르게 잡은 점과 영향력 있는 비구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꼽았다.

혜유 스님은 “대만으로 이주한 중국의 비구들에 의해 비구와 비구니를 위한 정식계율이 제도화됐고 영향력 있는 비구스님들이 비구니 승단 발전을 장려하며 비구니의 교육과 수련을 강조했다”면서 “이런 노력이 사회적으로 남녀평등 의식이 자라나고 있던 대만사회에 영향을 끼쳤고, 불교 승가집단이 시대적 변화에 응답해 이끌고 가는 엔진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마음선원 · 대만불교 사례서
불교 발전 · 세계화 동력 찾아

대만, ‘비구 · 비구니 평등’ 강조
비구니 승가 활동 발전 견인

해외 지원 10곳 한마음선원
다양한 미디어 매체 바탕한
외국어 법문집 · 영상 효과 多

이와 함께 혜유 스님은 미국 뉴욕, 시카고, 워싱턴,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 10곳의 해외지원을 두고 현지 포교를 하고 있는 한마음선원의 사례도 들었다. 한마음선원은 불교 세계화를 위해 법문 · 경전 번역뿐만 아니라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판부 · 미디어부 · 영상부 · 국제문화원을 조직해 외국어 법문집 출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박람회 참가, 유튜브 외국어 영상법문 개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중이다.

실제, 한마음선원의 일련의 노력에 대해 만프레드 후터(Manfred Hutter) 독일 본대학 아시아연구소장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혜유 스님은 “현재 젊은 세대에게는 영상포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선원은 유튜브에 영어채널을 운영해 대행 선사의 법문을 영어 · 독일어 자막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포교 방식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 적합한 불교계의 다양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혜유 스님은 현재 비구니 스님들의 조직적 활용을 일선 종단 · 단체에 주문했다. 스님은 “대만불교의 비구니 활동과 한마음선원의 활동의 공통점은 정체성이 뚜렷하고 조직이 뒷받침돼 있다는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한국 비구니 승가의 역량을 조직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우국사 가르침 문화로 펼친다

태고종, 제8회 태고문화축제

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은 종조 태고보우 원증국사 탄신 717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한울공원 분수대 앞에서 제8회 태고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식전행사로 각종 문화체험과 시민 재능나눔 콘서트가 열린다. 노래자랑을 비롯해 제기차기, 훌라후프, 가족끼리 줄넘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의 본행사는 오후 4시부터 이어지는 종사이운과 개회선언, 인사말 축사 등으로 꾸며지며, 본행사 이후에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이외에 보우국사를 기리는 탄신 717주년 다례제는 29일 오전 10시 북한산 태고사에서 거행된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36대 집행부 인선 마무리

사회부장에 덕조 스님
산하기관 교역직 임명도

조계종 총무원이 공석이던 사회부장을 비롯해 산하기관장 등 교역직을 임명하며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했다. 특히 대부분의 기관장들을 유임하면서 기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0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사회부장 덕조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한국문화연수원장 재안 스님,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원택 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정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혜일 스님,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자공 스님을 임명했다. 이는 제35대 집행부 당시 활동하던 지점 및 산하기관장 전원을 다시 임명한 결과다. 기관장의 잦은 교체가 각 기관 사업에 혼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덕조 스님


원경 스님


재안 스님


탄웅 스님


원택 스님


제정 스님


혜일 스님


자공 스님

이와 함께 원행 스님은 산하기관서 실무를 총괄하며 종무행정을 펼칠 교역직으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묘인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사업국장 탄덕 스님, 한국문화연수원 사무국장 혜원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 진효 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 호암 스님을 임명했다.

원행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한 뒤 “서로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부장 덕조 스님은 혜인 스님을 은사로 1984년 수계했다. 하양포교당 · 진불암 · 불굴사 주지와 제15 · 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제주 약천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참회는 구름을 벗어나 세상을 비추는 달입니다. 깜깜한 방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잘못을 깨달아 뉘우쳐 불보살과 대중에게 고백하고 착한 삶을 발원하는 참회는 모든 수행의 시작입니다.

참회의식은 부처님 당시의 포살(布薩)과 자자(自恣)에서 그 유래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불자들은 자비도량 참법과 예불대참회문, 천수경을 독송하며 참회기도를 합니다.

“무시이래로 제가 지은 악업은 탐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림 · 조항숙

참회는 모든 수행의 시작
악습탈피 새로태어날 때
발 보리심 · 발 사홍서원

진치로 말미암아 몸과 입과 뜻으로 지었사오니 이제 10악의 중죄를 참회합니다. 백겁동안 쌓은 죄 한 생각에 스러질 것을 발원합니다.”

참회에는 사참(事懺)과 이참(理懺)이 있습니다. 사참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악업을 절, 염불, 독송을 통해 낱낱이 참회하고, 이참은 죄도 마음도 일체가 공(空)한 자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은 악습을 벗어나 새롭게 태어날 때 완성됩니다. 참회를 통해야만 원력과 발원이 나오고 계(戒)가 몸에 뱁니다. 그 자리에서 발 사홍서원이 됩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경전에 나오는 연쇄 살인자 앙굴리말라(손가락 목걸이라는 뜻)는 대참회를 하고 부처님 제자로 출가하여 성자가 됩니다.

12세부터 바라문을 섬긴 그는 스승의 분노를 샀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1백 명의 사람을 죽여 손가락을 목에 걸고 다니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일러줍니다.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를 교화한 내용이 〈앙굴마경〉에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사밧티에서 살인마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발견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구나. 저 사문은 겁 없이 혼자서 유유히 걸어오니 내가 어찌 그의 목숨을 빼앗지 않겠는가.”

그는 부처님을 쫓아갔으나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사문이여, 걸음을 멈추어라.”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추었다. 그대도 멈추어라. 나는 일체의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폭력을 멈추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생명에 대한 자제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 앙굴리말라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앙굴리말라는 그 자리에 엎드려 죄를 참회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비구들과 사밧티로 탁발을 나가면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고 옷을 찢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성자는 참고 견디어야 한다. 앙굴리말라야, 그대는 지금 옛날에 범한 악업을 보상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 선업(善業)에 전념한 그는 게송을 읊었습니다. “그 옛날 범한 악업을/늘 선업으로써 덮는 사람/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 세상을 비추리라.”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한국불교발전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불교의 현안과 진로 모색

일시 2018. 11. 5(월) 13:00~17:0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주관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좌 장_ 신규탁 (연세대학교)
기조강연_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한국불교의 역할_ 혜총스님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제 1주제_ 한국불교의 현실과 사회적 신뢰구축_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제 2주제_ 한국불교의 포교현실과 전법교화 전략_ 김응철 (중앙승가대학교)
제 3주제_ 종단현실 속에서 재가운동의 현황과 전망_ 우희종 (서울대학교)
제 4주제_ 사부대중 어떻게 소통하고 화합할 것인가_ 이덕진 (전, 창원문성대학교)
종합토론_ 청화스님 (전, 조계종교육원장) 원학스님 (전, 조계종총무부장) 신규탁 (연세대학교) 조준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803-557635 예금주 : (사)한국불교발전연구원

사단법인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101-906(운현궁 SK-HUB) TEL 02)736-6202 FAX 02)736-6203



DMZ서 분단 아픔 달랜 평화명상에너지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임진각서 '세계평화명상대전'

아잔간하·아잔브람 스님 등 5천여 명상수행자들 운집해
혜국 대종사, 평화기원 법어
"진정한 평화는 불살생" 강조

파주=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계적 수행승인 아잔브람을 선두로 세계평화명상대전 참가자들이 DMZ생태탐방로를 걸으며 걷기명상을 하고 있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장 각산 스님 지도에 따라 참선실참하는 참가자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분단의 상징인 DMZ비무장지대서 수천여 명상수행자들이 평화를 염원했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회장 각산)는 10월 13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서 세계적 수행승 아잔간하와 아잔브람 스님, 한국대표 수좌 혜국 대종사 등을 초청해 '2018 세계평화명상대전'을 거행했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출범행사이기도 한 세계평화명상대전은 국내외를 대표하는 4명의 명상스승과 5000여 명의 불자들이 운집해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 평화가 자리 잡고, 세계평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명상스승으로는 해외에서 태국의 전설적 고승인 아잔차 스님의 두 제자, 아잔간하와 아잔브람 스님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아잔차 스님의 직계제자인 아잔간하 스님은 50년간 밀림서 두문불출하며 탁발 수행을 했으며 '루앙 포 야이(최고의 스님)'로 평가된다. 아잔브람 스님은 동양의 참선을 서양으로 전파한 수행승으로서 호주 보디냐냐 수도원장을 맡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수좌들을 대표하는 혜국 대종사와 대만 대표 선승 심도 선사도 함께했다.

이날 혜국 스님은 '한반도 평화기원 기조법어'를 통해 힘의 논리가 아닌 만중생의 평등에 따른 평화를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혜국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를 불살생으로 보셨다. 내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 당연하고, 생명의 소중함 그 자체가 평화라고 말씀하셨다"면서 "하지만 인간은 언제부턴가 다른 생명보다 인간의 생명을 더 무거운 것으로 평가하게 됐다. 그러나 코끼리든 비둘기든 인간이든 모든 생명은 다 똑같이 소중하다"고 말했다.

혜국 스님은 이어 "우리는 말로만 평화를 논할 뿐 무엇이 진정 완벽한 평화인지 고민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평화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흙탕물에 달이 비치지 않지만 달은 항상 존재한다. 평화의 달, 마음 달이 우리 속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만 투쟁과 욕망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잔브람 "한반도 분단 해결 기원"

혜국 스님 법어에 이어서는 선무도 체조와 3천여 사부대중의 명상실참이 진행됐다. 사부대중은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의 지도와 좌종소리에 맞춰 입정에 들었다. 30분간의 명상실참이 끝난 뒤에는 아잔간하와 아잔브람 스님의 세계평화 메시지가 이어졌다.

당초 메시지는 아잔간하 스님이 발표하기로 돼 있었으나 아잔간하 스님은 아잔브람 스님에게 대신해줄 것을 부탁했다.

아잔브람 스님은 "아잔차 스님 밑에서 수행할 때 메콩강가에 있었다. 바로 건너편이 라오스였는데 너무 가까워서 태국 북동부와 라오스가 같은 언어를 썼다. 물론 쉽게 건너갈 수는 없었다"면서 "하지만 오늘날에는 마음대로 국경을 드나들 수 있고, 태국인과 라오스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낸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인위적으로 북으로, 남으로 나눠놓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도 이처럼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걷기명상에 참가하기 위해 이른 아침 서울에서 파주까지 왔다는 김모 씨는 "평소 수행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수행장소가 우리나라에 큰 의미 있는 곳이어서 참가하게 됐다"며 "한동안 분단의 상징을 걸으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의 평화는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계평화명상대전 봉행위원장 각산 스님은 "불교에서 삶은 고해라고 하지만 천국에서도 바라는 바가 있으면 지옥이고, 시련 속에서도 이 순간을 기회로 받아들이면 고는 곧 해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임진강은 더 이상 분단의 강이 아니고 평화의 강이다. 평화명상에너지가 이곳에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행사 의의를 설명했다.

조계종, 제26회 불교언론문화상 공모

11월 9일까지 접수… 대상작에 1000만원

조계종이 제26회 불교언론문화상 작품을 오는 11월 9일까지 공모한다.

공모부문은 △방송부문상(TV·라디오 프로그램) △신문부문상(기획 및 보도기사) △뉴미디어부문상 △불교언론인상 △특별상이며, 대상은 출품작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을 시상한다. 뉴미디어부문은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를 통해 우수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트 및 작품으로 독립인터넷TV, 홈페이지 및 카페, 블로그, 유튜브, 팟캐스트, 웹툰 등이 포함된다. 불교언론인상은 불교언론인 중 공로가 있는 원로 언론인을 선정한다. 또한 특별상은 방송, 신문, 영화(애니메이션 포함), 광고, 미디어교육 등 기타 미디어 분야에서 우수한 작품 또는 사람을 시상한다.

상금은 대상 1000만원, 각 부문별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불교언론인상 300만원, 특별상 200만원이다.

출품 대상은 2017년 8월 4일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 제작 발표된 작품이며, 응모는 응모사유서를 통한 직접응모와 언론 및 불교관련 분야 전문인사의 추천을 받는 추천응모로 나뉜다. 응모사유서와 추천서는 별도 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공통 서류는 작품개요서 및 추천서(응모사유서) 1부다. 방송부문은 작품명과 방영일시, 담당PD, 제작사 및 방영사명, USB 각 10부를 제출해야 한다. 신문부문은 신문사명, 기사 제목, 게재 날짜, 기자명을 비롯해 연재물은 전면기사 사본(원본 크기)10부를, 그 외 기사는 USB(PDF파일) 10부를 제출하면 된다. 뉴미디어부문은 사이트명과 사이트 주소, 단체 대표, 개설일, 운영자명, 콘텐츠 소개 등을 USB에 담아 10부 제출해야 한다.

기본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우편 외 이메일(media@buddhism.or.kr)로 추가 전송해야 한다. 심사결과는 개별통지하며, 시상식은 12월 18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02)2011-1770

윤호섭 기자

"행복한 죽음과 삶, 한발짝 더 나가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제9회 호스피스 세미나 성료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협회장 능행, 울산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장)는 10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9회 호스피스세미나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답하다'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100여 호스피스 관계자와 불자대중이 모여 호스피스 현황에 대해 듣고 함께 확산을 논의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장 능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삶의 여정이 죽음에 대한 도전이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도전해야 하며 그 도전에 앞서 죽음이 품고 있는 성향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수행자로서 책임과 한 인간으로서 동질감을 느끼며 생의 반을 넘어 사선에선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제게 던져진 물음들에 여러분을 모시고 진솔하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세미나 의미를 설명했다.



불교호스피스협회가 개최한 제9회 호스피스세미나서는 활발한 호스피스 활성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는 1부 강연과 2부 시상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기조강연은 임병식 한국싸나톨로지협회 이사장이 맡았다. 임 이사장은 "죽음학인 싸나톨로지의 관점에서 품위있고 행복한 죽음은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깨닫고 가장 소중한 사람과 화해, 사랑을 전달하고 떠나는 것"이라며 "한발짝 더 나아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다면 남은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미나에서는 영적돌봄가 팀장인 능인 스님의 호스피스가 걸어온 길 소개와 영적돌봄가 소개, 치유음악 연주회 등이 진행됐다. 또 2부 행사로 능행 스님이 대중들과 즉문즉답을 진행했다. 이어 시상식에서는 포교원장상에 정토마을 염불수행 보조 지도법사인 영적돌봄가 도우 스님, 제7회 더아름다운사람 호스피스봉사상에 부산지부 신미라 씨, 제주지부 김세권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환경연대, 31일 숲해설 심화교육 개강

불교적 생태관을 바탕으로 하는 숲해설 심화교육이 마련됐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숲 해설가를 위한 심화교육 '수요일은 '숲' 요일'을 진행한다. 수요일마다 2시간 30분씩 5주간 진행하는 해당 교육에는 11월 11일 봉선사 숲 현장탐방도 포함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강의 5회와 현장교육 1회로 구성된다. 강의는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종로구 삼일대로 32길 22, 3층)서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한다. 또한, 현장교육으로는 11월 11일 이봉규 숲과함께 대표와 함께 봉선사 사찰림을 탐방할 계획이다.

교육에는 숲 해설가뿐만 아니라 숲해설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다. 참가비는 6만원(불교환경연대 회원 3만원)이며, 10월 24일까지 계좌(국민 023501-04-069889 예금주:불교환경연대) 입금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다. (02)720-1654

김지원 기자



“中道, 위기의 종교 살릴 해결책”

고요한 소리
13일 ‘중도와 종교’ 주제 포럼

회주 활성 스님 발제 법문서
“중도로 맹신 벗어나야” 강조
전문학자들의 토론도 이어져
내년 마지막 3회 포럼 예정


고요한 소리는 10월 13일 제2회 중도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회주 활성 스님이 발제 법문을 설하고 있는 모습.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재 종교는 위기다. “‘속(俗)’이 ‘성(聖)’을 걱정한다”는 세간의 이야기들은 위기의 종교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현재 종교 상황을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고요한 소리는 10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중도와 종교’를 주제로 제2회 중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고요한 소리 회주 활성 스님은 발제 법문을 통해 중도를 통해 이분법적 맹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탐·진·치 삼독심을 현대 사회의 영역에 비유했다. 스님은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을 탐욕(貪欲)은 경제이며,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인 진에(瞋恚)는 정치,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인 우치(愚癡)는 종교라고 봤다.

활성 스님은 “맹목적 신심만을 추종하는 종교는 ‘치’다. 이는 인간을 지혜에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계·정·혜를 닦아야 하고 실천 수행하는 방법이 팔정도이며, 이는 곧 중도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도는 살리는 것”이라며 “이분법적 맹신에 젖은 위기의 종교를 벗어나게 해 이를 살리는 것이 중도 사상”이라고 설했다.

또한 활성 스님은 현대 종교들은 ‘교(敎)’를 ‘학(學)’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래 전 조상은 불교·유교·도교를 ‘동학’이라고 했고, 가톨릭을 ‘천주학’이라고 명명했던 것을 예로 든 스님은 “종교를 배움으로 대했던 것”이라며 “배움으로 대하면 해가 될 일이 없다. 세상사 공부 아닌 것이 없듯이 심학(心學)으로 공부하면 모두가 스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열심히 공부해 향상일로를 걷고 중도를 실천해 인간도, 신도, 자연도 살리길 바란다”고 대중들에게 당부했다.

활성 스님의 법문 이후에는 전문 학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최종석 금강대 응용불교학과 명예교수는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를 통해 과학시대 격의불교론을 펼쳤다. 그는 정보기술시대에 불교가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현대 심리학의 방법론을 차용해 불성이나 영성을 감성지능(EQ)처럼 지수화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최종석 교수는 “불교에 대한 과학적 해석은 불교의 가르침을 왜곡한다기보다 오히려 불교가 과학적 종교임을 알리게 될 것”이라며 “과학격의불교는 불교 교리의 과학적 해석의 단초를 열게 되며, 과학시대의 미래지향적 종교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시대 종교와 종교학의 필요성’을 발표한 김재영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종교와 종교학은 위세를 이어갈 것이지만, 그 심층적 이해가 강조돼야 한다고 봤다.

이정배 목사는 ‘종교인의 사회적 역할’에서 하라리의 말을 인용해 “종교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마감하고 영성을 키우라”고 충고했다.

한편, 고요한 소리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해 시작한 중도포럼은 총 3회로 기획됐으며, 내년 마지막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韓日전통무예, 골굴사서 함께 경험해요

10월 27~28일 ‘제16회 골굴사 전통무예대회’ 개최

경주 골굴사가 한국과 일본의 전통무예를 함께 체험하는 전통무예 교류대회를 개최한다.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는 10월 27~28일 경내 선무도대학 등에서 ‘제16회 골굴사 전통무예대회 및 제5회 한·일 전통무예교류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10월 27일 오전 10시 호국영령과 호의승군 위령 수륙재를 시작으로 산사예술공연, 무예대회와 28일 선무도 승단심사 등으로 이어진다.

골굴사는 원효성사 열반성지로 의승군을 기리는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의 시작인 수륙재서는 양국 참가선수단이 동참해 전몰영가를 천도하며 일본의 침략사를 인식하고 참회 및 화해를 서원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오후에는 1시부터 산사예술공연과 2시부터 무예대회가 열린다. 전통무예대회서는 한국전통무예총연맹 산하 택견, 24반무예, 기천문, 무의단공, 선무도 등이 선보인다.

한일 전통무예교류대회서는 일본 전통무예 가라데(쇼토칸, 소림류, 고주류), 아이키도, 한무도, ITF태권도 등 6개 종목이 시연된다.

특히 일본측에서는 각 무예단체의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시연을 하며 91세의 쇼토칸 가라데의 이와모토 원로사범이 시범을 보인다.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은 “무는 예로부터 국가 방호를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개인수행의 방편이었다”며 “무를 통해 한일 양국이 우호증진하고 불자들이 심신단련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와다 고우지 일본무도 친선사절단장도 “한국과 지속적인 교류에 감사하다. 무도로 한일 친선의 기초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054)744-1689

노덕현 기자

11월 5일부터 외국인 템플스테이 주간

템플스테이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오는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국내 체류 및 방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외국인 템플스테이 주간’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들을 비롯해 전국 39곳에서 1박2일 프로그램 2만원, 당일형 프로그램 1만원에 체험할 수 있다.

‘당일형’은 산사에서 2~3시간 동안 스님과의 차담, 연꽃등 만들기 등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1박2일’은 사찰에 머물며 참선·108배·운력·소금만다라·108염주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체험형과 예불·공양·사찰예절교육 외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휴식형으로 나뉜다.

외국인 템플스테이 주간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며, 일부 사찰은 일본어와 중국어, 불어 진행도 가능하다. (02)2031-2000(템플스테이 홍보관)

윤호섭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⑮

지몽 스님 서울시립병원 서북병원 호스피스영적돌봄가

“종단 차원의 호스피스 장려책 필요”


함께 임종을 준비하는 환우와 기도를 올린 지몽 스님.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가 지몽 스님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스님이 사회운동보다 더욱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활동이다. 스님은 명상심리상담학 석사를 마치고 죽음과 유족의 심리에 관심이 있어 생사문화를 공부했다.

이후 울산 마하보디교육원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호스피스 활동에 뛰어들었다.

“저는 청소년시절 난치병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였기에 환자가 겪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공포·불안을 조금은 경험했어요. 죽음은 항상 나에게서는 화두였습니다. 결국 깨닫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님은 호스피스 활동에 뛰어든 시간이 길지 않기에 보람보다 항상 부족함에 아쉬움이 더한다고 했다.

스님은 “한번은 불자님이라고 알고 방문했는데 제가 착각해서 다른 환자분과 이야기하고 기도한적이 있다”며 “그 환자분이 거부하시지를 않으셨는데 알고보니 병원에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셨던 분이었다. 그 뒤로도 임종하실 때까지 저와 이야기하고 기도도 함께 했다. 현실에서 적지않은 불자분들이 병원 개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불교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개종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님은 은평구 서울시립 서북병원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다. 스님은 투병중인 환자 중 불교에 관심이 있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임종 준비를 돕고 있다.

스님은 “종교가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 힘이 되어야 한다. 스님들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스님은 “종단차원에서 호스피스 전문가와 봉사자양성 과정을 대폭 지원하고 장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아직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서 임종을 맞으시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불자님들을 위해 호스피스영적돌봄가로서 역량을 더욱더 키워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원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지도자 양성’ 절실… 禪 대중화 견인 대안

세계는 명상시대, 한국 禪이 연다





불교명상 GURU 에게 듣다 ⑧·〈끝〉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03년 세계적인 선승 틱낫한 스님이 한국에 와서 한 첫 마디는 ‘전통불교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불교의 미래는 없다. 한국은 어떠한가?’ 였다. 명상 시대, 불교명상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세계인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한국의 전통선과 현대화된 선명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불교계 안팎의 전문가들에게 불교명상의 방향을 각 부분별로 지상대담을 통해 들어보았다.

1. [정체성] 현재 명상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며, 특히 한국에는 매우 다양한 명상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불교명상 또한 사마타, 위빠사나 등 다양한 수행법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명상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선업 스님은 “명상은 ‘마음보고 쓰기’인데 앞에 불교가 붙는 것은 부처님이 보듯이 마음을 보고 쓰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스님은 “불교명상이 시대에 따라 변해왔는데, 한국은 통불교로 부처님처럼 마음보는 것이 결국 ‘通’ 안에 다 들어 있다. 결국 불교명상의 정체성은 ‘부처님처럼’ 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도 사마타 공부를 하시고 새로운 수행법을 만드시고 지도하셨다. 이 것이 동아시아에서 조사선, 공안선, 화두선 등이 점차 발전을 하게 됐다. 핵심은 우리 마음을 제대로 보는 것인데 방법이 분석을 강조하는 것인지, 직관을 강조하는 것인지에서 다른 것이지 매우 다른 것은 아니다. 근본은 부처님처럼 마음을 보고 쓰는 것에 있기에 불자들이 ‘지혜’와 ‘자비’라는 양날개를 잘 잡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혜연 스님은 “부처님 재세시에도 이미 인도는 명상이 높은 수준으로 개발된 상태였다. 부처님은 당시 인도 명상과 확연히 다른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으셨고 2500년이 흐른 현대에 다시 부처님의 명상법이 주목받는 것은 여타 명상과 다른 그 차별성과 우수성에 있다”고 말했다.

박희승 단장은 “불교 명상은 매우 다양하게 발달하여 왔는데, 그 정체성은 역시 불교 경전과 조사어록에 근거해야 한다. 부처님은 해탈 후 첫 설법에서 ‘나는 괴로움과 쾌락의 양 극단을 여의고 중도를 깨쳤노라’ 하셨고 성철 스님은 부처님이 중도를 깨쳤고, 선과 교도 ‘중도’가 근본이라 강조하셨다. 불교 명상은 결국 중도 연기, 무아에 입각해야 바른 명상으로 스트레스 해소나 힐링 차원은 방편으로 유용하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선아 대표는 “명상이 불교명상이기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불교의 바른 견해(正見)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권 대표는 이어 “불교명상은 일상의 경험에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바로 보는 것이다. 마음작용을 익숙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통찰을 하게하고, 이는 자비의 계발과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심도선사는 “대만에서는 명상이라 하면 보통 참선수행으로 통칭된다. 명상의 발전은 곧 불교의 확장을 의미한다”며 “명상은 자신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불교명상은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목표에 일관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것은 불교명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 [현대화]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조계종은 주요 수행법으로 ‘간화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명상 열기 속에 마음챙김 명상 등 현대화된 수행법이 유행하고 있지만 전통수행법인 간화선에 대해 현대인들의 반응은 미약합니다. 간화선이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심도 선사는 “간화선은 굉장히 훌륭한 수행법”이라고 평가하며 “하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근기도 낮은 편이다. 그로 인해 꾸준히 화두 수행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도 선사는 “화두를 1~20년씩 하다가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의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독일에서 참선수행하는 분들이 만난 적이 있다. 참선수행 과정에서 간화를 하면서도 무엇을 추구해야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를 보았다”며 “독일 불자들에게 실참에 기반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점진적인 수행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점차적인 수행법과 간화선의 직관적인 부분을 접목하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업 스님은 “간경은 부처님 말씀, 간화는 조사 스님들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며 “간화선은 조사와 수행자간의 이야기의 말머리에서 왜라는 의문으로 이를 풀어간다. 현대적으로는 무겁지 않게 하면 굉장히 재밌게 풀어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과 이에 대한 궁금함을 푸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현대적으로 보면 코칭기법인데 코칭기법으로 만들어 보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선례도 있다. 숭산 스님이시다”며 “핵심을 질문을 해주면 이 사람이 변화가 된다. 고도의 코칭 기법으로 탁탁 두들겨서 본성을 일깨우는 과정을 잘 살리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스님은 또 “수좌 스님들이 전통적인 간화선을 전승하는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다만 이를 현대적으로, 대중에게 풀어줄 중간단계의 지도사들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승 단장은 “조계종단이 10년 전부터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종책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난관이 많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간화선의 대중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며 “안국선원 간화선 프로그램은 정평이 나있고, 강남 금강선원이나 강북 공생선원, 그리고 불교인재원의 생활참선도 간화선을 전하는데 호응이 있다. 성공 사례를 잘 정리해 쉬운 간화선 입문 교재와 프로그램, 중간 지도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 [세계화] 한국 불교명상은 이제 세계 명상계에 다시금 진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명상이 세계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선업 스님은 “세계불교계와의 교류자리에 가도 방과 할이 전승되는 곳은 한국불교계가 유일한 상황이다. 결국 우리의 것을 잘 발전시키는데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법장 스님이 계실 때 선지도사 양성과정을 추진했다. 전통적으로 전승해올, 보배를 지켜갈 수좌 스님들이 변화할 것이 아니라 이를 국내,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펼칠 이들을 키워내자는 것이었다. 은행으로 따지만 수좌 스님은 금고를 지키는 이들이고, 선지도사는 창구를 맡는 이들이다. 현재 명상지도자로 변경이 됐지만 중간에 중단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혜연 스님도 “세계인들은 어디에 가도 할 수 있는 명상법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일부러 오지 않는다. 지금 세계 명상의 흐름은 마음챙김 바탕에 바디스캔, 요가, 춤명상 등등 각 명상법의 좋은 점들을 짜깁기하여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 선방의 운영방식이나 하루일과는 매우 독특한 우리만의 정서를 갖고 있다. 세계적인 명상센터를 다녀본 나로서는 한국 선방의 이러한 정서를 살릴 때 도리어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명상은 이미 과학적인 효과가 수많은 임상실험과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논문들로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간화선은 그 효능이나 우수성에 관해서는 과학적, 학술적 입증이 저조한 상태다. 더욱 더 적극적인 간화선의 현대적 해석, 효과 입증을 위한 시도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며 “그 다음으로 국제적인 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세계인들이 간화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희승 단장은 “간화선 세계화로 본다면 체계화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간화선은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전법현장과 종단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최근 선원수좌회가 조계종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란 법인을 만들어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종단 포교원과 협의하고 있다. 전법현장과 선원수좌, 그리고 종단이 협력하면 간화선, 더 나아가 한국불교의 수행을 대중화, 세계화 하기 위한 전법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선아 대표는 역으로 세계화에 대한 문제점을 했다. 권 대표는 “‘세계화’는 불교에 관한 적절한 접근이 아니라고 본다. 세계화 이면에는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이 깔려 있고, 우리의 것에 대한 암묵적인 자만이 깃들어 있어 위험하게 느껴진다”며 “궁극적으로 다르마와 그것을 향해 가는 길의 특정한 표현을 널리 나누고자 하는 겸허한 발원이 있을 때, 우리는 자비에 바탕을 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업 스님도 “지난 여름 명상하는 이들이 모여 걷기명상을 통해 민과 관이 힘을 합쳐 소외계층을 도왔다. 결국 지혜는 자비이고 실천이다. 불교명상 세계화 또한 자비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한국불교명상계가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수행법을 폄침과 동시에 우리사회, 더 나아가 지구촌 곳곳의 소외된 이들을 살피고, 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때 세계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4. [수행법] 불교계는 현재 월정사 명상마을을 비롯해 봉암사 앞 문경 세계명상마을 등 시설 확충에 나서 이미 완공되어 운영이 시작되고, 또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이냐 인 것 같습니다.

권선아 대표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는 어떤 사회가 2050년에 어떤 모습일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혼란은 많은 종류의 새로운 고통을 야기할 것”이라며 “부처님 당시의 고통과 AI 시대의 고통이 그 표현에 있어서 똑같은 것일 수 없다. 그러므로 핵심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상황들에 얼마나 유연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희승 단장은 간화선뿐만 아니라 한국명상 콘텐츠들이 소통되는 플랫폼형 웹사이트 구축과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과 모바일 앱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간화선 중간지도자 양성이다. 도시에 전법활동을 하는 스님이나 재가자 중 안목을 갖추고 참선을 생활화하면서 대중과 쉽게 소통하고 선 명상을 안내해주는 중간지도자가 매우 중요하다. 지도자 양성을 위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지면 간화선의 대중화, 세계화는 눈앞에 다가올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선업 스님은 끝으로 “명상 지도를 하며 다양한 수행법에 대해 선택권을 대중에게 주니 오히려 기반을 닦은 대중이 간화선 수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수행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임했다”며 “불교는 명상이라는 골자로 국민들에게 ‘숨터’를 제공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그중에서 전통수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YS정권 당시 종교교육의 대학화를 추진해 신학대학이 많이 탄생했다. 불교에서는 당시 대응전략이 없어 실기(失機)했다. 명상 또한 마찬가지다. 불교에서 이런 흐름을 잘 이용해야 한다. 10년 동안은 불교계가 이 분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면대담자 소개

선업 스님 | 통담아카데미아원장이자 **뫔**행복치유센터장으로 국민 마음치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족치유학을 전공한 스님은 불교상담개발원 등에서 차담명상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8한강걷기명상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명상을 통한 대사회 활동에도 앞장섰다.

심도 선사 | 대만에서 ‘1분선’이라는 생활 속 선수행을 펼치고 있다. 스님의 1분선은 ‘ 호흡, 합장, 방송(放松), 안정, 마음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으로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스님은 ‘불법은 하나’라는 신념으로 세계평화 활동도 하고있어 2016년, 2018년 한반도 평화 기원을 위해 내방했다.

혜연 스님 | 간화선 10여 안거를 비롯해 마하시, 찬메, 쉐우민, 고엥카 등에서 수행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로 스님은 천안 호두마을, 서울 국제선센터서 지도했다. 2016년 전국비구니회와 샤카디타코리아가 개최한 마음챙김 명상 강좌를 진행했다. 현재 산청 대원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 명상지도를 하고있다.

박희승 세계명상마을사업단장 | 조계종 총무원과 포교원에서 기획과 연구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후 성철연구원 연구실장이자 조계종 불교인재원 이사로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등 선수행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최근 문경세계명상마을사업단장으로 선센터 건립 및 선명상 발전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권선아 스트리트젠 대표 | 틱낫한 스님의 방한 당시 전담통역을 맡았으며, 미산, 금강 스님과 함께 다르마프렌즈를 결성, 美선승 노먼피셔 방한행사도 진행했다. 국제불교학교와 중앙승가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스트리트젠에서 MSC 수행법을 전하고 있다.

4·3 사건 70주년 제주불교 흔적 바로 세우기

〈9〉 하원동 원만사

사찰 전소·스님 총살… 4.3 광풍 '여파'



제주 원만사 전경. 4.3사건 당시 전소되고 21세 스님이 총살된 아픈 역사를 가졌다. 현 주지 정법 스님이 지속적인 불사로 현재의 사격을 만들었다.



제주 4.3당시 원만사 소실 후에도 남아 있는 불상.

이병철 제주불교 기자

서귀포시 하원동 산 43번지에 자리한 원만사(주지 정법)는 법화사의 북쪽 2.5km 지점에 위치한 사찰이다.

원만사 표지석에서 약 1km정도 들어가면 원만사로 가는 옛길을 만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길 바로 옆으로 시멘트 길이 조성돼 있어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다. 하지만 원만사의 옛 모습을 보려면 옛 길을 타고 올라야 원만사가 왜 이곳에 창건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숲으로 들어서면 마애불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기암괴석들은 한 없이 작아 보이는 인간을 하심(下心)하라는 듯이 굽어본다. 그 옆으로 원만사로 오르는 108계단이 모든 번뇌를 다 내려놓고 부처님을 참배하라고 한다.

원만사는 방동화 스님의 발자취가 서린 곳이다. 방동화 스님은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 좌대장으로 참여했다가 6년간 옥고를 치른다. 이 후 1923년 하원동 산자락의 1평 남짓한 자연굴에 의지하며 수행하던 곳에 세운 사찰이 원만사이다. 처음 스님이 숨어 지낼 때 물이 나지 않아 걱정을 했다고 한다. 당시 물은 나지 않고 습기만 남아서 촉촉이 젖어 있는 상태였다.

제주불교의 중창주인 안봉려관 스님이 영실에서 물길을 찾았고, 스님이 앞에서 목탁을 '톡 톡 톡' 치면서 걷고, 뒤에서 방동화 스님이 경을 읽으면서 원만사까지 내려왔다고 한다. 그 때 목탁소리를 따라 물이 '졸, 졸, 졸' 따라 왔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이 물을 '훔쳐온 물'이라 부르기도 한다.



현재의 원만사 사격을 완성한 현 주지 정법 스님(사진 왼쪽).

1932년 창건 원만사, 4.3 당시 전소돼
21세 양홍기 스님, 토벌대에 의해 사살
현 주지 정법 스님이 지속된 불사 추진

그러다 스님은 서귀포시 법화사 복원불사에 동참했으나 일제의 감시는 스님을 자유롭게 놓아두지 않았다. 이에 1925년에는 범어사로 향해 박만하 스님에게서 구족계를 받고 곧바로 금강산 마하연선원에서 수행정진하다가 다시 1929년 제주로 돌아온다.

그러나 1948년 4·3당시 원만사가 해안선 5km 이상에 있었기 때문에 토벌대에 의해 사찰이 전소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현 원만사 주지 정법 스님의 모친 故 정무생(심연화) 보살의 기억에 따르면 "방동화 스님은 큰 스님이셔서 원만사에 계시기보다 외부 출장이 많다보니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4·3 발발이 된 줄 아시고, 작은 부처님만 놓아두시고 법당의 주요 물건 등은 다 가지고 내려갔다"고 증언했다.

이어 정무생 보살은 "당시 방동화 스님의 상좌인 양홍기 스님만이 원만사에서 기도를 하며 계셨어요. 당시 양홍기 스님의 나이는 21살이니 어렸지요. 토벌대들이 원만사에 들이닥치자, 양홍기 스님에게 목장을 지키는 사람에게 안내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장 사람은 양홍기 스님을 모른다고 한 것이지요. 속았다고 느낀 토벌대들은 목장 인근 '냇바위'에서 스님을 총살했답니다"고 말했다.

이처럼 원만사에 주석한 양홍기 스님도 총살되는 비운을 맞게 된다. 이후 원만사는 4·3당시 잃어버린 마을처럼 폐허로 남게 된다. 역사의 혼란기가 잠잠해질 무렵인 1962년, 서시용 스님은 방동화 스님에게 원만사를 인수하여 2대 주지에 취임한다. 현 주지 정법 스님은 당시 13살에 들어왔다고 한다. 시용 스님이 1972년 입적한 후 정법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게 된다. 스님은 1988년 현 진입로를 개설하고 1994년 10월 대웅전, 1995년 강당과 요사를, 1997년 산신각을 증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금순 박사가 바라본 제주 4·3

원만사

토벌대 무차별 공격대상된 사찰
사람만 보면 묻지도 않고 사살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태고종 제주교구 소속 사찰이다.

원만사는 법화사보다 더 한라산 속 방향인 광대코지 지경에 위치해 있다. 방동화 스님이 1923년부터 원만사 지경의 굴 속에서 수행 하는 등으로 활동하다가 초가 법당으로 창건했고, 1938년 십일면관음존상을 봉안하고 활동했다.

방동화 스님은 1918년 제주법정사 항일운동에서 지휘부의 좌대장으로 참여한 스님이다. 스님은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체포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제주법정사 항일운동은 일본인을 제주도에서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며 서귀포시 일대 주민 700여 명이 참여한 제주도내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다.

방동화 스님은 광복으로 조선불교혁신 제주도 승려대회에 참여해 그간 제주불교의 친일을 반성하고 전통불교로 돌아가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 스님은 이 대회서 결성된 제주교구 교무원의 초대 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원만사는 제주4.3사건으로 1948년 11월 토벌대에 의해 사찰이 전소됐고 경내에 있던 양홍기 스님이 토벌대에 총살당했다. 원만사는 하원리 4.3성 밖에 위치해 있었고 소개령에 의해 피난하지 않고 하원리 마을 밖 원만사 지경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토벌대의 무차별 공격 대상이 된 상황이었다. 토벌대는 사람을 보면 이유를 묻지도 않고 보이기만 해도 총을 쏘아대던 초토화 작전을 펼친 시기였다.

1948년 11월은 소개령의 발령과 초토화 작전의 시기였다. 무장대는 11월 5일 중문지서와 안덕지서를 공격했고, 토벌대는 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하원 등 서귀포 지역 마을에 대한 학살을 진행한다. 1948년 11월 24일 토벌대는 하원리 주민들을 향사에 집결시킨 후 강득록을 불러내어 총살하고 일부 가옥에 불을 질렀다. 또한 무장대 중 한 명이 마을 청년들의 구타로 죽게 되자 무장대가 하원리를 습격해 마을을 불태우기도 했다.



원만사는 1961년 마을 신도들이 움막을 짓고 불상을 다시 모셔오면서 재건하기 시작했다. 함석 지붕 법당을 거쳐 지금의 대웅전이 1994년에 마련됐다.

한금순(제주대 외래교수)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 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11월 25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

현대불교 제 1218 호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62년

살생중죄 현장 '4대강'을 되돌리자

⑦ 4대강 사업과 불교



MB정권 당시 조계사에서 4대강 개발 중단을 외쳤던 스님들의 모습. 정권의 무리한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고통만이 남았다.

땅(土地)의 소유와 소유권 그리고 활용에 대한 권한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땅의 소유권은 대체적으로 인류역사의 흐름에 따라 달리했으니 봉건왕조시대에는 국왕 내지는 영주의 것이라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Socialism) 체제 하에서는 생산수단과 더불어 공유(共有)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정부나 거대자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필요로 할 경우 법과 위력을 앞세워서 수용하고 목적 사업을 시행하기도 한다. 엄밀히 말해 항구적이고 완전성이 보장된 땅이나 사유지는 부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라는 명분을 기반으로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현대에 이르러 환경문제가 불거지면서 땅에 대한 소유와 활용에 있어 공적 거시적 관점의 인식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함부로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장치를 하거나 시민사회의 운동으로 먼 후대까지 공유의 개념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으니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다면 불교의 입장에서 땅에 대한 개념과 인식은 어떠할까? 지장보살(地藏菩薩)은 지모신(地母神)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관념이 불교 신앙체계에 반영된 것으로써 생명을 낳고 기르는 대지를 모태로 하기에 땅을 보살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금강경〉 등 여러 경전에 국토와 세계장엄(國土-世界莊嚴)을 운운하는 바, 국토와 세계 그리고 그 곳의 생명들이 불편하거나 온전치 못한 상태가 아닌 가장 평안하고 안락한 상태를 의미한다.

본생담의 매와 비둘기 이야기는 '미물인 비둘기와 위대한 스승 부처님의 생명의 무게는 같다'는 가르침을 전한다. 불살생계를 통해 생명에 대해 집중적이고도 광범한 가르침을 펼치는 종교가 불교다. 이렇듯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인 5계를 환경문제의 대표적인 가르침으로 삼아서 현대적이고 다양한 해석을 통한 방향으로 전개해 나간다면 이해도 쉽고 현실 적용에도 수월할 것이다.

우리는 불교사를 통해 도선 스님이 국토를 생명으로 인식하여 '국토 성불론과 산천 만다라' 사상을 전개하고 비보풍수를 통해서 땅에 대한 완전성을 추구했음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후예인 오늘날의 우리는 현실에 입각해서 인류의 숙명과도 같은 경제발전의 부담, 과학의 발전과 편리성 추구 등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땅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거, 공적 시설 및 유흥, 산업시설 등 온갖 건축물과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온갖 종류의 교통체계, 먹거리 생산의 기반이 모두 땅일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인간을 비롯한 뭇 생명의 터전이며 생명 그 자체로서 땅인 동시에 인간의 무한 욕망의 대상이 땅인 것이다. 인류가 사회를 이루고 활동하는 이상 대지는 다양한 용도로 개발될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이란 목표 아래 얼마나 균형을 이루어내느냐, 혹은 공적 개념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 등이 주요 논쟁이 되곤 한다. 4대강 사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돌아보고 교훈을 얻지 않을까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부운하가 먹혀들지 않자 4대강 사업이라는 해괴한 타이틀로 나라 땅과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필자 역시 경부운하는 물론 4대강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후유증이 막심하다. 그 정권은 막을 내렸어도 국토와 국민들에게 지우고 있는 고통과 부담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현재진행형의 문제이기에 현대불교신문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4대강 사업의 문제를 불교의 입장에서 재차 짚어보고 대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불교의 입장에서 4대강사업의 문제는 그 시작부터 환경과 생명성을 무시하고 졸속 추진으로 인하여 제반 문제를 안고 있다. 4대강의 준설 등 관련한 사업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정부는 분야별로 대규모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최소한 4계절 이상 빈틈없이 환경과 생태 등 모든 분야의 조사를 충분히 했어야 했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심사와 분석, 국민과 소통했어야 했다. 국토의 근간인 4대강과 연계된 지천, 인근 지역의 토지환경문제 등 국토의 형태와 형질 전반에 대한 변형을 초래하는 사업을 졸속 추진했기에 온갖 부작용을 양산했다. 그동안 온갖 개발로 인해 이미 우리의 강들은 적지 않은 생명성을 상실했는데 4대강 사업으로인해 융단 폭격을 당한 것과 같다.

무지막지하게 진행된 준설과 수변 정비공사, 사실상 댐인 보의 설치로 인해 강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고 그 주변일대에는 일대 교란이 발생하고 어류 등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나갔으며 지금도 죽음이 진행되고 있음이 환경전문가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살생의 참극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사업
당시 정권 '불투도·불망어' 죄 범해
종합병동된 4대강 살리기에 불교나서야

자행된 사업이라 단정함이 불교적 견해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5계 중 첫째인 '살생의 죄'를 자행했다.

4대강 사업은 '도(盜)'의 죄를 범했으니 마치 이명박 정부는 강과 국토가 자신의 것인 양 주권행사를 남발했다. 4대강 사업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사업이었다. "2010년 3월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공개한 4대강 사업 찬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대가 절반 수준인 49.9%로 찬성(36.7%)보다 13.2%p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출처:아시아경제)

즉, 4대강 사업은 독재정권이라 해도 국토가 자신의 소유인 양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음에도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했으니 불교 입장에서는 '불투도의 죄'를 범했음이다.

또한 국민을 상대로 '불망어의 죄'도 범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4대강의 홍수와 가뭄방지, 하천생태계 복원,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걸었으나, 수년이 지난 오늘의 4대강은 '녹조라떼'의 오명을 안고 있으며 취수원의 오염은 상수원의 역할마저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했고 당시 우리정부는 '한국이 전 세계에 습지를 보호하겠다.' 고 약속한 바 4대강 사업은 대대적인 습지 파괴라는 국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으니 국제적으로도 불신과 망신을 자초했음이다.

대한민국이 불교국가도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자도 아닌데 4대강 사업의 문제에 불교의 계율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5계의 주된 내용인 '죽이지 마라', '훔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은 어느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를 벗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기에 적용 가능하고도 남음이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4대강의 온갖 문제들을 떠안고 살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이미 변위된 지하수 문제, 보 문제, 하천 선형 문제, 오염 문제, 유속과 관련한 제반 문제 등 종합병동과 같은 4대강의 현실을 어찌해야 하는가? 상기하건대, 불교의 모든 가르침과 경전의 공통점이 있으니 마음과 작용 그리고 현상에 대해 철저한 해체와 분석, 격의 없는 대화와 이해 그리고 이를 통한 인식과 깨달음으로 귀착되는 결론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4대강을 살리는 길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해방 전후부터 발간된 전국토의 지형도 확보는 물론, 이후 온갖 개발과 자연적 현상에 의한 환경 변화 관련 자료들에 대한 수집과 분석 및 형상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자연 상태의 원형과 변천에 대한 자료 없이 강구되는 대안은 치유는 고사하고 또 다른 부작용만 양산하게 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리, 수문, 생태, 농업, 인문사회 등 전반적인 분야의 문제를 솔직하게 진단하고 이후 가능한 자연화 내지는 회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천을 포함해서 입체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현 정부가 4대강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대안 생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과 전문가의 활용에 인색해서는 안 되며 시민사회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불교계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불교유산에 대한 피해를 입은 동시에 공적 입장에서 책임이 자유롭지만은 않다. 가장 환경적인 종교라는 불교가 4대강 사업은 물론 국토환경이 파괴를 거듭하며 오염되는 현실에 얼마만큼 예방과 회복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산하대지와 만 생명을 안락하게 하는 일이 바로 고등종교인 불교가 해야 하는 일이다.



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



험준 산길 넘어 자리한 코보 대사 수행처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⑧ 고행의 타이류지 가는 길


벚꽃이 한창인 타이류지. 산이 높아 4월 하순까지 벚꽃이 남아있다.

'서쪽 고야산' 별칭… 위용 장엄
급경사로에 '대사 보호' 외우며
코보 대사 수행한 바위절벽 올라
"대사는 어떤 기도 드렸나" 상념

21번을 향하는 길은 확실히 힘에 부쳤다. 길이 잘 닦여있긴 하나 쉴만한 구간 없이 그저 오르막의 연속. 배낭을 짊어맨 채 몸을 숙여 쉬어가며 조금씩 오른다. 그래도 힘내서 걷는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도쿠시마 지방의 옛말에 "첫째는 쇼산지, 둘째는 카쿠린지, 셋째는 타이류지"라는 말로 순례의 난소를 전하고 있겠는가.

또 오르는 길의 산세가 깊다보니 멧돼지나 살무사, 말벌의 공격을 받았다는 뉴스가 간혹 들려온다. 몇 년 전에 고령의 순례자가 탈진으로 목숨을 잃었다. 에히메현에서 만난 한 일본인 순례자는 그 발견자가 자신이라며 당시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준 적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순례자들이 20년 전에 생긴 로프웨이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사찰의 산문도 로프웨이 정류소 쪽에 새롭게 세워져있다. 그러다보니 도보 순례길의 끝에 만나는 산문은 왠지 낡고 쓸쓸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알게 모르게 으스스하고 험준한 타이류지지만, 그 사세와 위용은 참으로 장엄하기 그지없다. 그 옛날 코보 대사가 직접 이곳에서 수행했다는 기록을 남기면서, 서쪽의 고야산(西の高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타이류지의 대사당은 흡사 고야산의 오쿠노인(奥之院)과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다.

산문을 지나 납경소 옆의 휴게소에 배낭을 푼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참배를 하기로 한다. 휴게소 벽에 붙은 광고 사이로 숙소 정보가 눈에 들어왔다. 산 아래 로프웨이 정거장 옆에 민박집이 하나 있는데 1,500엔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인다. 자세히 살펴보니 도미토리(다인실)에 식사 불포함, 자신이 지참한 침낭 사용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모든 조건에 걸리는 게 없는 나로선 거리낄 이유가 없다. 같이 걸어온 동료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니 다들 환호성을 지른다.

"정말 이건 대사님이 굽어 살피셨네."

"그동안 대충 예불했는데 오늘은 좀 잘 해야겠어."

"필요할 때만 아미타불이라니, 그러면 되겠나."

한바탕 왁자지껄 웃고는 본당을 향한다. 종루의 범종을 치고 본당에 가서 손을 모은다. 근데 어째 두 사람이 내 뒤로 나란히 서는 게 묘하다.

"왜 그래요?"

"박상 교쟈(行者)니까, 뭔가 박상이 독경하는 걸 따라하면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

"아이고! 나같이 되다 만 사람의 경을 따라 해서 뭣 하려고요!"

"센다츠(先達)상! 교쟈상!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선 출가 전의 발심자들을 행자라고 부르지만, 일본에서는 재가자로 계를 받아 수행하는 이들을 '행자(行者)'라고 한다. 또 여러 번 순례를 다녀서 다른 순례자들의 순례를 도와주는 이들을 '센다츠'라고 부른다. 시코쿠 순례를 5번 가량 하다 보니 '센다츠'라는 소리를 종종 듣곤 한다.

또 스스로 시코쿠 순례를 하면서 일단 신분을 교쟈로 밝힌다. 그냥 오헨로상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수행을 위하여 이 길을 걷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쟈라는 신분 덕에 시코쿠에서 잊을 수 없는 일들을 몇 번 겪은 적도 있다. 아마 차차 말할 기회가 있으리라.

어쩔 수 없이 경쇠를 잡고 예불을 시작한다. 보통 시코쿠 순례에서는 반야심경과 각 절의 본존 진언, 광명진언, 대사보호(大師寶號), 회향 순으로 예불을 올린다. '대사보호'는 시코쿠 순례의 특별한 명호다. '나무대사변조금강(南無大師遍照金剛)'이라는 이 명호는 이 길을 만들고 중생들을 구제한 코보 대사에게 귀의한다는 기도다. 시코쿠를 걷다보면 수없이 보고 듣다보니 순례 막바지엔 그냥 푸념하듯이 튀어나오곤 한다.

회향을 마치고 뒤돌아서서 인사를 하려고 봤더니 3명의 순례자가 따라 인사를 한다. 순간 당황해 오도카니 서있으니 "독경소리가 좋아서 그만 따라 붙어 예불을 했다"며 말을 건넨다. 대사당으로 이동하면서 이야기를 하려니 모녀에 손자까지 3대가 같이 순례를 나왔단다. 어린아이가 자기 몸 만한 납경 족자를 등에 매고 척척 걷는 모습이 사뭇 귀엽다.

대사당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니 재미있는 것이 있다. 나무에 액자 프레임이 하나 걸려있다. 이 프레임 안으로 건너편 산을 바라보면 아침에 걸어온 20번 카쿠린지가 보인다. 셋이서 저 멀리 보이는 사찰의 지붕을 보곤 입을 모아 말한다.

"저기서 걸어 왔다고?! 세상에, 우보천리라더니!"

대사당까지 참배를 마치고 다시 납경소로 돌아왔다. 납경장을 들고 가니 노스님께서 본존의 범자(梵字)를 납작한 붓으로 써주시는 게 특이하다. 내친김에 여쭈어 보았더니 '원래 범자는 납작한 붓으로 쓰는 게 정서(正書)'라는 대답을 들었다.

사찰에서의 참배를 마치고보니 시간이 많이 남았다. 어차피 오늘 숙소는 로프웨이를 타고 내려 가야하고, 마지막 로프웨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리된 거 코보 대사가 수행했다는 바위절벽을 가보기로 했다. 다시 배낭을 둘러매고 로프웨이 정류장을 지나쳐 다시 산길을 오른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할만 했는데 갑자기 급경사가 나타난다.

심지어 경사로의 입구엔 "미끄러지기 쉬우니 한발 한발 '나무대사변조금강'을 염송하며 올라갑시다" 라는 비석까지 서있다. '괜히 왔나' 싶어 돌아가려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올라간다. 하지만, 거의 기어가다시피 가는 경사다. 숨이 턱에 차 배낭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려는 찰나에 절벽을 알리는 안내판이 서있다.

'샤신가다케(舍心ヶ嶽)'. 기록에는 '샤신(舍身)'으로 기록된 것도 있는 바위 절벽이다. 코보 대사가 젊은 시절 몸과 사사로운 마음을 버려가며 수행을 하던 장소다. 지금이야 길이 어느정도 닦여있지만 코보 대사 당시에는 말 그대로 험난한 길이었으리라. 코보 대사 스스로도 "아와국의 타이류산을 기어올랐다(躋攀阿國大瀧嶽)"고 남기고 있다.

대사께서 수행하셨다는 장소를 가기 위해선 길에서 조금 벗어나 쇠사슬을 잡고 바위를 넘어가야한다. 혹시 위험할지 몰라 안내판 옆에 배낭을 내려놓고 사슬을 잡고 좁은 바위틈을 넘어간다. 그러자 시야가 탁 트인 절벽이 나오고, 코보 대사상이 멀리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찰에 전해오는 이야기로 젊은 시절의 코보 대사는 이곳에서 구문지법(求聞持法)이라는 기도를 했다고 전한다.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을 본존으로 모시고, 그 다라니를 1백만 번 염송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이 기도를 성취하면 그 어떤 경이나 논을 배워도 막힘없이 모두 통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 법은 수행자 홀로 닦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그 성취의 증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반복해야한다. 그래서 시코쿠 순례길 위 여기저기에 코보 대사가 구문지법을 수행했다는 장소나 절이 전한다.

타이류지도 그 중 한 곳이다. 그 인연으로 허공장보살이 본존불로 모셔져있고, 한켠에 구문지법만을 수행하는 도량이 마련되어있다. 하지만 코보 대사의 전기에 구문지법을 성취한 곳은 24번 호츠미사키지 아래의 동굴로 전한다.

가만히 대사상의 옆에 앉아서 멀리 풍경을 바라본다. 1,200년 전 코보 대사도 이 풍경을 보시며 기도를 하셨으리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까? 왜 구문지법을 닦으셨을까? 이런 저런 상념에 빠져있으려니 멀리 올라오는 로프웨이의 소음이 퍼뜩 정신을 차리게 한다.

대사를 바라보며 예경을 하려해도 단애절벽이라 마땅히 서있을 만한 곳이 없다. 대사를 내려다보며 예를 표할수도 없는 노릇이니 바위를 디디고 내려가 본다. 어른 셋 정도가 겨우 설만한 공간이 대사상 바로 밑에 있다. 타나 남은 초와 향이 여기저기 흩어진 것을 보니 다들 여기서 예경을 하는 듯 했다. 간단히 반야심경과 허공장보살 진언을 염송했다. 예전에 범어원음으로 진언을 외웠었는데 한동안 안하다 보니 혀가 꼬인다. 결국 일본식 발음으로 진언을 염송했다.

"감사합니다. 저도 대사님과 같이 지혜로운 수행자가 되게 하소서."

다시 절벽길을 조심조심 더듬어 원래의 길로 돌아왔다. 올라올 때와는 다르게 금방 로프웨이 역에 도착했다. 프랑스인 친구와 일본인 친구가 나를 부른다.

"박상! 여기 직원분이 차를 오셋타이 해주셔!"

로프웨이역 안의 기념품점에서 파는 차를 한잔 가득 따라주시기에 마셨더니 맛이 꼭 우동육수 맛이다. 육수가 아닌가 하고 물어본다.

"차 맛이 꼭..."

"네, 꼭 육수 맛이지요?"

"네, 대체 무슨 차인가요? 처음 마셔보는 맛이에요."

"버섯 차에요. 이 산에서 나는 표고, 송이, 느타리 등등이 들어있어요"

"어쩐지 육수 맛이다 했네요!"

그렇게 우리는 버섯차라는 이름의 육수를 여러 컵 들이키고 로프웨이에 올랐다. 2㎞나 되는 거리를 움직이는 서일본 최장 로프웨이라고 한다. 기압차로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며 오늘의 숙소로 들어섰다.

민박 '소와카'. '소와카'는 일본어 발음으로 우리말 진언의 '사바하'에 해당된다. 숙소이름이 기분 좋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보통 전날 예약을 해야 하는데, 곧장 카운터로 들이닥쳐 3평이 묵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 다행히도 도미토리는 아직 비어있단다. '원만히 성취되리라!(사바하)'. 오늘도 좋은 인연들과 하루를 마무리 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짐을 풀었다.

〈자유기고가〉

순례의 Tip


타이류지 대사당 전경.

– 12번 쇼산지에 비하면 편하지만 비탈진 산길이 이어진다. 자신의 리듬에 맞게 산행을 하자.

– 일본의 숙박업소는 최소 하루 전, 혹은 당일 점심까지는 예약해야 한다. 순례기와 같이 무작정 들이닥치는 건 가급적 사양하자.

– 로프웨이가 아닌 순례길을 따라 도보로 산을 내려갈 경우 숙박업소는 없고 노숙 포인트만 두 곳 있다. 숙박지를 잘 생각하고 하산하자. 도보로 내려갈 경우 순례기의 민박집까지는 도보 1시간 반 남짓(6.5km)이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정원장 월해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감찰원장 성호 종회의장 법륜 호법원장 해월
포교원장 덕해 교육원장 영호 규정원장 혜성
감찰부장 경오 호법부장 문경 포교부장 장문
규정부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한마음조계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제방의 대덕 큰스님이하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종단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8호
휴대전화 011-870-0021

절제 · 중도소비는 부자되는 지름길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⑳ 불자의 저축과 부채



그림 · 박구원

요즘은 경기예측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경기가 침체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등했고 경기가 활성화되다 과열되면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침체기를 겪는 파동을 보였다. 요즘은 경기가 침체하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다시 침체하는 장기 침체 현상이 생겼다. 예를 들어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뒤에 다시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다. 과거에는 돈을 찍으면 인플레가 생겼는데 요즘은 반대로 디플레가 발생한다. 이처럼 과거의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새로운 현상을 뉴노멀 즉 '새로운 정상(new normal)'이라고 부른다. 경제침체가 전 세계로 퍼지다보니 모든 국가의 경기침체를 일본화(Japanization)라고 표현한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일본은 최근 아베노믹스에 의해 돈을 찍어대고 수출이 증가하여 기업 일자리가 늘어 경제가 활성화되는가했지만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저축만 하고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란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니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저축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그저 믿을 것은 돈 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사람들은 더욱 더 지갑을 닫고 소비는 꽁꽁 얼어붙는다.

과거에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축이 늘었는데 요즘은 이자율이 내려가야 저축이 는다고 한다. 이것도 뉴노멀이다. 저축이 늘고 소비가 위축되자 저축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는 말도 자주 나오고 있다. 과연 저축은 미덕이 아닐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저축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고해서 우리가 억지로 소비할 필요는 없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구태여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방법을 쓸 필요는 없다. 정부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가 늘도록 해야지 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소욕지족의 삶을 추구하며 단순 소박한 경제생활을 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게 불교적인 삶이다.

일본에서는 장기침체가 계속되자 젊은이들이 소비를 줄이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산다. 일본 사람들은 사고 싶은 것도 억제하고, 한 때 해외여행을 많이 했었는데 해외여행까지도 억제한다. 단순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삶의 양태를 보고 사토리 세대라고 표현한다. 즉 득도한 세대, 도통한 세대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세대별 행복도를 조사하니 젊은이들이 가장 행복도가 높았다. 취업도 어렵고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세 가지 즐거움도 포기한 삼포 세대의 행복도가 가장 높은 이유를 젊은이들이 큰 욕심 갖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일본의 뒤를 따라 간다고 했던가? 일본의 사토리 세대처럼 우리 젊은이들도 득도한 세대가 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부처님은 과연 저축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중아함경〉은 "재물을 구한 뒤에는, 그것을 나누어 4분(四分)으로 만들라.' '1분으로는 음식 만들고, 1분으로는 농사 장만하고, 1분은 모두 간직해 두어, 급한 때의 쓰임에 이바지하고.' '농사꾼이나 장사꾼에게 주어, 나머지 1분에는 이자(利子)를 나게 하고…"라고 설한다. 이 구절이 유명한 사분법(四分法)에 대한 설명이다. 돈을 벌면 1/4은 음식에 사용하고, 1/4은 농사 짓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직업을 위해 혹은 업무를 위해 사용하며, 1/4은 저축하여 비상시에 사용하고, 1/4은 농사꾼이나 장사꾼에게 주어 이자를 받으라는 지침이다. 여기서 1/4이라면 매우 많은 액수에 해당한다. 오늘날은 1/4은 고사하고 1/10도 저축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결혼한지 몇 년이 지나도 저축을 못하여 전세값이 오를 때마다 부모의 도움으로 겨우 버티자 한 번은 자식을 불러 놓고 치사하지만 일일히 지출을 따졌다고 한다. 자식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저축하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오늘날은 그저 벌어서 겨우 생존하기에 급급한 시대이다. 1/4은 고사하고 1/10도 어렵지만 이럴수록 조금씩이나마 저축해서 미래의 험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급한 때의 쓰임' 이라고 힘든 상황에 사용하라는 의미이다. 조금이라도 목돈이 생기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최악의 사태는 면할 수 있지만 저축이 없으면 위기 상황에서 빚에 내몰리게 된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저축할 수 없을만큼 힘든 경제생활 때문이다. 힘들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축밖에 길이 없다. 커피 마시지 말고 택시 타지 말고 외식을 줄이면 조금이나마 저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언제까지나 내탓만 하지 말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은 나의 능력과 '노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제구조와 분배가 잘못된 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과거 저축률을 보면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이 안 갈 정도다. 물론 옛날에는 이자율이 높았지만 지금은 저축 성향이 줄어든 탓도 크다. 요즘 젊은이는 한 달 벌어서 모두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부처님은 소득보다 소비가 적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소득과 소비의 차액은 저축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절제도 중요하다. 다만 인색하면 안되고 중도적 소비가 필요하다.

소득보다 소비가 적어야
절제와 중도적 소비 필요
부채는 분수에 맞아야 해

과거에는 은행에서 보통 사람이 돈을 빌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심지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은행이 가진 돈은 정책금융으로 기업에게 제공되었다. 선진국에서는 담보도 없는 보통 사람이 신용만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과거에는 목돈이 필요하면 반드시 저축해서 목돈을 만들었지만 요즘은 어느 정도의 신용만 있으면 담보 없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게다가 저금리 현상이 오래 지속되어 누구나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심심치 않게 경제 위기의 요인으로 언론에 보도된다.

부처님은 부채를 허용하고 이자의 증식도 허용하고 있지만, 분수에 넘게 부채를 부담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설하셨다. 〈중아함경〉은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빈궁한 것은 큰 고통이요,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남의 재물을 빌리는 것은 큰 고통이며,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남의 재물을 빌려 이자가 늘어 가는 것은 큰 고통이요,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빚 주인의 독촉을 받는 것은 큰 고통이며,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의 빚 주인이 자주 그 집에 가서 독촉하는 것은 큰 고통이요,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빚 주인에게 묶이는 것은 큰 고통이라 하느니라"고 설한다.

지출과 소비에 있어서 분수에 맞고 적정해야 중도적이듯 부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첫째 부채는 분수에 맞아야 한다. 욕심이 있는 사람이 남의 재물을 빌려서 이자가 늘어간다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부채를 조달하여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둘째 부자는 부채가 많아도 갚을 수 있기에 분수에 어긋나지는 않다. 그러나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자가 낮으니 일단 은행에서 빌려 현금을 확보해놓자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게다가 부자는 신용이 높기에 이자율이 낮고 가난한 사람은 신용이 낮기에 이자율이 높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려할 때 부자가 불필요하게 많은 돈을 빌려가버리면 가난한 사람이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빌려야 한다.

어떤 부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자를 모으고 부채를 조달하느라 열심히 노력하기에 내가 '사장님은 돈도 많으신데 왜 투자자를 모으고 돈을 빌리려 하십니까?' 라고 묻자 '사업은 내 돈으로 하는게 아니에요' 라고 했다. 그때 부자는 역시 다르구나 하고 느꼈다. 만약 사업계획이 전망이 없으면 투자자들이 모이지 않기에 투자자가 모인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한 사업계획이 사람들에게 먹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주식회사는 파산해도 투자한 자본만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영권을 쥐는 수준에서만 투자하고 남의 돈을 투자받거나 빌리려고 한다. 망하면 내가 투자한 일부 지분만 포기하면 되는 것이다. 유능한 사업가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 재벌 총수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은 어렵다. 사람의 능력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돈을 얼마 빌릴 수 있는가도 중요한 능력이다. 따라서 부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지나친 부채가 문제일 뿐이다.

은행 이자가 낮다보니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것을 별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채는 인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항상 불확실이라는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은행 이자가 2%이고 빌딩의 임대수익율이 6%라고 하자. 돈을 빌릴 수 있다면 빌딩을 구입할수록 돈을 번다. 6%의 임대수익에서 이자와 세금 등을 제외해도 3%의 순수익은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을 빌리면 빌릴 수록 이익이다. 그러나 만약 은행 이자가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순수익이 은행이자가 오른만큼 줄어들게 된다. 순수익이 줄어들면 빌딩을 내다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만약 빌딩이 쉽게 팔리지 않거나 구입가 이하로 팔리면 부채도 못 갚을 수 있다. 경제가 악화되면 은행 이자가 오르지 않아도 빌딩의 임대 수익이 하락하기에 복병은 여러 곳에 있다.

〈장아함경〉은 "어떤 사람이 남의 돈을 빌어 장사하여 큰 이익을 얻고 돌아와 본 주인의 재물을 돌려주고도 남는 재산이 쓰기에 넉넉하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원래 남의 돈을 빚내어 뜻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그런데 이제 이익을 얻고 돌아와 본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고도 남은 재산이 쓰기에 족하다.' 하고 다시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어 큰 환희심을 내는 것과 같다."고 설한다. 비록 부처님이 부채와 이자수익을 적극 장려하지만 부채가 없는 상황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꼭 필요한 적정 부채만을 조달하되 결코 분수에 어긋나는 액수를 빌려서는 안되고 가능하면 부채는 빨리 상환하는게 좋다.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신비한 능엄주와 50마장 극복하는 힘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㊲ 〈능엄경(楞嚴經)〉 4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면 서양 사람들은 머리에 있다하고, 동양 사람들은 가슴(심장)에 있다고 한다. 마음이 이성적인가, 감성적인가에 따른 답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보다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 더 관심이 있다. 마음의 본바탕을 밝히는 지름길로 안내하는 가르침이 〈능엄경〉이다. 즉 '기탁염발묘명(棄濁染發妙明)', 번뇌에 물든 혼탁한 사량 분별의 마음을 버리고,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의 지혜인 묘명인 여래장묘진여성을 밝힌다. 여래장은 삼관의 실체로서 그 특성에 따라 마음의 실체인 공여래장은 사마타로 수행하고, 지혜공덕상인 불공여래장은 삼마제로 수행하며, 이 둘을 중도일심으로 보는 공불공여래장은 선나로 수행한다.

〈능엄경〉의 하이라이트는 능엄신주의 등장이다. 바른 통찰력과 청정한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는 우리 곁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50마장과 마주쳐 난감해 할 때 만나는 위풍당당 수호신같은 만사형통의 능엄신주 때문에 우리가 이 경을 사랑하는 것 같다. 우리가 지옥 같은 수렁에 빠졌을 때, 부처님이 구해주는 능엄신주와 장애를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 법은 출가자나 재가자가 간절히 원하는 안전지대다. 그러나 아무나 능엄신주를 외운다고 해서 모두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능엄신주의 가피를 원하는 수행자의 자격 요건이 있으니, 바로 음욕과 살생, 훔치는 것과 거짓말을 반드시 끊어야 하는 기본적인 수행지침이다. 음욕을 행하며 살아가는 재가자가 능엄신주를 통해 가피를 얻고자 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얻고자 함과 같다.

계(戒)에는 섭지(攝持)의 뜻이 있다. 섭은 자석이 금속을 끌어 당기는 힘이다. 성공하기 위해 정당한 노력이 아닌, 권력자, 재벌과의 연줄로 성공하려는 마음을 '반연심'이라 하는데 이 반연심을 수습하고 돌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케 하는 마음이 바로 섭심(攝心)이다. 계율을 지키며 사는 것은 가장 평온하게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이다. 가장 평온한 마음자리(定)에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계 · 정 · 혜' 삼학으로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는 것이다. 윤회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하면 지혜가 등장하는데 이 지혜를 '건혜지(乾慧地)'라고 한다. 이 금강 같은 초심인 건혜지 위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 묘각의 54계위로 일체가 환(幻)과 같다는 수행을 하면 불생멸의 성품으로 불생멸의 선정을 닦아 부처님에게로 깊이 들어간다.

우리들이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보고 만지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내 존재가 눈앞에 확실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질은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존재감과 사라져간다는 무상(無常)이 충돌하면서 납득하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생겨난다. 부처님은 이럴 때 만물이 12가지 인연으로 이루어져서 사라져가는 과정을 연기법으로 보여주며 아난과 제자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해주고 있다. 능엄신주는 이렇게 수행하는 이들이 장애와 싸우다 쓰러졌을 때 119구급대원처럼 수행자를 구하는 역할을 한다.

선종의 청규인 〈백장청규〉에서 각종 의례에 대비주와 함께 능엄신주가 꼭 포함되고 있다. 안거를 원만히 회향하기 위해선 능엄단을 만들고 능엄주를 독송한다는 것은 스님들이 선수행을 할 때 나타나는 마(魔)의 경계를 알아차려 장애를 극복하고 성불하기 위한 사전작업인 것이다. 선수행을 할 때 나타나는 50마장은 부처님의 체험을 이론화해서 정리한 것으로 상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읽다보면 마음속 답답함이 사라진다. 결론은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겐 장애경험은 절대 없다는 것이다. 장애를 만났을 때 장애 앞에 무릎을 꿇거나 쉬어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장애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다. 혹 마장이 일어나면 그것은 '지금은 수행중'이니 미리 능엄 50마장을 읽고 기억해 두었다가 마장장애가 일어날 때 호들갑떨지 말고 자연스럽게 극복하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일 것이다.

부처님께서 깨침의 순간에 정수리에서 광명이 출현하여 비밀스러운 능엄신주를 설하셔 아난을 구출하시는 모습을 통해, 성불의 길로 안내하기 위한 부처님이 가르침을 증득하고, 보살의 길에서 실천해야 할 54계위의 수행법은 성불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니 부디 견고하게 받아들여 '자기화' 시키라는 아난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부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자.

〈서울 반야사 주지〉

드러나지 않는 번뇌도 부처님께 바쳐야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㊱ 치심을 닦아 CEO 인재가 되다

'탐진치' 중 치심을 닦아 CEO 인재가 되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최고 경영자라 합니다. 그렇다면 CEO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모른다는 생각 역시 착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모른다는 생각이 사라진 그 자리에 부처님 광명이 임하게 되어, 모를 것 없이 다 알게 될 것이니라."

선지식의 말씀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하겠다고 설치다가 잘 안되면, "왜 안 되냐?"며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듯하면, 이만하면 되었다고 이름 짓고 만족해합니다.

선지식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본래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요 밝은 존재이기에, 세상의 작은 목표 달성에 만족하고 이만하면 되었다고 이름 짓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일이요, 무지의 소치라는 말씀입니다. 치심이 곧 무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만하면 되었다는 무지의 마음은 아무 형상이 없기에 부처님께 바칠 번뇌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습관화 된 번뇌 역시 다 바쳐야 할 대상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일에 봉착했을 때 처음에는 알려고 시도합니다. "이 무엇인고?" 하는 참선의 화두 역시 우주의 진리를 알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한결 같이 알고자 하면, 대개는 답이 느닷없이 알아지게 됩니다. "이 무엇인고?" 하며 시종일관 알고자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무엇인가를 모르겠다고 이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무엇인고?"는 모른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어째서 모르겠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면 알아지게 될까요?

지금 두 학생 A와 B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하여 집중하고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똑같이 집중했지만 시험 친 결과 A가 B보다 성적이 우수하였습니다. 사람들은 "A가 머리가 좋으니 어찌 B가 A를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A는 문제를 대할 때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특성이, 쉽게 '모르겠다.'를 내뱉는 B학생보다 성적이 좋은 이유라 말하실 것입니다. 꾸준히 알려고 하며, 모른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결국 누구나 다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다.'고 이름 짓는 순간 정말 모를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르겠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야 알아지는 이유입니다.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은 간화선 수행자처럼 "이 무엇인고?" 하며 알려는 마음으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설치는 마음이 탐심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동하면 알던 것도 모르게 됩니다.

수시로 "모르겠다." 자포자기하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데, 이때마다 이것이 잘못인 줄 알고 계속 부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수시로 부처님께 바친다면 꿈으로라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르는 일을 꿈으로라도 알게 되면 이것이 지혜 발현의 시초인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원효대사와 '사사무애법계'

사법계(事法界)는 조그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니 물에 안 빠지고 싶지만 빠져서 괴롭고, 결혼도 하고 헤어지고, 성공도 실패도 하는 것이 인생살이다.

'이사무애법계(理事无涯法界)'는 큰 배를 타고 파도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에 안 빠지게 된다. 그러나 물에 빠진다 안빠진다를 떠나서 물에 빠지면 전복을 따고 진주 조개를 주우면 되니 둘로 나누지 않는 세계가 '사사무애법계(事事无涯法界)'이다. 원효대사가 당대 최고의 스님으로 명성을 날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 받고 있을 때 대안(大安) 스님은 경주 남산 골짜기서 움막속에 살면서 산짐승들이나 돌보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걸승인 대안 스님을 길거리서 만나게 됐는데, 나와 같이 가자고 하여 가본곳이 비천(卑賤)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창녀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었다. 그런데 술집 주모에게 술 한상 가져오라고 하니, 계율을 청정히 지키고 왕족과 귀족은 물론 상류층과 교류해 온 원효대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니, 대안 스님이 원효대사의 등 뒤에서, "여보시게 원효, 마땅히 구제 받아야 할 중생을 여기두고 어디 가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말인가?"라고 하였다.

경주 분황사에 돌아와서 부처가 둘이 아니고, 색공(色空)이 둘이 아니라고 법문은 했지만, 결국 경계에 부딪히니 귀천(貴賤)을 나누고 깨끗한 것을 취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원효대사는 아무도 모르게 감천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부목(負木) 살이를 시작하게 된다. 그 절에는 방울 스님이라고 하는 볼품없는 꼽추 스님이 있는데, 행동조차도 어린 아이와 같아서 스님들 사이에서 천대(賤待)를 받고 있었다. 원효대사는 나름대로 방울 스님을 특별히 보살펴 주었다. 한동안 마물다가 원효대사가 한밤중에 짐을 챙겨 조용히 대문을 열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문간방에 사는 방울 스님이 얼굴을 빼꼼히 내밀면서 "원효 잘가게" 하면서 방문을 탁 닫아 버렸다. 순간 원효대사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하고 다시 한번 크게 깨닫게 된다.

> "부처가 둘이 아니고, 색공이 둘이 아니라지만, 결국 경계에 부딪히니 귀천을 나누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했다."

원효대사가 하심(下心)한다고 갖가지 어려움을 참고 보살행을 했지만, 그러나 방울 스님은 보살핌을 받아야할 불쌍한 스님이 아니라 이미 깨달아서 밝게 보는 분이었고, 동촌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구제받아야 할 중생이라는 것은 원효대사의 생각이고, 구제받아야 할 중생은 바로 명성(名聲)과 권위(權威)라는 헛된 상(相)에 사로잡힌 원효대사 바로 자신임을 깨우치게 되었다. 그것을 벗어던지기 위해 수행자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계율을 요석공주에게 파계(破戒)하고, 원효대사는 파계한 승(僧)으로서 엎드릴 복(伏)자를 써서 '복성거사'라 스스로 칭하고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광대복장을 하면서 동촌마을 사람들과도 어울리게 된다.

이단계가 화작(化作)이며 '사사무애법계(事事无涯法界)'인 것이다. 원효대사가 부목(負木)일 때는 부목을 흉내내는 원효라는 자아(自我)가 있었지만, 지금은 부목이 부목질 하는 것이니 원효대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고기를 잡으면 어부가 되고, 농사를 지으면 농부가 되고 술을 마시면 술꾼이 되고 소를 잡으면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닌 백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사무애법계인 '화작(化作)'이라고 한다. 또한 '사사무애법계'의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차림을 하고 똑같이 어울린다. 화도 내고, 술도 먹고, 싸움도 하니 표가 안난다. 때로는 법상(法床)에도 앉게되고 민중 속에도 함께하며 현생에서 자유자재권을 누리는 것이다. 일체무애인(一切无涯人) 일도출생사(一道出生死)라, 생활속에서 일체처 일체시에 '이뭣고' 수행으로 망념과 집착서 벗어난 무애인(无涯人)이 되어야 금생에 생사(生死)를 해탈하는 대도(大道)를 이루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기봉 전통 범패 의식 강원

전통 불교의식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식 전문 학인을 모집합니다.

◆ 응 시 자 격 ◆

① 입 학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생(음악,국악과) 등 일반
② 제 출 서 류 : 본 강원 소정양식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사본, 해당자)
③ 전 형 일 정 : 2019년 1월 8일까지
④ 개강 기초반 : 2019년 1월 8일 (매주 화요일)
⑤ 상주 권공 : 2019년 1월 11일 (매주 금요일)
⑥ 시 간 : 오후 1시 ~ 4시
⑦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대흥로 26번지 대은사

※상 담 문 의 : 010-9170-3631

법고무 특강

개 강 | 2018년 11월 19일 (매주 월요일) ~ 2019년 1월 28일 까지
시 간 | 오후 1 시 ~ 4 시 까지
지도 강사 | 기봉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 조교)

명산 대찰 수억대의 복잡한 시설보다

본사의 방송시스템은 앰프다루기 1초! 가격은 1~2백만원대이지만 염불이 아주 편하다는 입소문의 힘으로 영남권 1천여의 시설에도 A/S를 생명같이 하여 17년간 고장 한번 없이 새 것 같이 사용합니다.

(현장 비교시 광고와 추호라도 다를 시 누가 더 손해 망신?)

염불 전문시설 외에도

500명 수용, 악기 연주, 노래산사음악회 / 공양간 노래방
각종 방생용 앰프 구경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월등한 소리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백세시대 박 공희 올림



다문화가족 함께한 '世界一花'

고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울림축제

선운사복지재단이 위탁 · 운영하는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대원)가 세계다문화 어울림 축제를 개최했다.

10월 13일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 고창 세계문화어울림축제'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 복지재단 상임이사 법여 스님, 센터장 대원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군의장을 등 지역 기관장들과 다문화가족 등 1,300여 명이 동참했다.

축제에서는 '캄보디아의 압살라 춤' 등 6개국 문화체험과 '베트남 찹쌀밥' '필리핀 잡채' 등 7개국 음식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제공됐으며, 중국의 전통혼례 재연 등 다채로운 공연무대가 꾸며졌다. 행사장 밖 18개 부스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대원 스님은 "올해 14회째 개최되는 어울림축제는 오롯이 다문화가족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축제이며, 앞으로 너와 나, 국가와 인종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마음껏 웃고 즐기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구불심 담은 한마음 체육대회

대구불교총연합회, 13일 행사 열어

대구지역 범불교종단연합체인 대구불교총연합회(회장 효광)와 신도회는 10월 13일 대구 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대구불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체육대회에는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과 천태종 대성사 주지 영제 스님, 진각종 대구교구청청장 정효 정사,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선지 스님, 대구불교총연합회 서중호 신도회장 등 대구지역 각 종단과 신행단체들이 참가했다. 행사에서는 열림의 장, 화합의 장, 나눔의 장을 통해 각종 운동경기와 축하공연, 노래자랑, 응원전 등이 진행됐다.

대구불교총연합회장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은 "아름다운 초가을에 '나'라는 생각, 아상을 버리고 반목과 갈등은 놓아버리고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불이(不二)의 정신으로 소통하고, 화합해 행복한 야단법석(野壇法席)을 함께 만들도록 하자"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유교식 제례문화 불교식 변화 필요"

Interview

'영혼의 힐링하우스' 개원한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제사에 대한 유교적 관념
불교계에도 여전히 남아
독경 · 법문 문화로 바꿔야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유교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지금도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교도 어쩔 수 없이 유교식 제사를 해왔죠. 하지만 이제 제사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기 위해 영혼의 힐링하우스를 개원했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에 꽤 독특한 고인추모관이 생겼다.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은 10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롭게 문을 연 백양사 추모관 '영혼의 힐링하우스'의 건립 취지를 이 같이 밝혔다.

'영혼의 힐링하우스'는 기존 명부전과 납골당이던 영각당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추모관이다. 세계적인 건축가로 평가받는 윤경식 한국건축 회장이 설계와 시공을 총괄해 전통과 현대, 삶과 죽음, 추모와 예술이 교차하는 경계를 표현했다. 윤 회장은 힐링하우스가 공간에 떠서 자유롭게 부유하는 느낌을 주고자 콘셉트를 '부(浮)-뜨다'로 정했다. 건물 밖에서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기존 전각 양식을 탈피해 전면 유리를 사용하는 한편, 하단에 조명을 설치해 건물이 지면으로부터 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했다.

토진 스님은 "과거 불교에서는 스님이 입적하면 부도를, 신도가 별세하면 탑을 세웠다. 하지만 불자들은 여전히 제사상을 차리고, 지방을 쓰고, 심지어 문을 열어 놓은 채 조상 영혼이 들어오길 바라기도 한다"면서 "이제는 제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제사문화가 변했다. 경전을 독송하고, 법문을 듣는 불교식 제사문화 확산에 힐링하우스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양사 영혼의 힐링하우스는 일반적인 납골당과 달리 납골함 디자인을 원뿔형으로 제작했다. 토진 스님에 따르면 납골함은 미얀마 쉐다곤 파고다에서 영감을 얻었다. 수많은 황금탑들을 보면서 원뿔형태의 납골을 고안했으며, 총 432기의 납골이 가능하다.

토진 스님은 "건물 내에서 고인의 생전 음성과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추가하고, 냉난방시설을 가동해 사시사철 언제든지 가족들이 찾아오기 편하게 배려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상주하는 지객을 배치해 추모관을 관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도록 할 것"이라고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힐링하우스 개관은 10월 20일 제22회 장성백양단풍축제와 함께 진행됐다. 이날 서울대 명예교수인 박동규 시인의 헌시를 시작으로 하상호 서화 아티스트, 이주은 명창, 이완이 첼리스트, 이수진 현대무용가, 이현정 피아니스트 등이 무대에 올라 힐링하우스 개관을 기념했다.

"월 1만원, 자연환경 살립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후원 회원 200명 확대 목표
10월 22일부터 1달 집중홍보



"반(反)생명 시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청정한 사회로 전환하려는 불교환경연대는 1달 간 정기후원 회원배가캠페인을 집중 시행합니다. 월 '1만원'의 후원금은 부처님의 생명존중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며, '1만배' 수행과 같은 지극한 마음의 발로입니다."

불교계 환경운동단체인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신규회원 집중홍보기간으로 삼고, 회원배가 캠페인 '만배의 지극함을 만원의 정성으로'를 전개한다. 유정길 운영위원장〈사진〉은 10월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서 후원 및 가입 동참을 독려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기금모금을 매개로 기존 회원들과 소통하는 한편, 신규회원을 확충하고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270명 이상 신규회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교환경연대의 존재감을 알리고, 기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하자는 취지도 있다.

"현재 이웃종교에 비해 불교계 NGO 단체는 활동분야, 개체 수 등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 내 희망과 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앞으로 다른 단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불교 융성의 기회를 만든다는 사명감을 갖고 환경운동을 펼치겠습니다."

10 · 11월은 NGO단체들의 각종 모금행사가 집중되는 기간이다. 불교환경연대는 별도의 행사 없이 기금모연 캠페인 자체에만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캠페인은 전화 등을 통해 그동안 듣지 못한 기존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부구성원들의 권선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배가캠페인은 기존 회원에 직접 전화로 안내하는 방식과 예비 회원을 대상으로 간접적인 온라인 홍보 방식으로 나뉜다"며 "기 회원은 후원금 5천원 증액 및 신규회원 1명 증원을, 임원은 2만원을 추가후원하고 3명 회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200명을 목표로 전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커피 2잔 가격이 모여 온 생명을 살리는 공덕을 쌓는 일에 쓰일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사찰인 '녹색사찰' 만들기, 4대강을 살리는 나무심기 방생, 사찰을 매개로 한 청소년 환경교육 등 활동을 통해 불교계에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02)720-1654

김지원 기자

"인니 재난피해 복구를"

조계사 · 화계사, 인도네시아 성금 전달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와 화계사(주지 수암)는 10월 16일 인도네시아 지진 · 쓰나미 피해 성금으로 각각 2000만, 1000만원을 (재)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이사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인도네시아 구호 모금사업 시작까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착실히 준비해서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원 기자

원당암 중앙절 천도법회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법사로



해인사 원당암은 10월 17일 중앙절을 맞아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이 법사로 참석한 가운데 경내 원당에서 선망부모 조상영가 합동천도법회를 개최했다. 방장 원각 스님은 "나라는 자가의 주장을 내려놓고 머문 바 없는 큰마음 내어, 너와 내가 없는 본래의 그 마음자리를 찾아 생사의 도리를 깨우쳐 지혜의 복덕을 닦아 가는 삶을 살아가자"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3회 염불정진 수복대회

한국불교법사대학, 청주 청국사서 봉행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은 10월 13일 청주 청국사에서 제3회 염불정진 수복대회를 봉행했다. 재학생을 비롯해 동문 등 200여 명이 참가한 행사에서 지일 스님은 "법사의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염불을 통해 자기 본성을 찾고, 섭화중생의 법력훈습을 증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108 조사에게 올린 茶 공양

해운정사, 11월 1일 제4회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

깨달음의 법이 전해내려 오는 것을 감사하며 부처님과 108명의 조사 스님에게 차를 올리는 다례재가 봉행된다.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오는 11월 1일 오전 11시 '제4회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佛祖心印傳燈茶禮大齋)'를 경내 불심인조사전 앞에서 봉행한다.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는 2,600년 전 석가모니에서 가섭존자에게 전해져 인도, 중국, 한국을 거치면서 오늘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불조(佛祖)의 심인법(心印法)을 계승한 108명의 적전(嫡傳) 방전(傍傳) 조사(祖師)들에게 헌다공양을 올리는 행사다. 다례재는 2015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해마다 음력 9월 24일에 열리고 있다. 올해는 특히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 1,500여 명을 초청해 한국, 중국, 일본, 서양의 차 문화도 선보인다. 이어 김성녀 국악인의 축하공연과 점심공양, 선물증정 등이 어우러져 흥겨운 시민축제 한마당도 펼쳐진다.

한편, 다례재 행사에 맞춰 해운정사에서는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2박3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참선하는 용맹정진도 진행되며 회향과 함께 다례재를 시작한다. 용맹정진 동참 희망자는 해운정사 종무소에 접수, 참여 가능하다. 참가비는 스님은 무료, 일반 불자는 6만원이다. 해운정사는 "현재 해운정사에 주석하고 있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108 조사 심인법의 법맥을 잇는 제79대 적손이며, 한국에 임제종의 한 맥이 살아남아 내려오고 있다. 불자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긍이다"며 "다례재는 불조의 은혜를 기리고 성불을 발원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며 관심을 독려했다. (051)746-2256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 길러내는 바다 같은 도량"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대웅전 준공법회 봉행

통영=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 · 법 · 승!" 대중의 소리에 맞춰 대웅전을 마주선 내빈들은 현판에 묶여 있는 오색끈을 잡아 당겼다. 금빛으로 적힌 '대웅전' 현판이 드러났고 참여한 사부대중은 박수치며 함께 축하했다. 푸르른 바다 앞에 위치한 통영,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은 수많은 생명을 길러내는 바다처럼 모든 생명들이 깨어나 더불어 자유인이 되는 불법의 도량이 되길 서원했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 이하 통영지원)은 10월 13일 선원 일대에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대웅전 준공법회'를 개최했다.

준공법회는 점안식으로 시작해 예불이 진행됐다. 법회에서 통영지원은 영상을 통해 불사과정을 소개하고, 김기상 건화종합건축 대표와 김흥석 태흥불교미술원 대표에 감사패를 수여해 불사에 손길을 모아준 모든 대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특히 통영지원은 영상을 통해 "대웅전 설계부터 부처님 조성, 우주탑, 후불탱화 옻칠, 단청 등 큰스님의 가르침을 공부한 제자들이 직접 동참했을 뿐 아니라 국 · 내외 지원의 수많은 인연들이 정성스럽게 손길을 보태 이뤘다는 게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축하 및 격려사가 진행됐다. 통영시 사암연합회 회장 종묵 스님은 통영불자 및 스님들을 대표해 축하했으며 한마음선원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은 불사에 동참 노력한 모든 대중을 격려했다.

혜수 스님은 "5년이란 세월동안 모두가 한마음 되어 오로지 큰스님 가르침

감사의 뜻 전하는 법회
5년의 시간, 정성 모여
3000여 사부대중 동참
"자유인 되는 부처님 도량"

받들고 이어나갈 도량을 장엄했다"며 "그동안 불사 가운데 힘든 경계를 마주했을 때 그 경계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정진해 나갔을 지원장 스님과 두 분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격려 및 축사 순서가 끝나자 통영지원은 대행 스님이 통영지원 개원법회 당시 설법한 법문을 상영해 처음 시작 당시 일러준 가르침을 재확인했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은 10월 13일 선원 일대에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대웅전 준공법회'를 개최하고 수많은 생명을 길러내는 바다처럼 모든 생명들이 깨어나 더불어 자유인이 되는 불법의 도량이 되길 서원했다.

법문 후 통영지원 모든 사부대중을 대표해 이옥순 고문은 "더욱 정진하고 노력 할 것을 다짐"했으며 지원장 혜연 스님은 "이 모든 불사가 큰스님의 원력으로 진행됐다"며 "오늘 먼 길 마다 않고 귀한 걸음 해줘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량탑과 큰스님 진영을 모실 계획이 있다. 그 때 도량을 모두 정비해 더욱 따뜻하게 모시도록 하겠다"며 감사했다.

통영지원은 1997년 3월 2일 도천동에 개원했으며 2013년 10월 26일 현재 통영지원이 위치한 광도면에 새로운 대웅전 건립을 위해 첫 삽을 떴다. 2015년 10월 10일 대웅전 상량법회 후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한편, 준공법회에는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혜솔 스님, 통영시 사암연합회 회장 종묵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 국내 지원장 스님들 및 독일지원장 혜진 스님, 태국지원장 혜단 스님, 본원과 지원 대중 스님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했으며 또, 대구지원 어린이와 청년 연합합창단과 안양본원 선법합창단이 참여해 음성공양으로 기쁨을 더해 박수를 받았다.



태고종 자선음악회 "환아에 희망을"

(사)나누우리, 제주 수정사서 환아돕기 음악회

깊어가는 가을밤 음악과 나눔이 함께하는 음악회가 제주도 산사에서 열렸다.

(사)나누우리봉사단이 주최하고 서귀포 수정사(주지 도산)가 주관한 환우돕기 산사음악회는 10월 13일 수정사에서 나누우리 이사장 도산 스님, 승가사원로 지성 스님, 태고종 제주종무원장 지산 스님,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5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펼쳐졌다.

제주도 태고종 연합합창단의 축가로 막을 연 음악회는 나누우리 이사 법륜스님의 사회로 난치병 어린이 환우 10명에게 치료비 1,000만원을 전달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사진〉 치료비 모연에는 수정사 500만원을 비롯해 나누우리가 300만원, 대구분원 보은사가 200만원을 기탁했다.

도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나눔을 펼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이들의 정성과 화합이 중요하다"며 "작은 금액의 후원금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정성으로 완쾌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은 축사를 통해 "어린 환우들에게 기적이 일어나 약사유리광 부처님의 은덕을 받아 뛰어놀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눔음악회서는 대금연주, 트로트, 탭댄스, 색소폰연주, 판소리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사)나누우리는 지구촌 곳곳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한국불교 태고종 스님과 불자들을 중심으로 2010년 3월 창립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장율사 정신, 천년 엮어 새 역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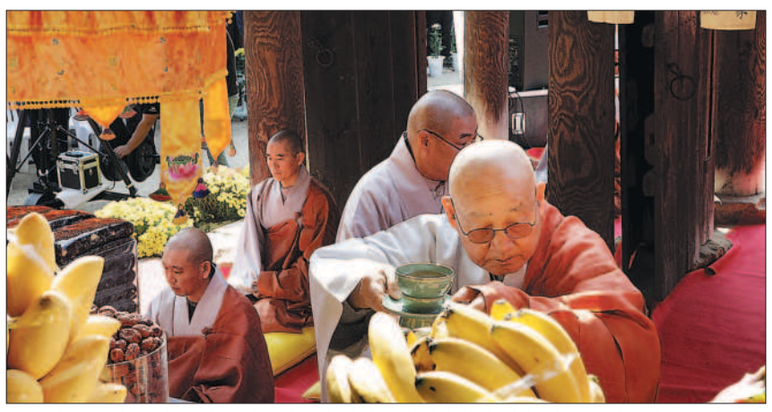
영축총림 통도사 영고재 · 법요식 봉행

"계율을 지키며 하루를 살지언정 파계하고 백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계율을 목숨처럼 여긴 자장율사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 영축총림 통도사가 개산일을 맞아 영고재와 법요식을 봉행하고 개산조의 정신을 되새겼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10월 17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개산조 자장율사의 덕을 기리는 영고재를 봉행했다. 법요식은 설법전에서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는 방장 성파 스님, 주지 영배 스님을 비롯해 2000여 사부대중과 김일권 양산시장, 윤영석 국회의원 등 내빈이 참석했다.

법요식은 △삼귀의 · 반야심경 △육법공양 △헌향 · 헌화 △자장율사 행장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영축장학금 총 5,060만원을 스님 53명에게 수여하고 학업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중



통도사는 10월 17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개산조 자장율사의 덕을 기리는 영고재를 봉행했다. 영고재에서 방장 성파 스님이 차를 올리고 있다.

스님들의 사진전 '나도 작가다' 시상식과 공로패 수여식도 이어졌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특히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통도사를 '과거와 미래를 담고 있는 민족유산'으로 정의하고 '개산일을 새로운 천년을 엮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영배 스님은 "통도사는 역사적인 면에서나 문화적인 면에서 '탁월한 보편가치'를 인정받았으며, 다른 유산들과 구별되는 가치란 '현재성'이라 할 수 있다"면서 "생명력을 잃고 박물관에 박제된 문화유산이 아닌 과거와 미래를 잇는 자리에서 생생히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22일 시작된 영축문화축제가 괘불이운 및 괘불헌공 등으로 막바지 화려함을 더해가고 있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후 처음 마련된 개산문화축제라 그어느 해보다 사찰을 찾는 발길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10월 14일 진행된 괘불이운 및 헌공에서는 사부대중이 산문에서 금강계단 앞까지 줄을 이어 꽃을 뿌리는 장엄의식을 펼쳤다. 장엄의식 마지막에는 통도사 어린이법회 어린이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현재 통도사는 천진불을 주제로 어린왕자展(전)을 진행 중이다. '동심'으로 일반인들에게 천진불의 의미를 설명하는 색다른 기획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가운데 진행된 어린이 꽃 공양은 마지막 까지 절묘하게 주제를 설명하는 모습으로 인정받았다. 영축문화축제는 10월 28일까지 이어진다.

양산=하성미 부산주재기자

9명의 불자의사들이 전하는 부처님 자비광명 속 호스피스 · 완화의료

돌아가는 길 나의 등불

임종을 앞 둔 말기환자와 보호자에게 알기 쉽게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되어 나와 가족의 임종을 어떻게 맞이하는지에 대한 결심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건강한 불자들도 책을 통해 본인의 죽음 생각하고 지혜의 등불을 찾아, 주변과 도반들에게 부처님 자비광명 속 임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내 용◆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
▸환자와 보호자가 불교적으로 점검 할 질문과 답변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릴 질문과 답변

저자 임정애 외 | 가격 14,000원 | 도서출판 여름 ☎ 02.2278.6990



출판기념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2018년 11월 1일 (목)

순서

오후 1시 30분 축하 말씀
오후 2시 – 2시 30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하고 준비 할 사항 — 건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임정애 교수
오후 2시 30분 – 3시 호스피스 · 완화의료 왜 필요한가? — 동대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달용 교수
오후 3시 – 3시 30분 돌아가는 길 나의 등불에서 본 호스피스 · 완화의료 — 동대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도연 교수
오후 3시 30분 – 4시 불교적 관점에서 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이해 — 동대일산병원 신장내과 신성준 교수

강의료와 책은 1만원입니다. 저자들의 생생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4 주년을 축하합니다

신비령산 소원천지탑
음이온 명상치유 선도량

마이산탑사

회 주 혜명스님
주 지 진성스님

총 무 정해스님
교 무 보문스님
기 획 정원스님

봉 사
연탄나눔 봉사
갑룡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진안군 어르신 생신잔치 봉사
전주교도소 불교반 특별법회
사랑의 백미나눔
대구분원 혜인정사 색소폰 봉사밴드
대구분원 혜인정사 연꽃봉사단
마이산탑사 색소폰 봉사밴드
마이산탑사 나누우리 봉사단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367 ☎ 063)433-0012 www.maisantapsa.co.kr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2018@naver.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믿음으로 거센 흐름을 건너고 근면으로 넓은 바다를 건너며, 정진으로 고통을 벗어나고 지혜로써 청정을 이룬다.

〈숫타니파타〉



관상(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모집안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불교음식원 동업할 분

스님(DHARMA)이 뜻이 있어 **음식원을 개원**하고자 함에 **동참(동업)할 불교인** (비구, 비구니)을 모집합니다

문의 010-5301-4949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책-검색★

①.천기누설운(運비밀공개)
②.종교의본질(최상기도법)
③.대박재테크운(運재테크)
④.천기소설예언자(삶인도)
⑤.손 도 사 (6신통 大도사)
책이름검색, 1권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신을 움직이게 한다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율곡 범음 대학

(광주전남 범음범패)

의식교육 학인 모집

- 대상 : 스님, 법사, 보살 가능, 사찰행사 함께 하실 분

초급 · 중급반	상 급 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6시

광주무형문화제 제 23호 범음기능보유자
문의 010-6241-8499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육임선봉문, 귀장술 배우실 분

누구나 도인이 될 수 있다
육임 단기간 3개월 코스로
성공의 기회
정확한 점괘를 뽑을 수 있다
신을받아도 상담이 안되시는분
절 포교에 힘드신 스님
모두 연락주세요
학장님 010-8973-7994
무 산 010-9150-0029

구병신통술로 병을 치유하는 **육관도인**

고도의 신통력으로
복마를 퇴마하여 병을
치유합니다. 의술로
치료가 안되는 병은
복마로 인한 신병입니다.
육관도인010-6357-5152

불교용품 고가매입 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천기누설운

"엄청난 책내용" 천기누설 운 검색!!
토굴기도실와
운명점술학박사1호 손도사왕
책제목 검색 후 인터넷 구입
문의010-5105-5000

(사)한국불교 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수리 비술
- 수리의 비밀과 의미를 알려 드립니다.
- 손 하나만으로도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전 후의 운세를 예측할 수 있는 운세 작법
- 명리나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010-7344-1881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0,000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4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남을 죽이면 자기를 죽이는 자를 만나고, 남을 이기면 자기를 이기는 자를 만난다.

〈잡아함경〉



사찰안내(전세)
- 위치: 부산 구서동(지하철 3분)
- 새로 개금불사 및 법당 모두 수리
- 오르막 없는 평지. 주차 넉넉함
- 하천부지 100평(산신각 포함)
- 시설비, 권리금 한푼도 없음
- 전세, 월세 조건 맞추어 드림

010-7121-3030
010-3574-33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 찰 안 내
- 위치: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 대지:254평, 하천부지330평 총 58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산신각,관음전, 공양간, 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010-2041-818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송도해수욕장 인근)
- 대지 : 약 130평
- 건물 : 한옥 2동 (법당 및 공양간 약 22평, 주지실 7평 등)
- 가액 : 보증금 일천오백만원, 월50만원/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262-1005

사찰안내(전세)
- 위치: 부산시 동구 범일동 만리산
- 대지: 90평~ 여분 30평
- 법당 2층 30평, 요사채 방 5개, 화장실(실내,실외), 산신 용왕당 있음, 마당, 화단 등등
- 가액 : 4억 5천만원

010-3580-5734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북구. 신협, 농협 중간. 아파트 밀집
- 상가건물(168㎡) 2층 단독건물(옥상포함)
- 법당: 삼존불, 지장, 신중, 소불200불
- 친견실, 편백황토방, 명상수련
- 현)법회중 ● (도량내)주차시설(영업)
- 보증금 2천, 시설비 4천8백(조정가능)

※ 집세는{無} 포교원 함께 운영하실 스님 연락바랍니다!

스님(직)010-4535-2568

광진사찰안내
◎ 위치 : 수도권 ◎ 위치 : 서울 북한산
◎ 부지 : 150평 ◎ 부지 : 100평 사용
◎ 법당 : 40평 ◎ 인법당 : 약 60평
◎ 요사 : 70평 ◎ 산속, 무허가 건물
◎ 양도가 : 11억 3천 ◎ 양도가 : 5천 5백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 (불상,불화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 대지 : 53평(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 연건평 : 123.38평
- 지층 : 30.8평(근린생활시설)
- 1층 : 30.8평(근린생활시설)
- 2층 : 30.8평(요사채)
- 3층 : 30.8평(법당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여수 시내에 위치하여 포교원 운영하기 아주 좋은 곳으로 운영하실 분 찾습니다

- 양도가:4억 ● 공시지가:3억 8천

010-3841-1748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전농성동 5거리) 경열로 45번길 10
- 2층 건물(1~2층) 전체 약 30평
- 법당, 방5개, 화장실 1,2층 각각 창고
- 가액: 보증금 5백만원(월세 3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급한인연으로 몸만오시면 됨

010-3102-510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 10평
- 몽땅 : 1억 1천만원

010-8861-1785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시 동작구 사당 4동 4층 건물 중 2층. 27평
- 법당1, 방1, 실내 화장실1, 주방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없음(호불탱화1, 신중탱화1, 산신탱화1)
- 가스보일러 설치
- 7호선 남성역 1번 출구 5분 거리

010-9728-0788

토 굴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603번지)
- 대지 660평. 남향
- 요사체 포함 11동. 무건물
- 법당 25평. 2017년 건축
- 1000평.약수물.각종 유실수 다량
- 4륜구동 차량 진입가능. 주차장
- 가액 3억 5천

010-9203-1165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방2, 화장실2, 법당, 난방 완비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1,900만원(가격 절충)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서울, 수도권 사찰
- 대지: 123평, 대웅전 목조단청
- 요사채: 80평부지 건물등재
- 종무소, 3층석탑, 향나무등
- 아름다운 전통사찰

010-5466-3321

펜션 별장 토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일월산 자락에 아담한 곳
- 현대식 목재건물
-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 앞마당 계곡, 법당 부지 있음
- 가액 : 2억 4천만원
- 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 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2억3천만원

문의처 010-2607-711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 대지 108평, 건평 104평 1층 요사채, 2층 법당 각 52평
- 서울 시내 공원 입구 가족테마공원 개발 서울시 인가득 상태
- 가액 : 시설 포함 14억 5천

010-3124-3952

사 찰 안 내
- 위치:전남 해남읍 신안리 소재
- 땅 530평 개인 소유
- 산중턱 위치, 전망 좋음
- 목조법당 13평, 요사채 3동 30여평, 산신각 1평 차량 진입함
- 가액 : 전화상담
- 즉시 법회 가능, 양도/전세가능

전화 : 010-9940-0037

포교원안내
- 위치: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신원시장 부근 2층
- 지하철2호선 신림역 5분거리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10만원(부가세 포함), 시설비1300만원
- 약 25평

02-856-15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소재지
- 법당 : 아미타불 외 (삼존불) 호신불(관음지장)-400위, 십대대왕
- 마당 : 삼층석탑, 포대화상, 관음석불
- 법회 즉시 가능함
- 도시가스 완비
- 급 양도 ● 가액 : 전화상담

010-3828-9898

사 찰 안 내
- 위치: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 대지200평,군임대부지 약300평, 법당 10평,산신각 2평,용왕각 6평, 요사채 20평,황토방 5평,창고 약5평
- 외불미륵불, 지장보살
- 가액 : 2억. 절충가능
- 레미콘 차량 진입 가능한 포장도로

010-3757-3699

사찰명당터 안내
- 위치: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산92-1
- 26,985㎡/8,171평 ● 전체 15억
- 분할: 8m 도로 인접 남쪽 땅. 3,000평 이상. 9억 좌.가산지구 전원마을/우.가산1리 마을/전.최고의 전망/후.용바위능선
- 절, 주거지 최고의 명당
- 개발시 최소 2배 이상 이익 보장

010-4148-636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시장공영주차장 입구 시내버스 승강장
- 장소 최적, 3층 건물 중 2층
- 삼존불. 소불 108
- 주방. 욕실. 방 1. 창고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 시설비600만원, 절충가
- 보살님.법사님.자리로도 명당

010-7583-1235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385-17 중심지
- 대지:100평,건평 70평,1층 전체
- 건물: 대웅전, 삼존불, 법당 외 방3, 화장실3, 도시가스
- 보증금1,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1,200만원(상담조절가능)
- 대구 최고 중심지. 단독 1층 전체

010-6674-1356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사하구 전망좋은 사찰 ● 대지: 350평
- 대웅전,삼성각,요사채2동 (1동은 3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13억 5천만원

010-3269-1023

포교원 안내
- 부산시 금정구 서1동 미로시장 부근
- 평수 (약)45평, 방2개, 친견실1개, 주방
- 부처님, 삼존불, 칠성, 산신 및 지장보살
- (전)1천만원, 시설비 1천만원,
- 월 25만원 ● 집기류 일체

011-874-1593

이박사 공인사무실 이전
(www.이박사.com)
- 그동안 서울 사무실 방문 스님 감사드립니다.
- 사찰전문 이박사 원주시로 이전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 비밀 보장.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48.성일아파트상가108호(대표:이규철)

010-7347-1010 (직통:이박사손전화)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길 15-2 지리산750고지
- 빈집 방3개, 응접실1개 부엌 1개, 욕실 1개
- 지리산 인연 있으면 함께 합시다
- 가액: 보증금 100만, 월세 30만(공과금 포함)

011-759-0183

사 찰 안 내
- 법당, 요사체, 토지 3,971.1 ㎡ / 1,201.26평
- 전북 군산의 조용하고 불심을 다스리기 좋은 최적의 도량
- 인가도 멀지않아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주변이 둘레길 산책로가 형성되어 접근성이 좋음

010-5870-3358
063)451-250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부산진구
- 면적: 부지 약 600m², 건물 약 80m²
- 법당, 삼성각, 방2, 부엌
- 마을 가깝고, 포장도로 주차가능
- 기도하기 좋은 곳
- 가액: 1억 8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7(연산동, 호성빌딩)

010-5346-4138
051-861-2233

토굴하실 분
- 위치 : 경북 청도 금천면
- 대지 : 110평
- 건평 : 20평(거실, 방 2) 창고, 기름보일러 설치
- 판넬구조, 공기좋음, 토굴로 사용하실 스님수행공간 최적임
- 주변유실수 많음(살구,감)
- 가액 : 8천만원

010-8517-4130

사 찰 안 내
- 위치: 용인터미널 10분거리. 버스, 빌라, 주택많음. 아파트 단지 건설중
- 대지 456m². 138평. 목조 5칸. 법당3칸. 방2개. 식당 큰방 1개. 창고
- 인연되면 몸만 와도 됨(비구니 최적도량)
- 매일 새벽 4시 도량석,종성 문제없음
- 30년 이상된 고찰. 생활불편없음
- 주변 고속도로 완공예정. 무한 발전 지역
- 가액 : 4억 5천

010-3565-0087

포교원안내
- 위치 : 영등포구 신길동 1, 5호선 전철 5분
- 법당 20평, 2층 40평,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1500만원,월세7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3167-1774
02-848-4774

사찰 터 (대지) 안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서종면
- 중앙 고속도로 IC 확정
- 친환경 황토 통나무 건물
- 대지 333평,실평수 400평,건평142평, 실평수 200평
- 팬션, 요양원, 사암, 임대업 적합
- 현재 보증금 3억3천,월1백70만원 수입
- 초특급 급매 13억(조절가능)

010-9237-8599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칠순, 돌잔치, 명절 등 각종 행사, 가족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분열 넘어 화합” 두 까르마파 만남

1990년대 티베트 까규종단 17대 까르마파 대립
30년여 만에 첫 공동성명… 외신들도 집중 조명

박정현 객원기자

달라이라마에 이어 티베트불교의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는 까르마파. 까르마파는 티베트불교에서 까르마 까규종단의 수장을 맡는다. 그러나 전대인 16대 까르마파에 이어 환생자 문제가 일어나 종단이 분열, 종단 내에 두 명의 까르마파가 존재하게 됐다.

지난 10월 11일 프랑스 파리의 교외에서 두 까르마파가 사상 처음으로 회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놀라운 소식을 ‘트리 사이클’ ‘부디스트 도어’ 등의 외신들이 특별 보도했다.

1981년, 16대 까르마파 ‘랑쥥 릭빼 도르제’의 입적 후 그 환생자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대립했다. 1992년 달라이라마와 까르마 까규 내 64명의 고승들은 동부 티베트에서 태어난 ‘오갠 틴래 도르제’를 환생자로 인정한 반면, 당시 종단에서 두 번째 서열이었던 샤마르 린포체는 라사에서 태어난 ‘틴래 타얘 도르제’가 환생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중국정부 역시 오갠 틴래 도르제를 17대 까르마파로 인정, 1992년에 라사의 주석사원인 추르푸 사원에서 착좌식이 봉행됐다. 그러나 샤마르 린포체는 이에 불복해 틴래 타얘 도르제를 인도로 데려와 델리의 까르마파 불교연구소에서 착좌식을 봉행했다. 두 까르마파가 등장하면서 종단이 분열된 것이다.

두 까르마파는 이번 회동을 통해 “서로에 대해 개인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만남을 몇 년간 바라왔고, 이것이 드디어 성사됐다”며 이번 만남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 오랜 기간 준비를 통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종단 내 의견 불일치로 인해
17대 까르마파 2명 탄생돼
오랜 시간 갈등구조 이어져
첫 회동서 ‘화합’ 거듭 강조

두 사람은 까르마 까규의 법맥이 불행히 분열돼 온 것을 어떻게 치유할지에 대해 논의를 거쳤고, 이를 위해서 “의무, 책임 그 무엇이든지 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프랑스에서 첫 회동을 가진 두 까르마파. 틴래 타얘 도르제(좌)와 오갠 틴래 도르제(우). 사진출처=트리 사이클

이들은 “미래의 까르마 까규법맥, 나아가 티베트불교계와 일체중생의 이익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공동성명에서는 “모든 까르마 까규에 속한 승가가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 법맥을 강화하고 지키는 데 함께해 줄 것”을 요청하며 분열을 넘어 화합과 단결의 모습을 당부했다. 또한 목표로는 “지혜와 자비의 법맥인 우리의 법맥을 조화로이 재정립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 공동성명은 두 까르마파의 친필서명과 함께 각자의 공식 웹사이트에 티베트어, 영어, 중국어 버전으로 공표됐다. 발표 직후 성명 내용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해외 불교계에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티베트불교를 가르치는 유명강사 저스틴 본 쥬도는 “까르마파들의 마음과 시방 부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모두 하나”라며 “꿈이 이루어졌다”고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16대 까르마파의 개인비서였던 아치 체펠도 “수많은 장애를 넘어설 문이 열렸다. 두 분의 결합은 까르마 까규를 넘어 불법을 증장하는 데 큰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번 회동을 통해 앞으로 두 까르마파가 어떠한 공동 활동을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얀마 불교단체 ‘학살 군부’ 지지

위라투, 로힝야 학살 비판하는
국제사회에 “총 들겠다” 파장

미얀마 극우불교단체 수장인 위라투(Wirathu)가 로힝야족 학살을 자행한 미얀마 군부를 지지하는 관제 시위의 선봉에 섰다. 그는 로힝야족 학살을 비판하는 국제사회에 ‘무력’ 저항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쳐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데일리스타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극우불교단체 및 군부 지지자 수천 명은 10월 14일(현지시간) 양곤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로힝야족 학살 문제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에 반발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미얀마 빈 라덴’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극우불교단체 ‘마 바 타(Ma Ba Tha, 민족종교보호를위한애국연합)’ 대표 위라투가 선두에 섰다. 위라투는 그동안 국내외에 로힝야족 혐오 분위기를 부추기며 반무슬림 정서 확산에 앞장서 불교원로회의의 경고 및 활동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런 그가 1년 만에 이례적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



미얀마 군부 지지 시위에 모습을 드러낸 극우불교단체 수장 위라투. 사진출처=데일리스타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얀마에 오는 날이 내가 총을 손에 드는 날이 될 것”이라면서 군부 지도자들을 국제 법정에 세우려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해 강경한 저항 의지를 내비쳤다.

위라투는 “벵갈리(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을 낮춰 부르는 말)를 로힝야족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는 미얀마의 이슬람화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가짜 소수민족 그룹을 만들어 여러분의 나라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로힝야 학살 책임자 처벌을 막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진실의 편에 선 애국주의자”라고 치켜세웠다.

이날 시위대는 유엔 진상조사단에 의해 로힝야족 학살 책임자로 지목된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의 초상화를 들고 군부에 대한 지지 구호를 외쳤다.

한편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은 지난해 8월 경찰초소 등을 급습했다. 이에 미얀마 군부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 로힝야족 토벌 작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로힝야족이 목숨을 잃는 한편, 70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도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는 미얀마군의 대량학살 및 반인도 범죄에 반발하며 군부 지도자를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는 진상조사단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진상 규명 및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패널 구성을 결의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사법 관할권을 인정,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움직이는 3D 복제품으로 불상 ‘재탄생’

中 원강석굴 · 절강대학교 협동 연구로 성과 내

중국의 원강석굴연구소와 절강대학교 전문가들이 3D 프린트 기술로 제작된 고대 불상의 움직이는 복제품을 만들었다고 3D 관련 소식지 ‘3D프린팅 인더스트리’가 10월 15일 보도했다.

윈강석굴은 중국 산서성 다퉁시 서쪽 20㎞에 위치, 동서 1㎞에 걸쳐 약 40개의 굴이 있는 석굴사원이다. 이 윈강석굴은 막고굴, 룽먼석굴과 함께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삼대불 중의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돼 있다.

재현된 전체 크기의 불상은 길이 14m, 넓이 11m, 높이 9m 크기에 4메트릭톤이 조금 안 되는 무게다. 이는 3D 기술에 의해 제작된 세계에서 가장 큰 움직이는 불상으로 판명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원강석굴에서는 각각 6m, 10m, 6m 크기의 불상 3개가 풍화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명된 후 3D로 제작됐다. 이후 불상은 청도 동부 해안도시에 전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시를 위해 불상들을 이동, 설치하기 위해 무게 · 시간이 많이 들어 복제본을 이동할 수 없었다. 이에 절강대학교 연구팀이 일주일 내에 조립 가능한 3D 버전의 경량



3D 기술로 재현된 원강석굴 불상 모습. 사진출처-3D프린팅인더스트리

조각상을 제작한 것.

해당 연구팀은 이번 제작 과정에서 고정밀 3D 데이터를 수집하고 2mm 내에 오차범위를 유지했다. 이후 적층 가공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약 6개월 안에 불상의 조각들을 인쇄할 수 있었다.

원강석굴연구소 책임자 장쯔오에 따르면, 해당 불상은 전문가의 시험을 통과한 상태다. 향후 연구소의 다른 유물과 함께 전시될 계획이다. 장쯔오는 “우리는 올해 말 전에 미네랄 색소로 불상에 색을 입힐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복제품은 그것의 본래 크기 및 텍스처, 색깔까지 같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절에서 맥주를 만든다고?

日, 사찰경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다양한 이유로 신도들이 떠나는 ‘사찰이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불교계. 지난 10월 9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로, 맥주를 제조하는 사찰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오모리현은 인구가 적고 지리적으로 외진 까닭에 사찰이탈 현상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사찰경영이 어려워진 사찰들이 속출하면서, 절에서 음악라이브나 요가교실 등의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중 오마쵸(大間町)에 소재한 고찰 소토쿠지(1625년 개산)에서 맥주를 만들어 화제다. 소토쿠지의 주지 사사키 신묘(67) 스님은 “처음에는 경내에 솟아나는 샘을 길어 생수로 상품화해 판매했다. 지역에선 예로부터 ‘장수하는 약수’로 유명했지만, 수지가 맞지 않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신묘 스님은 여러 생각 끝에 맥주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절의 물이 좋다는 것과 서양 수도원들이 술을 빚었다는 것에서 착안했다. 2002년 주조면허를 취득, 경내에 작은 공방을 만들었다. 맥



맥주제조설비를 살피는 신묘 스님. 사진출처=니혼게이자이 신문

주탱크의 설치와 발효도 등, 모두 독자 연구를 거듭하여 맥주를 만들었다. 맥주의 이름은 ‘만 · 무사시즈쿠’. 현재 발포의 종류에 따라 6종의 맥주가 출시됐다. 지난 3일엔 신상품으로 와인도 발매했다.

신묘 스님은 “불교에서 술은 어긋난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문이 나면서 맥주를 목적으로 절에 오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맥주는 경내의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앉아서 마실 수 있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한 여행자는 “물이 좋아서 맥주 맛이 각별하다. 지금은 절에서만 팔지만, 일반 가게에도 들어오면 좋겠다”며 감상을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흰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2018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
종교예식
제4회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법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남겨진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한편, 고통 속에 방황하는 현대인의 삶을 위로하는 법회
• 일 시 : 11월 10일 [토] 14:00~16:00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성림사 [마포구 성산동 65-3]
• 법 주 : 광용스님 [성림사 회주]
• 내 용 : 영가 위로 법문, 축원 기도, 등[燈] 공양 의식
• 참가대상 : 삶의 고통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고 싶은 누구나
• 참 가 비 : 무료
• 접수 및 문의 : 02.737.7378
http://www.kbcd.org
※ 기도와 축원을 위해 사전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 최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경계 넘어 空 알아차려야 바른 명상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4. 자비경선(慈悲鏡禪)
5) 수미산 걷기명상



지난 연재 끝부분에서 수미산 성지순례 걷기선 명상의 후기를 소개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의 후기를 추가한다. 앞서 소개한 명상법을 실천하며 자신이 느낀 점과 비슷한지 비교해보자.

7월 8일 수미산 둘째 날

아침 일출을 보고 늦게 출발하려다 몸 상태에 자신이 없어 일행들과 출발하였다. 어제처럼 보이는 풍광과 한 공간을 이루는 전체보기가 잘 되니 호흡도 편안하고 몸이 가벼웠다. 점점 사람들과 거리가 생겨서 혼자서 걸었다. 집중이 잘 되니 저절로 걷는 것 같았다. 준비한 것을 티베트 순례자들에게 나누어주며 가는데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햇살이 없으니 조금 추웠다. 손가락 끝이 점점 오그라들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게다가 물을 한 모금 마신 것이 통증을 유발했다. 토할 것처럼 메스꺼움이 올라온다. 잠시 서서 자비수관을 하였다. 위통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손가락은 펴지지 않는다. 계속 감각을 관찰하며 자비손으로 쓰다듬으며 걸었다. 햇살이 비추기를 바라며 의식이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는 전체보기에 집중하며 걷자 손도 편안해지고 위통도 사라졌다.

쉬엄쉬엄 걸으며 여러 사람들을 보았다. 될마고개를 넘을 때 힘들어 하는 모습이 보였다.

수미산을 넘으며 서서 관상공양을 올렸다. 일체중생의 고통이 덜하여지기를 발원하고 돌아가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배려하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나누며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평소에 하는 서원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부처님과 불보살님들 그리고 신중님들이 수미산을 둘러싸며 우주의 한 모습을 보여 주셨다. 올바르게 수행하여야 하는 이유를 보여 주는 듯 했다. 금빛으로 장엄한 세계가 마치 경전을 보는 듯 했다.

보이고 들리는 풍광과 한 공간 속에서 발바닥 감각 알아차림 하면서 걸으니 마치 등 뒤에서 누군가 밀어주는 듯 힘들지 않게 넘었다. 서너 번 흙길에 미끄러지자 티베트 사람들이 손을 잡아주며 일으켜 주면서 함께 웃었다. 그 미소가 관세음보살이다. 정해진 길이 없어서 여러 갈래로 내려오다 보니 알아차림해도 흙길에 미끄러진다. 공양하는 텐트 있는 곳까지 수월하게 의식을 놓치지 않고 걸었다.

잠시 쉬고 숙소 있는 곳까지 다시 걸었다. 오는 도중 유목민인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서 가방에 있던 간식을 주려고 하자 곰빠(사원)에 올리라고 하였다. 이들의 신심과 일상생활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전날 잠을 못자서 쉬고 있으니 다른 순례자들이 같이 가자고 한다. 힘들어서 쉬는 줄 알고 도움을 주려고 한다. 순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다. 구별하지 않는다. 모두에게 반갑게 인사한다, 해맑게 웃는 모습으로….

들꽃을 따라, 시냇가를 따라, 순례자들과 함께 걸으며 스스로 생각해도 알아차림이 너무 잘 되어 신기할 정도였다. 그래서 수미산을 넘으며 힘들다는 생각이 없었다. 모든 것은 상호의존하며 독립된 존재가 아님을 알아차림 한다. 발바닥 감각은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고, 지나온 순례 길은 되돌아오지 않으며 오지 않아 없는 미래의 순례 길도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 이 순간도 변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차림하고, 사유하며 걸었다. 숙소로 오는 길은 몸이 가벼워 날듯이 왔다. 여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였다. 심장 안 좋은 사람 맞느냐고 했다. 너무 잘 걷는다고.

7월 9일 수미산 셋째 날

밀라레빠의 동굴 수행터인 쥬들북 사원을 둘러보고 다르첸으로 향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손으로 받쳐서 무너지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 군데에 밀라레빠의 수행처가 있는데 신출귀몰한 그는 어디로 갔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수행을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모두 앉아서 좌선을 했다. 수미산 주변이 점점 넓어져 끝없이 펼쳐지고 허공과 하나되어 있다. 들뜸이나 산만함이 없어 마음이 누그러진 탓인지 편안하다.

일체중생을 위해 오체투지를 하며 가는 순례자들을 보고 나를 돌아본다. 저들의 순수함에,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자들에게 감사의 차를 올렸다. 수미산에 오기 전에 '영혼의 순례길'이란 영화가 상영되어 보았다. 한 마을 사람들이 포텔라궁을 거쳐 수미산까지 오체투지를 하면서 순례하는 여정을 영화로 만든 것이다. 어린이도 임산부도 있어서 순례길에 아이를 낳고 오체투지를 이어가는 모습이 오늘 만난 순례자들을 보자 떠올랐다. 평지를 걸어서 덜 힘들기 때문에 의식 집중이 흐트러질 줄 알았는데 오늘도 잘 되었다.

명상에서 사유는 중요한 수단
잊고 있던 진실 드러나게 해
경선 중 밖으로 이끌리는 마음
계속 알아차리며 관찰해나가야

들꽃을 보고, 변하는 것에 대한 받아들임이 달라져서일까 황량한 사막 같은 주변을 보면서 연민심이 생겼다.

저녁에 스님과 순례대중과 함께 수미산 관상순례를 하였다.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의 전체가 한 화면에 담기듯 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존재하지 않으며 보이는 것도 실재하는 것이 아닌 상호의존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사유했다.

〈금강경〉에 나오는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이란 사구게가 떠올랐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어리석음을 일깨워줬다. 형상은 존재하지 않는데 붙들고 있다.

사유의 힘

소나무에 기대어 관계성 통찰 사유하기에서 삼라만상 우주까지 하나로 꿰뚫어 보는 것은 바로 사유의 힘이다. 사유는 대상을 겨냥하는 뜻이 있고 대상을 분석하여 해체시키고 진실을 드러낸다. 특히 모양도 색깔도 없는 것 즉,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공, 원각 등 존재의 궁극적인 것을 알게 한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힘도 있다. 그 궁극적인 것은 바로 모든 존재, 모든 것의 본성인 공적한 마음이다. 원각이라고도 하고 보리 법계라고도 한다.

그래서 걷기명상에서 사유는 매우 중요한 명상 수단이다. 2012년에도 수미산 성지순례 걷기선 명상을 할 때 60대의 대덕월 법우님 한 분이 5600m 고지인 될마 고개를 넘을 때 한두 걸음을 걷고 쉴 정도로 숨이 차고 몸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원각경〉 보안보살장의 적멸차제 5단계를 사유했다.

몸은 흙 · 물 · 불 · 바람의 4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몸의 4대가 흩어지면 몸이 소멸하고 몸이 소멸하면 몸 기운에 의해 형성된 마음이 소멸하고 마음이 소멸하면 마음에 의해 나타난 경계가 소멸하고 소멸했다는 미세한 생각이 소멸하면 더 이상 소멸할 것이 없어 비환불멸(非幻不滅)이다. 즉 '환이 아닌 것은 소멸하지 않는 원각이다'라고 반복 사유한다.

몸의 구성요소가 실체가 없어 공함에 이르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몸의 아픔도 사라지고 가벼워지면서 가쁜 호흡이 부드러워졌다. 몸이 가벼워 쉽게 고지의 될마 고개를 넘어 두 번째 캠프에 도착하여 대중들에게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환희심을 내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다.

의식의 한 공간 이루기

걷기선 명상의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했지만 자비경선 명상은 경(鏡)-환(幻)-공(空)-화(華)의 네 단계가 있고 40여 가지의 명상방법이 있다. 여기서 산행할 때의 걷기선 명상 하나를 이야기하고 다선일미 차명상으로 넘어갈까한다.

산행할 때 다리가 아플 때는 마음의 손(자비손)으로 쓰다듬어주면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가 가벼워진다. 숨이 가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에도 심장 부위를 마음의 손으로 쓰다듬어 주면 몸 상태가 진정된다.

시선을 똑바로 앞을 향해 두고 걸으면서 항상 온몸의 움직임을 눈앞의 사물 보듯이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한다. 온몸의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발의 움직임부터 살펴본다. 온몸이 한눈에 들어오면 움직임을 보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부위가 쉽게 관찰되기도 한다. 그러면 그 부위의 힘을 뺄 수 있다. 그것이 잘 안 되면 그 부위에 대해 부드러운 감정을 가지고 주시하여 부드럽게 만들거나 부드러운 마음의 손으로 쓰다듬어 주면 된다.

경선 중에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새로운 풍경을 보면 몸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마음이 밖으로 끌리게 되는데, 끌리는 마음은 움직이는 마음이다. 그때는 끌리는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또 주시하던 마음에 사물이 들어오면 곧바로 알아차리고 생각이 들어와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경지가 되면 몸과 마음의 움직임, 의도, 감각, 관찰자 등이 모두 관찰 대상이 된다.

걸어가면서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앞의 사물을 보는 것과 온몸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의식의 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안과 밖의 경계가 하나가 되어 경계선이 없어진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몸의 움직임 속에 신체의 비어 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몸의 움직임 속에 신체의 형상이 텅 빔을 본다면 주시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여기서 빨리 걷거나 천천히 걸으면서 이 경계가 흐트러지는지 아니면 움직임 속에서도 거울같이 비춰보는 마음이 변함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걷기선 수행[경선]의 중요한 부분이다.

몸의 움직임 주시하면
마음 비워지나니
허공 속에 별빛만 가득하듯
마음엔 무상(無常)만 가득하네.

빈 마음 유지하려면
똑같은 형상 없는 그 자리가
빈틈이니
우주를 넣고도 넉넉하다네.
빈 마음으로 무상을 다시 보라.
어느 곳에도 머물 수 없나니
무주(無住)에 머물면
오직 마음뿐임을 알게 되고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인다네.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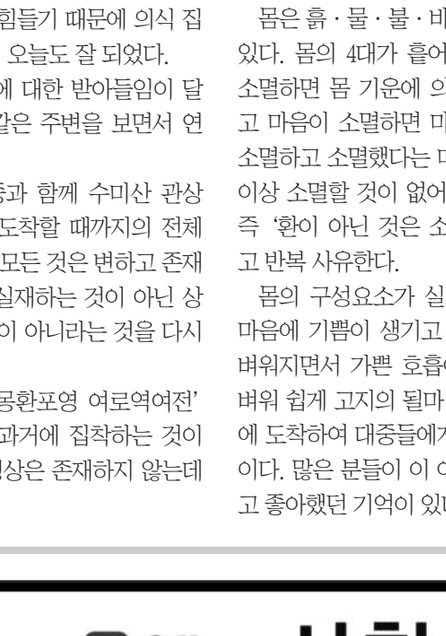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GmSoft GM SOFT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위패 출력
사주팔자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대행 스님

울고 짜지 말고 울 힘이 있으면 생각을 잘 하는 힘을 내라

진정한 믿음의 공덕에 대해서

질문 요즘 저는 둘 아닌 도리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들어갈 때는 참 편한데요. '둘이 아니잖아.' 이랬을 때에는 뭔가 걸리고 그렇게 편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해 본 결과 '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는데요, 진정한 믿음의 공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잖아.' 하는 거는 진짜로 믿으니까 그렇죠? 또 '둘이 아니잖아.' 하는 거는, 즉 말하자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둘이 아니잖아.' 이 소리가 나오죠.

유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대대로 유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백 년을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수천 년을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 만에 그 유전을 해체시킬 수 있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입니다.

어저께가 과거입니다. 어저께가 과거고, 아까 한 시간 전이 과거니까, 우리가 과거다 미래다 또는 현실이다 할 게 없이 그대로 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얼른 쉽게 말해서 내가 목이 말라서 물 한 컵을 먹는다 해도 내가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목이 말라서 달라니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아니죠.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근본에서만이 자기의 모든 걸 리드해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처음에는 '저건 형상이지.' 이렇게 따지시지만 '일체제불의 마음'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 보신다면, 해 보신다면 아실 거예요. '내가 몸이 몽땅 공해서 비었다면 저 부처님과 같다. 부처님과 같으면 모든 게 갖추어져 있다. 모든 게 갖추어져 있으니 못 볼 게 없고 못 할 게 없고 못 건질 게 없고, 모든 게 다 그렇다.' 이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이 마음에…, 내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다거나 또는 말을 잘못한다거나 이런 원인도 눈 하나가 잘못 보기 때문에 잘못 말을 하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에 그냥 공체로 봐라. 공식으로 봐라. 아무리 강도라도 강도가 아닌 사람이 강도를 볼 때는 강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강도면 강도로 봅니다. 급하게 뛰어가는 걸 봐도 강도로 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이 곱고 텅 빈 사람은 그대로, 악이든지 선이든지 그걸 가리지 않고 불쾌하게 하질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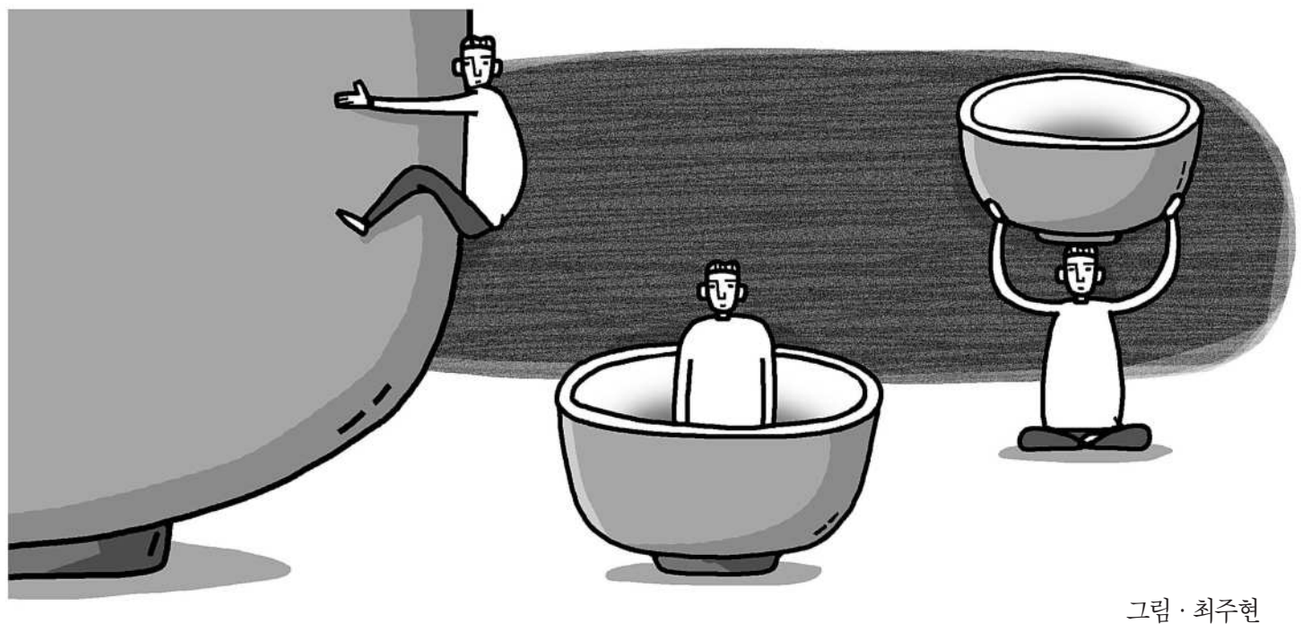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사찰마다 스님네들이 노비를 얻으러 옵니다. 그런데 얻으러 오니까 싫죠. 얻으러 오니까 싫은데 그게 얻으러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전자에 빚을 졌기 때문에 주는 거다. 갚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쉽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을 인의롭게, 섭섭지 않게 잘한다면 그건 모두 보살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보살 케이스에 들질 못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잘하기만 하겠습니까만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거기다 놓고 관해라. 거기다 놔 버려라. 네가 공해서 없다면 모든 게 없는 걸 증명할 수 있다. 함이 없이 하는 거니까 네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배를 탄 것도 아니고 배를 안 탄 것도 아니고, 내가 과거에 어머니 배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것도 없다. 이게 모두가 끊어진 상태죠. 예를 들어서 "배움이 끊어진 사람은 한가하기 짝이 없는데, 망상도 버리지 않고 선한 것도 구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선한 것도 구하지 않는다. 악도 버리지 않는다." 이래도 그 가운데서 자기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런 걸 다 아니까. 저절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둘이 아니게 되죠. 하다 못해 날아다니는 새 하나, 벌레 하나라도 다 둘이 아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급하면 새들도 와서 일러 주고, 이런 수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모두,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렇고 짐승들도 직감적으로 다 잘 아는데 사람들은 요기서 요 한 발짝 사이도 몰라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모두?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기가 맞으면 죽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가는 새도 있고, 미리 탈출하는 짐승도 있지만 사람은 그걸 모르고 죽는다 이거죠. 그것들은 알고도 힘에 겨워서 죽는데, 사람은 피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냥 모르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알게끔 다 해 놨는데 왜 모르고 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고등 동물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찢고 찢기면서, 먹고 먹히면서 살아온 것이 얼맙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데 나는 지금 뭐가 급하냐. 이 주머니 속에서 내내 수없는 나날을 그냥 그렇게 살겠느냐, 탕탕 털고, 탁탁 털고 나서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삶이 고의 연속일까요?

질문 사람답게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고의 연속인 것만 같습니다. 저 혼자만의 삶이면 그래도 견뎌 내겠는데 이제는 자식들에게까지 저희의 가난과 시련을 그대로 물려주게 될 것만 같아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 이렇게 삶이 고의 연속일까요? 차라리 인간이 아니었더라면 생존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비루한 생각까지 듭니다.

답변 우리 인간만 이렇게 생존경쟁에 허덕이면서 사는 게 아니고…, 고(苦)를 고라고 생각한다면 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苦)·집(集)·멸(滅)·도(道) 사제법(四諦法)에 첫마디에 고가 있죠? 고·집·멸·도 이렇게요. 그런데 고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그냥 사제법이 몰락 타파가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고라는 거는 없다.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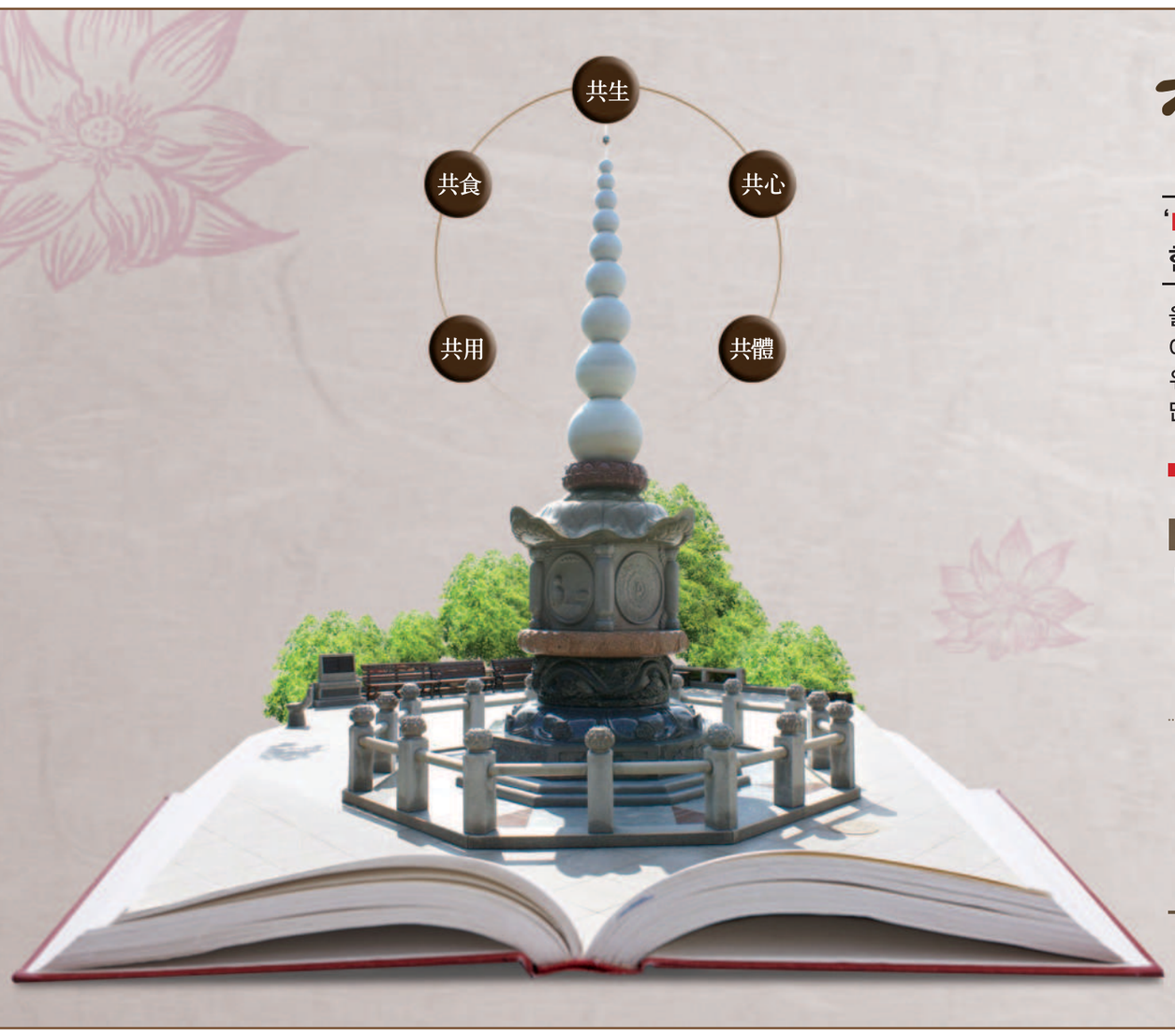
여러분이 인간 되기 어려운 것도 막론하고 인간으로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데 고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인간 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이렇게 인간까지 왔는데 말입니다. 인간으로 나왔지만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해서, 타파하려고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그 습덩어리를 그냥 몰락 놔 버리라 합니다. 놔 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부(父)는 자기 자(子)를 망치로다 모가 난 거를 자꾸 두드리면서 길 없는 길을 걷고 있는데, 손 없는 손으로 다듬어 가면서 걷고 있는데 그게 고라고요? 그게 고라고 생각한다면 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인간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가 인간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정법을 수행하면서 마음을 닦아 가면서 계발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왜 고라고 생각합니까?

밥을 한 끼니 두 끼니 좀 굶으면 어때요, 글쎄. 아니, 새털 같은 날에 쉬지 않고 만날 먹어야 합니까? 쉬지 않고 입고 쉬지 않고 살고 있는데, 무슨, 헐벗으니까, 가난하니까, 먹지 못하니까, 내 자식 네 자식 내 부모 네 부모 할 것 없이 온통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는 쩔쩔쩔쩔매는 거예요. 언제 적의 자식이고 언제 적의 부모입니까? 우리가 한나절 만났다가 헤어지면 그만이고 한나절 깨어나면은 그뿐인 것을. 아침에 잎이 피었다가 저녁나절에 잎이 지면 낙엽이 져서 땅에 떨어진 걸 여러분이 모두 밟고 다니면서도….

그런데 허무하다고 합니까? 허무한 게 아니라 바로 가랑잎이 지고 다시 꽃이 피었다 지면은 열매가 맺게 되죠. 이성계가 꿈을 꾸고 생각했듯이 말입니다. 야, 추운 겨울에 꽃이 피었다가 그냥 사르르르 지고 눈이 오니까 나쁘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무학 대사가 꿈 해몽을 해 주는데 얼마나 잘해 줬습니까? "야! 꽃이 다 떨어지니 열매가 맺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생각하기에 달렸지 않습니까? 무한정이에요. 마음이라는 거는 무한정이라 생각하는 것도 무한정이죠. 동서남북 벽이 없어요. 지구도 벽이 없어요. 그래서 지수화풍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력과 전력과 광력이 충만해서 서로 당기고 당기는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되고 걸어 다니는 것도 된다 이겁니다.

과학적 아닌 게 어딨습니까? 하나하나 묘한 도리가, 마음이라는 자체가 벌써 벽을 탁 치면 봇장이 울리게 돼 있어요. 돈 좀 꾸러 갔더니 요리 핑계 대고 조리 핑계 대고 말하는 거 보니까 벌써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요거 벌써 알아요. 하하하. 그거 아는 놈이 바로 자성의 원력(願力)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로써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탐지기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자연적이고 자동적인 컴퓨터와 자동적인 탐지기, 망원경, 천체 무전통신기가 나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 A18면으로 계속



제2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대행선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에서 제2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대행 큰스님이 탄생하신지 91주년이며, 열반하신지 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큰스님께서는 신명을 아끼지 않고 수행 정진하셨고, 그 증득한 바를 평생 중생교화로 회향하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참답게 알리기 위하여 이제 연구원에서 '대행선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일년간 공부한 바를 펼치려하니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8.10. 26(금)** (09:30~17:30) ■ 장소: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1부 오전 학술발표

[사회: 임승택교수(경북대)]

10:50 ~ 11:30
- 발표: 김호귀교수(동국대)
- 논제: 대행선의 수증관에 대한 고찰 – 묵조선과 관련하여 –
- 논평: 정운스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11:30 ~ 12:10
- 발표: 김준호교수(울산대)
- 논제: 초기불교의 자아관과 선관 해석에 의거한 수행과 깨달음
- 논평: 정준영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

2부 오후 학술발표

[사회: 혜원스님(동국대)]

13:00 ~ 13:40
- 발표: 법상스님(중앙승가대)
- 논제: 묘공대행의 수행체계와 자비교화에 대하여
- 논평: 안유숙교수(동국대)

13:40 ~ 14:20
- 발표: 고승학교수(금강대)
- 논제: 화엄에서의 수행과 깨달음 –지엄의 화엄사상을 중심으로–
- 논평: 김천학교수(동국대)

[사회: 이덕진교수(전 창원문성대)]

14:40 ~ 15:20
- 발표: 박소령교수(동국대)
- 논제: 대행의 주인공 관법에 대한 고찰
- 논평: 정영식교수(고려대장경 연구소)

15:20 ~ 16:00
- 발표: 청강스님(동국대)
- 논제: 大行의 증명관 一考
- 논평: 박재현교수(동명대)

16:20 ~ 17:30
- 토론광장 / 마무리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

하되 함이 없이 해라, 공했으니까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 A17면에서 계속

본래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그 원력이 얼마입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고 말합니다. 난 항상 부족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글쎄, 다른 건 다 잘 알고 똑똑하고 학식이 풍부한데, 꼭 고거는 그냥 자기가 번연히 알면서도 속는단 말입니다. 참 이상해요. 그거 속는 거 보면 이상해요. 너무도 잘생기고 이 세상 현시점에서 둘째가라면 섧다고 하는 분들이 꼭 끄트머리에 가서는 그거 때문에 그냥 막히고 막히고 그런단 말입니다. 막히지 마세요. 이 성계가 꿈꾼 거를 무학 대사가 딱 뒤집어서 말해 줬듯이 말입니다. 허수아비 모가지가 문전에 대룽대룽 매달려서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 허허! 만백성들이 쳐다보고 우러러볼 꿈이로구나." 요렇게.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생각이 좋으니깐 그냥 생각대로 걸림이 없이 막 간 거예요. 좀 고통은 있었지만 말입니다. 허허허. 그런 고통도 없이 인군을 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팔자에 없는 인군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점이란 말입니다. 무학 대사의 마음과 활랑 뒤집어 주는 걸 받은 그 근기, 그것이 작품이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무슨 가난하다 안 된다 울고 짜고 그러지 말고 울 힘이 있으면 생각을 잘 하는 힘을 내라 이겁니다. 알고 있는 고놈이 일체 만법을 활용할 수 있는 해결사예요. 해결사란 놈이 고놈이니까 모든 걸 용광로에 다 넣듯이 자동적으로 넣는다. 자동적인 기계가 스스로에게 스스로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다 다 맡겨 놓는다. 그까짓 것 뭐, 죽어도 그 솥에 있을 거고 살아도 그 솥에 있을 거니까. 허허허. 안 그렇습니까? 팥죽이 아무리 끓어도 그 솥에 있는 거지 팥물이 어디 갑니까? 그러니 그저 죽어도 그 속에 들어갈 거고, 살아도 그 속에 모두 있을 거니까 거기다 다 놓으시고 한생각 좋게 해서 딱 쳐들어 놓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서 생산이 돼서 자동적으로 현실로 나와요. 우리가 헌쇠를 넣으면 새 물건으로 생산이 돼서 나오면서 다시 용도대로 종류별로 이름을 지어 가지고 다시 나오듯이….

보이지 않는 50%의 행적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있고서야 그 행적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없는데 무슨 우주가 있고 상대가 있겠습니까? 부처가 어딨습니까? 나라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겁니다. 나 빼놓곤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에다 왜 빕니까? 그리고 이름에다 왜 빕니까? 아니, 골 비었습니까, 빌게? 내 이거 주제넘은 소리 같지만요, 주제넘은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성을 그렇게 전부 갖춰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원력자, 해결사를 자기한테 두고도 왜 딴 이름을 쳐다보면서 침을 겔겔 흘리고 거기서 얻어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남 낳을 때 낳고 남 생길 때 생겼고 다 그런 건데 왜요?

정신병이나 암에 걸리는 사연

질문 큰스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인간이 과거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이 되기까지 수억겁을 거치면서 서로 먹고 먹히고 쫓고 쫓김을 당하고, 서로 인과(因果)의 업(業)을 반복하면서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정신병이나 암에 걸린 그런 사람들은, 왜 유난히 그분들만 그런 병에 걸리게 됐는지, 거기에 무슨 저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사연이 새록새록 많죠.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고 둘 아니게 하려면 둘 아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참, 요즘 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를 막론해 놓고 비참한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은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죠, 모두가.

> 내 손도 빈 손 부처님 손도 빈 손, 내 발도 빈 발 부처님 발도 빈 발,
> 부처님 몸도 빈 몸 나도 빈 몸,
> 빈 몸이니까 빈 마음, 함도 없이 하고 가는구나.

그렇게 문제가 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과거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애들끼리 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불집게로 애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한 동네에서 다시 살게 됐는데 또 불집게로다가 쳐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 걸 법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공부하는 길을 잊어버리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그 자체가, 내가 고운 말을 하면 상대방에서도 곱게 나오고, 내가 악을 쓰고 욕을 하면 상대방에서도 욕을 하고 나온다 이런 뜻과 같죠. 그러니까 그런 업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업보라고 하는 것도 일들이 벌어지니까 업보라고 이름을 지어서 방편으로 쓰는 거지 본래 업보라는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농사지을 때에 길을 가다가 어떤 생명들이 새끼들을 낳고 있으면 그냥 삽으로 척척 쳐서 죽여 버리고, 생명들을 우습게 그냥 잡아서 구워서 먹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하면서도 예전에는 지금보다도 더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한 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 자식들한테로 오거나 자기한테로 오죠. 그게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영혼의 근본을 안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근본은 모르면서 이 영혼만이 누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악하고, 그렇게 아프고 죽겠으니까 그냥 그리로 덤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 년이 지나서든지 이태가 지나서든지 또는 그 후생이 되든지 그렇게 돼서 그 인과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해결을 하려면 둘 아닌 도리를 알아야만이 그게 없어지는 법이죠. 그래서 관하라, 둘 아니게 관하라, 둘 아니게 큰마음의 보시를 하라 하는 거죠, 항상.

관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질문 대행 스님께서는 고통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냥 주인공 자리에 관하라고만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어떤 병만 나으려고 하는 그런 그 단순한 동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참회를 먼저 해야 되고, 삶에 대한 새로운 개안을 먼저 해야 그 병도 나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병만 나으려고 관하지 말고 참회도 듬뿍듬뿍 많이 하고 새로운 마음의 지평을 열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가 항상 저 나무들 뿌리하고 싹에 대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무 싹이 있으면 뿌리가 있듯이 누구나가 다 본래 그렇게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네 뿌리는 바로 네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하자면 일체 우주 전체를 한데 싸서 콩 알갱이 하나로도 할 수 있고, (컵받침을 들어 보이시며) 요런 데로 하나로도 할 수 있고, 한 사발로도 할 수 있고, 한 주먹으로도 할 수 있고, 아주 없이도 할 수 있단 얘깁니다.

그 모두를 콩 하나로 해서 짊어지니까 짊어질 수도 없이 무겁더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떡하면 빨리 해소를 시킬 수 있나. 그래서 그냥 무조건 관하라고 그런 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믿는 것만치 없어질 거고, 믿지 못하고 뭐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자기 정성에 의해서 그것이 조금 나을 뿐이지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세세생생을 살기 위해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걸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짊어진 콩 한 알갱이를 산더미 같은 산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산 하나를 짊어지고 다니는 셈이죠. 그러니 "그 무거운 거를 그냥 다 놔라." 이 소린데, 그러면 그렇게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주인공이라는 자기 자불을 진짜 꼭 믿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죠. 눈뜨고 보고 귀를 기울여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형성시켜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만든 자가 누구냐는 얘깁니다. 자기 종자인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종자라는 근본인데, 그 근본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겼다면 그 근본에다가 다 놔야죠. 진짜로 믿고 놔야죠. 하는 것도 먹는 것도, 똥 누는 거, 뭐, 일상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놈 때문에 움죽거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산 하나다 해도 되고 콩 한 알갱이다 해도 되는데, 그 콩 한 알갱이가 짊어질 수가 없으리만큼 무겁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를 없애려고 한다면 진짜로 믿고 무조건, 가난하든 부자든, 돈이 있든 없든, 밥을 굶든 먹든 '굶지 않게 해 주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고, 길을 걷게 하는 것도 너고….' 이렇게 전부 다 주인공이 하는 것임을 믿어야죠. 자기 모습이 자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머리 위에 상투를 이렇게 하나 해 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마를 짚어 보이시며) 부처님을 여기다 새겨 놓기도 하고, 지금도 해 놨지만 때로는 금으로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바로 그게 크고 좋아서가 아니죠. 그 뜻으로 볼 때는 '텅텅 빈 모습이다. 텅텅 빈 모습인데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데도 갖추어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거죠. 텅텅 비고 없기 때문에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거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갖추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오장육부가 다 있다면 갖추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손도 빈 손 부처님 손도 빈 손, 내 발도 빈 발 부처님 발도 빈 발, 부처님 몸도 빈 몸 나도 빈 몸, 빈 몸이니까 빈 마음, 함도 없이 하고 가는구나." 하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이 모두를 알 양으로 애를 쓰지 말고 모두가 공했다는 거, 우리가 공해서 함이 없이 하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간다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수억겁 전년서부터 인과로써, 인연으로써 둘이 아니게끔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두 그 뜻만 대략 알면 그냥 믿고 가도 된다 이 겁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바보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니까 빗자루를 하나 줬단 말입니다. "너는 이 빗자루 하나 가지고 항상 쓸고 털고 그래라." 하고요. 거기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수없이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을 다 놔야 된다. 아는 것을 다 놓지 않는다면 그 아는 것 때문에 길고 짧고, 이렇고 저렇고, 이론이 많아서 외려 갈 길을 더디게 만든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해라, 공했으니까 너는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화면에서 별짓 다 하죠? 그렇게 연기한 사람이 집에 앉아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별짓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거는 내 환상이 저렇게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여기 앉아서 그걸 보고 있다고 하겠죠. 그렇게 온통 모든 것을 환상으로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진짜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어디 다치거나 그런다면 그냥 야단나죠. 그러나 환상인 것을 알면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이런 것이 다 무심하게 돌아가죠. 알게 되면 얼음판을 걸어와도 아주 편안하게 걸어올 겁니다.

그래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데 얼음이 두껍게 얼었더랍니다. 그런데 고기들을 잡느라고 얼음을 깨 놓은 자리가 큰 것들이 있어서 잘못 걸으면 풍덩 빠져서 야단들이 나니까 조심스럽게 걸어오는데, 스님네 둘은 하나도 거침없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냥 오거든요. 옆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두 두리번두리번거리고 간이 콩알만 해서 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다 건너와서 물었어요. "스님, 스님! 스님네들은 이 강을 건너오시는데 겁이 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이 강을 건너온 사이도 없는데 어떻게 겁이 나겠소?" 하더랍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그냥 사는 바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겁니다. 내 몸에 환상이 생겨서 병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관해서 놓으면 그 환상이 둘이 아니게끔 딱…. 왜, 그런 것도 있죠. 이 한 모습에 다른 모습이 딱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고요. 그런 거 보죠? 그런 거 보시면 아시듯이 그렇게 수천 개가 들어가도 그거는 들어가고 나간 사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은 그대로 낫는 겁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죽일 리가 없거든요.

제 3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

우주의 근본은 내 한마음이 근본이다 대행선사 법어

논문발표

- On the Compatibility of Hanmaum Studies and the Psychology of Religion Movement: A Special Reference to Seon Master Daehaeng and William James | 김재영 교수 (서강대)
- 한마음선원 해외 포교 현황 | 혜유스님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 독일 중세 문학 텍스트를 통한 대행큰스님 번역 의미 | 랄프 패슬러 교수 (독일 마부르크대)
- 공생 생명체로서의 생명의 기원과 진화 | 안영우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 지혜교육으로서의 한마음교육 연구 | 김영래 교수 (고려대)
- 의정의 이원화와 통합을 활용한 생수선(生修禪) 정립 방안 연구 - 대중적인 간화선 수행법을 중심으로 | 이상호 박사 (대행선연구원)

스터디 그룹 연구 발표

- 공학팀, 교육학팀, 오공팀, 의학팀, 식물팀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재)한마음선원 주관. 한마음과학원 후원. 한마음선원 사부대중

2018. 10. 27 (토)
오전 9시 ~ 오후 6시
한마음선원 3층 강당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현불 논단 |

매일 명상일지 써보세요



선업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바야흐로 '지금은 명상시대'
명상하며 경험한 내용 정리하는
'명상일지' 쓰는 사람들 늘어나

일지는 자기 내면 기록하는 작업
명상하며 자신 몸 · 마음의 변화와
수행 중 방해물에 대해서 써보길

일지 마무리는 자신의 서원 쓰기로
명상의 숲을 일구는 초석이 될 것

'지금은 명상시대'라 명상을 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늘었다. 명상이 좋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효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특히 명상 체험을 실제로 하는 이들 중에, 명상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정리하는 '명상일지' 쓰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명상 체험의 보고인 '명상일지'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자.

먼저 명상일지는 일기가 아니라는 점부터 알면 좋겠다. 일기(dairy)와 일지(journal)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일기는 일상적인 사건의 기록인 반면, 일지는 자신이 그 사건들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내면을 살펴보는 일이 선행된다.

일지쓰기는 단순히 '생각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명상하면서 떠오른 생각과 통찰을 기록하고, 체험을 작성하고, 그러한 일상 안에서 움직이는 자신의 내면을 기록하는 작업이다.

다음으로 명상일지를 쓰는 목적이 확고했으면 한다. 명상일지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이 자기수행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상수행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통해 지혜를 계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목적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아예 겁을 먹고 일지쓰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자신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작업 또한 명상이기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간화선 입문 과정에서 제시된 일지쓰기의 목적을 보면, '간화선 수행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점검을 통해 발심을 촉발하고 분심을 일으키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진하고, 수행과제에 대한 개인 실천 정도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매일 기록하는 관찰일지처럼 기록해도 되지만, 여기에도 일정한 형식이 있다. 먼저 형태적인 요소를 보면, 먼저 자신이 호감을 느껴 쓰고 싶은 일지를 마련하고 마음에 드는 필기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손이 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면 된다.

다음으로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장소에 따라 방법과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그리고 하나 더, 예기치 않은 순간이나 상황에서 메모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때 메모 할 걸'이라는 탄식으로 수행면담 시간에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이제 내용적인 요소를 보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관찰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태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느꼈는지 쓰면 된다. 요즘에는 신체 변화 체크를 위해 '몸 지도'를 일지 안에 포함해 놓은 것도 있다.

다음으로 특별히 명상하는 가운데 삶의 반전을 느낀 지점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관점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리적 변화의 중요 포인트다. 이 지점을 찾게 되면 명상은 삶의 중요한 동반자가 된다. 더불어 명상 중에 일어난 방해물들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계 유발자들을 살피다 보면 명상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명상을 통한 삶의 변화라는 목표를 확인하게 된다.

명상일지 쓰기의 끝맺음은 서원으로 갈무리하는 것이 좋다. 지금 이곳에서의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부터의 결심을 마음에 심으면 그것이 명상수행의 한 그루나무가 된다. 일지쓰기는 그렇게 명상의 숲을 일구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기자칼럼
윤호섭 취재부 기자

더 좋은 '걷기명상' 되려면

얼마 전 한 일간지에 학교 내 명상 제도화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는 명상을 공부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모임 소개와 학급에서 적용해본 사례, 앞으로의 과제 등이 실렸다. 수행의 종교로서 명상을 주도하는 불교계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기사에서 '걷기명상'을 처음 접해본 초등학생들의 소감이 눈길을 끌었다.

한 학생은 "천천히 걷다보면 관찰력이 좋아지고, 관찰력이 좋아지면 못 볼 것을 볼 수 있네. 천천히 걷다보면 안정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면 나쁜 생각은 없어져 버리네"라는 걷기명상 소감을 남겼다.

초등학생의 소감처럼 언제부턴가 명상수행 내에서 걷기명상이 대중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10여 년 전 틱낫한 스님의 걷기명상 책이 번역돼 국내서 발간되고, 이제는 걷기명상만을 주제로 한 책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걷기명상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한국불교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만 따져 봐도 지난 6월에는 불교중흥실천협의회가 부산에서 '마가 스님과 함께하는 명상힐링 산책'을, 같은 달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서울 한강공원서 걷기명상대회를, 10월에는 한국참선지도자협회가 파주 임진각 공원서 세계평화명상대전을 열고 DMZ평화걷기명상을 실시했다. 행사규모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걷기명상에 관심 있는 수천여 명의 대중이 몰려 인기를 실감케 했다.

불교계가 주최한 걷기명상 행사들은 비교적 성황리에 마무리됐지만 한편으론 진한 아쉬움도 남겼다. 바로 걷기명상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명상보다 걷기에 치중했다는 점이다. 어느 행사는 수행지도가 없었고, 또 다른 행사는 걷는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 명상 숙련자들에게는 무리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명상을 배우고 싶어 찾아온 초심자들은 걷기명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해했다. 결국 행사 참가자들의 볼멘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왔다.

한 참가자는 "행사가 지연되다보니 걷기명상이 급하게 진행된 것 같다. 앞사람 걷는 속도를 맞추느라 정작 명상은 제대로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다른 참가자는 "걷기명상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참가했는데 종일 걷기만 하다가 집에 돌아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현상은 수천여 명의 대중과 걷기명상을 치러본 일이 없는 불교계가 원활한 행사진행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사의 외연 확장만큼 내실이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걷기명상의 핵심은 걸으면서 느껴지는 발바닥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다. 발바닥과 땅의 접촉은 상호의존을 의미하고, 이는 곧 독립된 생명체는 없다는 연기(緣起)로 이어진다. 내딛는 걸음걸음이 소중한 이유다.

"걷기와 명상을 같이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대중의 지적은 불교계가 앞으로 걷기명상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다. 다행히 한 차례 대형행사를 치른 주최 측들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듯이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차기 행사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마련될 불교계 걷기명상 행사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봐도 좋겠다.

社說

불교 온라인 교육 변화 시급하다

불교 온라인 교육의 핵심인 조계종 디지털 대학의 졸업자가 급감하고 있다. 사찰을 비롯한 교육현장과의 네트워크가 시급하다. 조계종 디지털 대학 졸업자 급감문제는 입학자 감소의 원인도 있지만 중도 이탈자의 폭이 너무나 크다는데 있다. 2014년 293명이 입학했으나, 2년 과정 이후 2016년 졸업자는 23명이었다.

2015년 입학자도 205명이었지만 2017년까지 남아있는 이는 25명이었고, 2016년 입학자도 168명이었지만 2018년 13명만이 졸업했다.

졸업율이 8% 수준으로 입학자 수가 100명 내로 줄어든다면 졸업자가 한자리 수로 떨어진다. 입학자 감소의 문제도 커 보이지만 졸업율이 10%도 되지 않는 것은 교육프로그램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급기야 10월 17일 조계종 포교원은 연찬회를 열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결론은 사찰, 신도단체와 현장교육을 위한 MOU 등 연계과정을 늘리고, 새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자는 것이었다.

디지털대학에서 신도기본과정에 입문하더라도 재적사찰을 갖게 되면 사찰의 기본교육을 받게 된다. 중복으로 듣는 경향이 있으니 사찰 불교대학과의 역할이 겹치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찰 불교대학의 연계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졸업자들이 불교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받아 자부심을 얻는지에 대한 조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신도기본교육은 불자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찰과의 연계로 온오프를 넘나드는 현장성 있는 교육, 그리고 교육 이후 활동에 대한 소개, 현대인과 소통하는 콘텐츠 개발은 더 이상 늦춰선 안될 과제다.

승가결사체 확대 · 발전 바라며

조계종 교육원은 올해 지원 사업 한 가지를 시행했다. 바로 '승가결사체 전법 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사업'이다. 4명 이상의 스님들이 모여서 전법 · 호스피스 · 해외포교 등을 추진하는 임의단체인 승가결사체를 구성하고 이를 교육원 인증을 받으면 연수 인정과 함께 활동비를 지원받는 것이었다. 심사를 통해 20개 단체가 선발됐고, 지난 7월에 인증서가 수여됐다.

최근 이들 승가결사체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승가결사체 안양계(安養界)는 불교 가치를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 중이다.

세간해연구소라는 승가결사체의 활동도 눈길을 끈다. 이들 단체는 부처님 가르침을 시대 언어와 방편으로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14일 진행한 일명 '통 · 통 · 통'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이는 〈화엄경〉의 용궁 전래설을 바탕으로 한다. 바다 속 용궁을 모티브로 한 촛불(candle)을 만들어 촛불 명상과 호흡 체험을 진행하는 데 참가자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회 트렌드가 워라밸이나 소확행으로 옮겨지며 소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큰 단체보다는 작은 단체의 모임을 통해 자신의 목표와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승가결사체가 추진하는 작은 단위의 확실한 전법은 강한 힘을 가졌다.

조계종 교육원은 내년부터 승가결사체 활성화를 위해 100%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는 내년도 승가결사체 인증 공모도 진행 중이다. 많은 승가결사체들이 활성화 돼 '작아도 강한' 원력의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귀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대한제지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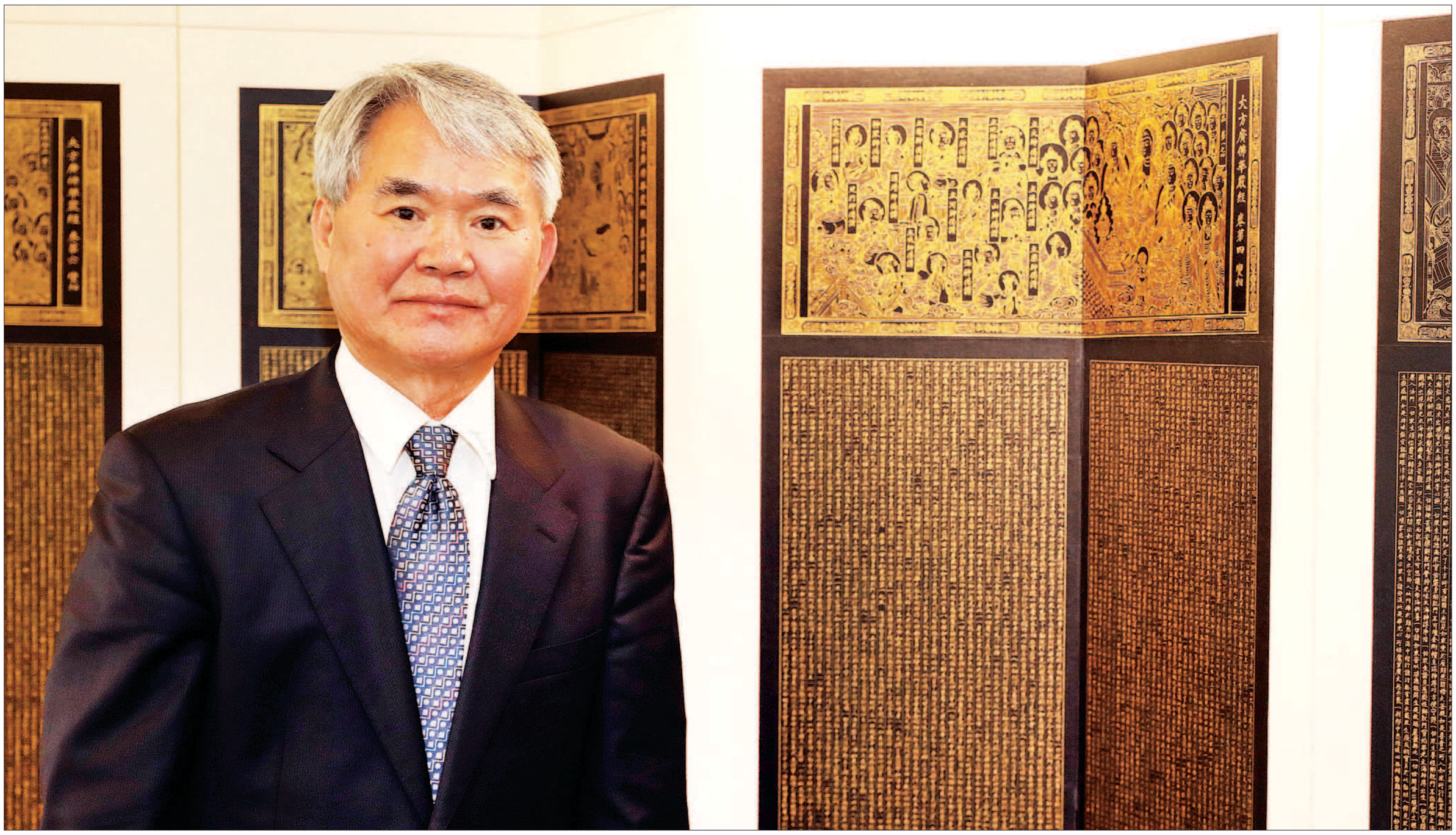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수행·전법 꽃 피운 250만 자 금빛 사경



허락 사경가는… 1947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났다. 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를 졸업하고 약 18년 간 외항선 기관사로 일했다. 1986년 통도사에서 금사경으로 된 〈법화경〉을 보고 금사경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화엄경〉 절첩본 81권 3회, 〈법화경〉 7권 7회, 〈금강경〉 80여 회, 〈지장경〉 2권 5회 사성하며 4대 경전을 모두 금사경으로 복원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미협)특선,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조계종) 제19회 최우수상, 제22회 문화재청장상 등을 수상했다. 2004년 대한민국종교예술미술제 초대출품, 201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사경전) 초대출품, 2011 대장경천년세계축제(금사경) 초대출품, 2017 법련사 불일미술관 개인전, 2017 한국문화정품관 개인전을 열었다.

산문 밖의 禪 허락 사경가 (고려사경문화원 원장 · 71)

30여 년 금사경 불사

6세 때 금석문에 반해 서예 입문

헌 공책으로 탁본 떠 체본으로

아내 권유로 절 찾고 불교 귀의

통도사서 금사경 〈법화경〉 만나

〈대방광불화엄경〉서 '삼겹지' 발견

한지 · 금가루 등 스스로 기법 터득

1992년부터 금사경 본격 시작

〈화엄경〉 81권 3회 사성 등

4대 경전 금사경으로 복원

금으로 쓴 글자 250만 자 넘어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화엄경〉 절첩본 81권 3회, 〈법화경〉 7권 7회, 〈금강경〉 80여 회, 〈지장경〉 2권 5회 사성. 30여 년 동안 사경으로 수행과 전법불사에 정진해온 이가 있다. 더욱 주목할 것은 그의 사경이 모두 '금사경'이라는 것이다. '억불'이라는 불운한 시절로인해 사라져버린 금사경의 의미와 공덕의 가치를 다시 알아보고, 아름다웠던 우리 문화의 향수를 그리며 그가 지금까지 써내려간 부처님의 글자는 약 250만 자가 넘는다. 부처님의 4대 경전을 모두 금사경으로 복원하고 오늘도 금빛 붓을 들고 있는 고려사경연구원 허락 원장이다.

장엄한 금빛 화장세계로의 초대 – '허락의 금사경 특별전'

예술과 수행 그리고 기록문화의 감동을 전하는 금사경 특별전이 열린다.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 한국문화정품관(창덕궁 맞은편)에서 열리는 '허락의 금사경 특별전'이다. 금사경이라는 전통문화를 계승 · 창조하고 사경을 통해 수행과 전법을 실천하고 있는 허 원장의 30년 세월이 담긴 특별전이다.

〈화엄경〉 2호 병풍 완성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묘법연화경〉 14곡 병풍(법화경 전 7권 · 약 7만 자, 글자 크기 5mm · 185cm×6m), 〈대방광불화엄경(제1~6권)〉 12곡 1호 병풍(180cm×5m), 〈대방광불화엄경〉 절첩본 전81권(약 590만 자 · 길이 738.6cm), 〈금강반야바라밀경〉, 〈지장보살본원경〉 10곡 병풍, 〈반야심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액자 형태의 소품 등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약 7만 자의 글자와 7점의 변상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묘법연화경〉 병풍의 경우 글자 크기가 5mm에 불과하며, 마치 인쇄를 한 것처럼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의 크기와 간격이 일정하여 작가의 높은 필력과 깊은 정성을 보여준다.

각 경전의 내용을 함축한 변상도는 모본인 〈팔만대장경〉의 변상도를 참고하여 소실된 부분까지 복원한 것으로, 작가의 창의성까지 볼 수 있다. 허 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162곡 병풍은 총 60만 자의 글자와 변상도 81점의 방대한 〈화엄경〉을 누구나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62폭 12틀의 병풍 형태로 완성했을 때 총 길이가 100m에 이르는 대작이다.

11월 3일 오후 3시에는 '작가와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다. 사경문화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자리이다.

허 원장은 서력 약 60년의 서예가로서 1986년부터 금사경 연구와 복원작업을 시작하여 오랜 실험과 연구 끝에 작품의 변형 없이 오래 보존될 수 있는 한지와 금가루, 어교(접착제)를 비롯한 금사경 제작기법을 스스로 터득해, 불교 4대 경전을 모두 금사경으로 복원했다.

한국 미술협회 주관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고,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축제 초대전 출품 등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250만 자 이상의 글자를 99% 순금분으로 사경해온 허 원장의 작품은 기술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과 수행적인 의미에서도 가치가 있다. 그것은 허 원장이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불제자로서 사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빛으로 빛나는 그의 글씨는 한 글자 한 글자 부처님 가까이 다가가는, 구법의 여정이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선재가 되어야 한다. 한 걸음 먼저 선재가 되어 길을 나선 허 원장의 만다라를 따라가 본다.

금석문에 반한 아이, 붓을 들다

허 원장은 어려서부터 붓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허 원장의 고향인 충북 괴산 마을엔 조선시대 신도비(神道碑)가 하나 있다. 어린 허락은 어느 날, 신도비에 새겨진 글자들에 마음을 뺏긴다. 그의 나이 여섯 살이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허락은 뜻도 제대로 모르는 한자들이 이유 없이 좋았다. 그리고 자신도 그 글자들을 써보고 싶었다. 그렇게 허 원장이 신도비의 글자에 눈이 가고 붓글씨에 대한 꿈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친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신도비에 새겨진 한자들은 어린 허 원장에게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었다. 매일 보는 것들이었다. 허 원장의 선친은 한학자였다. 그래서 허 원장의 집에는 책이 많았다. 그리고 그 책 속에는 한자들이 가득했다. 허 원장은 책 속에서 태어났고 붓을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컸다.

"신도비에 새겨진 글자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써보고 싶어졌죠."

허 원장은 신도비에 새겨진 글씨들을 똑같이 써보고 싶었다. 허 원장은 헌 공책과 크레파스를 이용해 신도비의 탁본을 떴다. 그리고 그것을 체본으로 삼고 아버지의 붓을 몰래 가져다가 글씨를 시작했다. 낮엔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하고 밤이면 글씨를 썼다. 그렇게 허 원장은 여섯 살에 붓을 들었다. 서당 문턱에 가본 적도 없었던 허 원장은 그렇게 천자문을 뗐다.

"왜 그런지 어려서부터 글씨 쓰는 게 좋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글씨체가 다른 아이들과는 많이 달랐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필체가 필요한 학교 일에 선생님을 대신하기도 했죠. 여섯 살, 그때 글씨가 지금의 글씨를 있게 한 것 같아요."

허 원장의 서예는 그렇게 시작됐다.

금빛 글씨를 보다…금사경

마을 신도비에 새겨진 글씨를 보고 서예를 시작한 허 원장은 불혹의 나이에 또 한 번 글씨에 마음을 뺏긴다. 이번엔 경전이었다. 금빛 글자로 채워진 〈법화경〉이었다.

"금으로 쓴 글씨였어요. 처음 봤죠. 아! 이런 글씨도 있구나. 또 한 번 글씨가 제 마음을 흔들었죠."

B2면에 계속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중봉명본의 간화선 및 사종일지

B5
문화
원주 고판화박물관 특별전

B6
학술 · 문화재
공주 동불사 창건 100주년 학술대회

“5mm 글자 안에 부처도 자신도 있어”



허락 作, 〈금강반야바라밀경〉 변상도, 감지에 순금, 22×52cm.

‘허락 사경가’ B1면에서 계속

1986년이었다. 허 원장은 양산 통도사를 찾았다가 절 입구에 전시해 좋은 〈법화경〉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마침 ‘금사경’이었다. 경전은 많이 봤지만 금사경은 처음이었다. 여섯 살에 ‘글씨’에 눈뜬 허 원장에게 경전 속의 금빛 글씨는 또 다른 신세계였다. 가보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길’이었다. 어린 시절, 마을 신도비에서 보았던 글자처럼 허 원장의 마음은 온통 금빛 글씨에 가있었다. 이제는 금빛 글씨를 쓰고 싶었다. 허 원장은 금사경에 대해 알기 위해 다시 통도사성보박물관을 찾았다. 그는 거기서 중요한 금사경을 다시 보게 된다. 〈대방광불화엄경〉이었다. 그는 거기서 고려 금사경에 대한 비밀을 찾아낸다. 허 원장은 그때 고려 금사경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단서들을 찾아낸다. 대표적인 것이 ‘삼겹지’였다. 유심히 경전을 살피던 중 경전의 종이가 한 겹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허락의 금사경은 종이의 비밀을 발견하면서 시작할 수 있었다.

‘금사경’이란 경전을 금가루로 베껴 쓰는 것을 말한다. 7세기 당나라에서 시작됐다. 우리 땅에서는 통일신라 때부터 유행했고,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왕실을 중심으로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많이 제작되어 전성기를 이루었다. 먹과는 달리 금가루는 종이에 두툼하게 묻어야만 발색이 여법하고, 시간이 지나면 접착제의 효과가 떨어져 소실되기 쉽다.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한 고려의 금사경은 따라올 나라가 없을 정도로 수준이 독보적이었다.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그 방법을 배워가거나 제작을 의뢰할 정도였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억불정책으로 인해 금사경의 맥은 끊어지고 관련 문헌 하나 전하지 않는다. 극소수의 작품만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남아 있을 뿐이다. 허 원장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했던 고려 금사경의 끊어진 맥을 찾아 나선다.

아내 그리고 각연사

허 원장이 오랜 세월 부처님 말씀 받아 적으며 살게 된 것은 아마도 통도사를 찾은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허 원장의 불연은 통도사였고 그 인연은 그의 아내에서 비롯됐다.

“여보, 우리 각연사 한 번 가요.”

허 원장이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을 때였다. 외항선 기관사였던 허 원장이 오랜만에 휴가를 내고 고향집(괴산)에서 휴가를 보낼 때였다. 허 원장의 집안은 가톨릭이었다. 허 원장 역시 어린 시절 가톨릭의 이름을 받았다. 교리경시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던 허 원장이었다. 그런 허 원장에게 종교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인연이 있었다. 바로 아내였다. 아내를 비롯해 허 원장의 처가는 모두 불교였다. 특히 허 원장의 장모는 불심이 두터웠다. 허 원장의 아내는 허 원장이 배를 타고 집에 없는 동안 절을 자주 찾았다. 그날은 남편과 함께 절에 가고 싶어 처음으로 절에 가자고 했던 것이다. 허 원장은 아내와 함께 아내가 다니는 각연사를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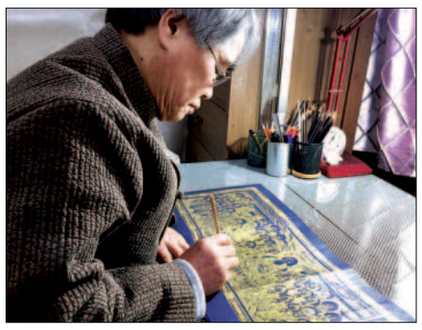
“보살님의 부군은 이쪽(불교)이지, 그 쪽(가톨릭)은 아닙니다.”

아내와 함께 각연사를 찾은 허 원장은 주지 스님과 차 한 잔을 하게 된다.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져 새벽까지 이어졌고 주지 스님은 허 원장의 불연을 본다. 절을 나설 때 허 원장 내외에게 던진 주지 스님의 한 마디였다. 그리고 그 한 마디에 허 원장은 바로 불교에 귀의한다. 그때 허 원장이 각연사를 찾지 않고 불교에 귀의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통도사’는 없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배에 오르는 허 원장의 가방 속엔 늘 경전이 있었다.

‘허락의 금사경 특별전’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 한국문화정품관서 개최

허락의 금사경은…

“번뇌 없어야 바른 글자 쓰는
사경은 ‘수행’ 일 수밖에 없어,
수행이 전법되면 값진 공덕”
사경만으로 경전 뜻 이해
5mm 글자 안에서 부처 만나
금사경으로 하루 일과 보내
또 다른 원력 ‘상설전시장’ 마련



하루 일과를 ‘금사경’으로 보내는 허락 원장.

사경의 목적은 ‘수행’

통도사에서 금사경을 본 허 원장은 그날부터 금사경에 빠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250만 자를 넘게 써왔다. 하지만 ‘금사경’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금전적으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금사경의 끊어진 맥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허 원장의 원력은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더욱 단단해졌고, 조금씩 그 답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마침내 1992년도부터 허 원장은 본격적으로 금사경을 시작한다.

“사경의 목적은 수행이어야 합니다. 한 자 한 자가 수행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수행으로 글자들이 쌓이고 그 글자들이 전법이 될 수 있다면 무엇보다 값진 공덕일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글 쓰는 것이 좋아 시작된 허 원장의 금사경이었지만 이제 허 원장의 사경은 ‘수행’이다. 그리고 공부를 위한 사경이다. 허 원장은 별도로 경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쓰고 있으면 그 뜻을 알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쓰면 쓸수록 그 뜻이 새롭고 단단하게 다가와 쌓인다고 했다. 허 원장이 별도의 공부 없이 사경만으로 경전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선친의 덕이다. 어려부터 한자에 익숙했던 허 원장으로서는 경전을 쓰다보면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하는 것이 저의 사경입니다. 글씨에 몰두하여 한 자 한 자 쓰고 있으면 글자와 제가 하나가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제 어깨 위에는 부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잘못 쓴 글자가 나오면 부처님이 바로 짚어주십니다. 바로 알게 되거든요.”

사경은 기도이고 수행이다. 작은 생각이라도 다른 생각에 이끌리면 올바른 글자를 쓸 수 없다. 수행일 수밖에 없다. 부처님 말씀을 한 자 한 자 적어나가다 보면 부처님과 만나고, ‘나’와 만나는 것이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 번뇌를 물리치고, 온전히 ‘나’를 보는 것이다. 지금도 허 원장은 하루의 대부분을 사경으로 보낸다. 5mm 글자 안에서 부처도 보고 자신도 만난다. 그 작은 글자가 그에겐 법당이고 선방이다. 250만 자를 넘게 써온 허 원장이지만 그는 오늘도 쓴다. 지금까지 써온 250만 자는 오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쓰고 있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지금의 ‘나’를 만나게 해 주기 때문이다.

허 원장은 최근에 또 하나의 원을 세웠다. ‘상설전시장’ 마련이다. 허 원장은 자신의 사경이 그저 금으로 쓴 글씨에 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전법이 되고, 힘겨운 사바를 밝히는 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선 상설전시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의 작품들을 여법하게 전시하기란 쉽지 않다. 앞서 말했던 100m에 달하는 대작을 여법하게 전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허 원장은 “여러 인연들이 엮어지면 이룰 수 있는 불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늘도 고단한 사바엔 부처님의 글자가 금빛으로 한 자 한 자 쌓이고 있다. 좋은 인연을 함께 기도한다.



중봉명본, 간화선으로 선법 부흥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⑲ 중봉명본의 간화선 및 사종일지



그림 · 강병호

중봉명본(中峰明本 · 1263-1323) 혹은 천목중봉(天目中峰)선사는 원나라 때 승려이다. 속성은 손 씨이고, 호는 중봉(中峰)이며, 법호는 지각(智覺)이고 전단(지금의 항주)사람이다. 9세에 모친을 여의고 15세에 출가의 뜻을 세웠고, 후에 〈법화〉, 〈원각〉, 〈금강〉 등을 열심히 학습하기도 했으며, 아울러 선정을 좋아해서 자주 혼자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좌선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그는 출가 전에 이미 불교수행을 할 기초를 구비하고 있었다. 그는 24세에 고봉원묘(高峰元妙)에게 삭발을 하였고, 출가 3년 후에 구족계를 받았다. 고봉원묘는 원대 초의 임제종에서 분출된 조선계(祖先系) 선사이다. 그는 간화선을 장려하였으며, 고봉원묘와 마찬가지로 '무심삼매(無心三昧)'를 간화선의 최종의 목표로 삼았다. 중봉명본은 고봉원묘로부터 10년 동안 선법을 수학했으며, 한편 그의 종지를 얻었다고도 한다. 그는 선정일치(禪淨一致) 및 선교회통(禪敎會通)을 주장하기도 했으며, 선문5종과 불교 각파를 융합한 '사종일지(四宗一旨)'를 선양하기도 했다.

한편 고려의 28대 충선왕(忠宣王 · 1275-1325)은 충렬왕과 몽골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로서, 원나라 황제의 힘을 업고 아버지인 충렬왕과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인 왕이기도 하다. 그런 그는 중봉명본과 수신왕래로 깊은 교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중봉명본의 재가 제자로 선법을 이었고 법명과 호까지 받을 정도로 그의 선법에 심취하기도 했다. 당시 원대가 티베트 불교를 숭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원대의 황제는 수 차례나 중봉명본선사에게 예경을 표했다. 원대의 인종이 태자 시절에 중봉명본을 존중해서 법혜선사라고 불렀다. 태자가 즉위한 후에 또 중봉명본에게 불자원조광혜선사(佛慈圓照廣慧禪師)라는 이름을 증정하기도 했다. 또 금란가사를 내리기도 했고, 중봉명본이 원적한 후에는 원나라 문종(文宗)은 지각선사(智覺禪師)라는 시호를 내렸다. 원대 순제(順帝)초년에는 다시 그를 보응국사(普應國師)로 책봉하기도 했다. 당시의 원대의 왕공귀족 문인 사대부들이 앞을 다투어 그를 예배하고 참방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는 고봉원묘(高峰原妙)가 입적한 후 다비식을 마친 후에 천목산을 떠났다. 그 후 그는 다시 때를 기다리며 남방의 각지를 유역하였다. 그는 복덕을 겸비한 고결한 도덕적인 소양과 후덕한 불교수행을 수행하는 선사로서 비록 선종사원의 주지를 맡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르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법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곳은 자연히 수행도량이 되었다.

당시 원대는 몽고인들이 세운 정부로서 몽고인들은 티베트불교를 숭상하고 중국불교는 배척하고 억압하는 형태를 취했다. 특히 교를 숭상하고 선을 억압하는 정책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선종은 날로 쇄락하여갔다. 따라서 총림도 수행을 중시하지 않는 풍토가 되어갔다. 이렇듯 당시의 선종은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처지였다. 중봉명본은 이러한 선종의 폐단을 만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행자들에게 '마땅히 생사대사로서 자기의 중임을 삼아라(當以生死大事爲己重任)'라고 독려를 하였다.

중봉명본이 살던 시대는 달마가 서쪽에서 온 이래로 이미 800여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이었다. 그리고 혜능부터 중봉명본에 이르기까지 또한 6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따라서 선종도 각 시대의 굴곡진 역사의 단면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달마선 조사선 여래선 분등선 문자선 묵조선 간화선 등의 굵직굵직한 시대를 대변하는 선법이 이어져 왔고, 이외에도 크고 작은 선법의 명칭과 사상적 변화를 지나왔다. 원대에 이르러서 비록 각종 선종의 유파가 유전되었지만, 선법의 폐단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져 갔다. 비록 원대의 많은 선사가 자칭 '불심종(佛心宗)'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선법을 전수하지도 못하고, 그저 부처를 팔아먹는 선사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는 이러한 점을 목도하고 이러한 선종의 폐단을 정화하려는 의도를 품었다. 당시 그가 목도했던 각종의 선법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곧 여래선, 조사선, 평실선(平實禪), 두찬선(杜撰禪), 문자선(文字禪), 해리(려)선(海蠡禪), 외도선, 성문선(聲聞禪), 오미선(五味禪), 봉할(갈)선(棒喝禪), 파맹선(拍盲禪), 갈등선(葛藤禪), 향상선(向上禪) 등이다. 그는 이러한 선법의 폐단에 대해서 엄중한 비판을 가했는데, "선이 고금이래로 제방의 삼사오백 대중이 널리널리 의논을 해서, 많은 쓸데없는 명자와 잡된 글자를 세웠다. 이로 인해서 지견풍(知見風)을 일으켜서, 잡다한 독해를 선동할 뿐만 아니라, 또 정도(情濤)를 전복해서, 식량(識浪 · 식의 파도)이 폭등하고, 서로서로 매몰해서, 악업을 이루고 무간(無間)에 유전해 들어가서 마침내 휴식할 날이 없다. 이러한 점을 부처님께서 연민하다고 하신다."고 하였다.

원, 티베트불교 숭상 선종 쇄락
화두참구 간화선으로 선종 부흥

그는 당시의 선종에 나타난 여러 가지 폐단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선법들은 모두 선종이 본래부터 추구했던 기본정신인 '직지인심, 견성성불'과는 많이 위배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유형들에 대한 비평의 대상을 두 가지로 보았다. 하나는 선법수행을 하는 선학자들의 병폐이고, 다른 하나는 자칭 선지식이라고 하는 자들의 병폐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폐단은 어떤 면에서는 당시 남방선종의 내부적인 병폐를 고발함과 동시에 그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봉명본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선법의 형태는 '지견(知見)'으로 선(禪)을 삼고, '정(情)', '식(識)'으로 용(用)을 삼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선법은 수용해서도 실천해서도 안 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악업을 짓게 할 뿐만 아니라,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한다고 보았다.

중봉명본은 고봉원묘의 선풍을 계승하였으며, 선법은 '간화선'을 온힘을 다해서 장려를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만약에 사람이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화두를 들고 괴귀(怪鬼 · 일체 쓸데 번뇌망상)한 일들을 쉬어라. (그러면) 홀연히 양손이 다 탁공(托空 · 입 안 가득 공담(空談))일 뿐이다. 불조가 바로 가르쳐서 고통 정리해서(불조가 바로 가르쳐서 고통을 정리해서), 마땅히 그 뜻이 청정하기를 허공과 같이 한다."고 했다. 즉 그는 화두를 하나 들기 시작했다면 오로지 일심으로 들 것이며, 일단 화두를 깊이 깨달으면 불조와 다르지 않다고 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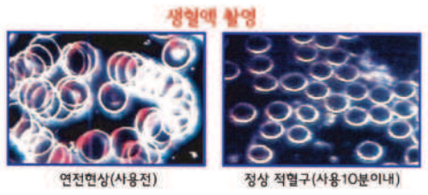
또 그는 일체 참선의 목적은 모두 명심(明心 · 마음의 실체를 밝히는 것)해서, 심체(心體)를 증오(證悟)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 즉 "심의 체에 이르러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으며, 내지 취사도 없지만, 다만 짓는 것이 있으면 모두 허망전도가 된다. 이미 이와 같이 견문각지 할 수 없다면, 곧 학인이 묻기를, 어떻게 초월해서 이것을 증입합니까? 하자, 다만 일체의 견문각지를 원리하고, 내지 능리소리(能離所離)가 함께 공적하면, 곧 영지심체가, 완연히 견문각지의 사이에 들어난다."고 했다.

심체는 이와 같이 견문각지를 의지해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견문각지를 버리고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이 된다. 중봉명본은 이 두 가지의 모순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가 말한 "견문각지 등은 여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스스로 여읠 수 있다."고 한 것은 바로 그의 스승인 고봉원묘가 주장한 '무심삼매'와 같은 경지라고 한다. 따라서 중봉명본은 오로지 마음(정신)상태를 '무의식화두(無意識話頭)'에 집중을 할 때, 비로소 '영체심지(靈體心知)'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처럼 그는 '간화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당시 유행하던 일체의 선법을 정리하고 선양하면서 새로운 간화선의 부흥을 열어갔다. 그의 제자 가운데는 한족(중국인), 몽고인, 심지어는 '서역(西域), 북정(北庭 · 북경 원대의 수도), 동이(東夷), 남조(南詔) 등지에서 잇따라 찾아왔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바로 그의 선법의 영향이 멀리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중봉명본은 '간화선'을 장려함과 동시에 '사종일지(四宗一旨)'를 선도하기도 했다. 사종(四宗)은 곧 밀종, 선종, 율종 및 천태화엄 유식 삼종의 교문을 가리킨다. 일지(一旨)는 곧 이 사종이 모두 '일불지지(一佛之旨)'로서 모두 '불심(佛心)'을 확대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밀종은 봄이요, 천태, 현수, 자은종 등은 여름이며, 남산율종은 가을이며, 소림단전(少林單傳)의 종은 겨울이다.… 밀종은 부처님의 대비구제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교종은 부처님의 대지(大智)를 개시(開示)해서 도리를 밝히는 마음이며, 율종은 부처님의 대행(大行)을 장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며, 선종은 부처님의 대각원만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대체로 사종은 함께 하나의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일음의 연설법으로서, 교로서는 오직 일불승을 설하기 때문에 둘도 셋도 없다. 어찌 사종을 용납하는데 다른 뜻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가 '사종일지(四宗一旨)'를 장려하고 선도하였던 배경에는 우연적이고 필연적인 역사적 배경이 존재한다. 그가 생존했던 원대 초기에 유행했던 불교를 개괄하면 사종(四宗)을 들 수가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원대는 티베트불교(라마교)를 숭상하였기 때문에 라마교의 교세가 가장 크고, 교문삼종(敎門三宗)은 조정에서 약간은 키워주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북방에서는 교문이 성행을 하고 있었고, 율종은 각 종파마다 당연히 봉지(奉持)하는 상황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선종의 실정이 가장 참담했다. 특히 원대에 이르러서 몇 차례의 '교선지변(敎禪之辯)'에서 선종에 대패를 하면서(물론 때에 따라서 약간의 우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강남으로 물러나서 은거를 시작으로, 정치적으로도 많은 압박과 제약을 받았다. 그가 이러한 상황을 친히 목도하고 경험을 하면서 선종이 처한 어려움을 깊이깊이 인식을 하였다. 즉 밀종은 봄이라고 하고, 선종을 '동(冬)'이라고 표현한 것도 선종이 처한 힘들고 곤란한 상태를 암묵적으로 계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 강사〉

에이스 삼강 : 혈액건강 세포건강 구강건강
BLOOD MATE® 비누 한번으로 혈액건강·세포건강. ORAL MATE® 치약으로 양치후 뱉지 않고 삼켜서 구강건강.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피가 맑아져서 혈액 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이상을 사전에 예방할것입니다.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 촬영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탈모예방

사용전
발모촉진

사용6개월 후
검 버 섯

사용전
제거현상

사용6개월 후
BLOOD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98.7%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효과 :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뇌파가 정돈,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BLOOD MATE®
CS137(세슘)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복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된, 일본정부의 예산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항균 93%가 아토피,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80% 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지구상의 전 인류는 양치 후 뱉어내고 입을 물로 헹궜으나, ORAL MATE® 치약을 개발한 41년생 남자 본인은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4년여 동안 보약 먹는 기분으로 먹고 있는 체험담을 공개합니다
① ORAL MATE®로 양치후 뱉지않고 삼키면 구강 건강(치주염, 잇몸에 피, 시린이, 구취, 구내염, 흔들림, 치아솟음 등 모든 잇몸질환)은 기본이고 93%의 항균력과 80%의 탈취력이 위와 장을 청소하므로 배탈, 설사, 변비 한번 없었고 속이 거북할 때나 과음시에는 소화제나 술 깨는 약을 먹은 것보다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구취가 나지않고, 변이나 방귀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으며, 꾸르륵 꾸르륵하는 장운동 소리가 자주나면서 속이 편안해진다.
② ORAL MATE®로 양치 후 뱉지않고 먹었는데 30년 묵은 치질, 혈변이 사라졌다!!
ORAL MATE®를 사용후 4년여동안 감기몸살로 쉰 적도 앓은적도 없으며, 80년대 말부터 치질로 매운음식, 자극성음식만 먹었다하면 그 다음날 틀림없이 혈변이 나와 음식을 조심해왔으며,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사용해도 사용할 때 뿐이고, 혈변이 계속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매운음식, 자극성음식을 먹어도 혈변이 없어, 일부러 맵고 자극성음식을 먹어보는데도 혈변이 없음을 체험했습니다. 수십년간 고통을 주던 치질이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체험담을 공개합니다.
■ 유효기간은 행정규약일 뿐 화학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ORAL MATE®는 원료가 숙성되어 효과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구강은 건강하게 치아는 튼튼하게
ORAL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89.7%
GERMANIUM & SELENIUM
ORAL MATE® 기능 효과 93%의 항균력, 80%의 탈취력
◆ 음이온과 온열을 피부 속 깊이 전달하여 ▶ 매끄럽고탄력있는잇몸 유지
◆ 음이온과 원적외선 상호 작용으로 피부 노폐물 방출로 ▶ 구강 건강 유지
◆ 세포를 활성화 시키고 면역을 증강 시킨다. ▶ 잇몸 질환 예방
◆ 수중에서 다량의 용존산소를 발산하며 물분자를 활성화하여 ▶ 청결한 구강
◆ 각종균의 정균 작용과 살균,악취 제거 탁월. ▶ 충치예방과 입냄새제거
◆ 잇몸에 붙어 있는 각종 중금속, 유기물질, 독성물질 등을 흡착/분해한다. ▶ 깨끗한 치아
◆ 체감 온도를 5°C 이상 향상시키며 제반 독소 효과적 제거
위의 내용 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은행 580-910006-05304 ·예금주 : (주)에이스 삼강 ☎ 02)353-9692 / 010-2791-3696



신년 하례후 경남 합천 해인사서 성철 스님(왼쪽서 세 번째)과의 기념촬영 모습. 성철 스님 오른쪽으로 박완일 회장, 엄상호 이사장이 서 있다.

“성철 큰스님을 모신 것은 운명 그 자체였다”



성철 큰스님을 그리다

유철주 지음/장경각 펴냄/비매품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제자들에게 혹독한 일과를 내리시고 항상 앞장서 실천하는 모습을 펼쳐 보이신 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善知識) 성철 큰스님. 스님은 불자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생전 성철 큰스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제자들의 추모 인터뷰집이 출간됐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이 직계 상좌 16명과 재가 제자 20명의 추모 인터뷰를 모은 〈성철 큰스님을 그리다〉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책은 지근거리서 성철 스님을 모신 출재가 제자들의 ‘증언’이 생생히 담겨 있어 우리 시대의 부처님 성철 스님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살얼음 걷듯 엄격해 살벌하기까지 한 백련암 시절을 그리워 하는 제자들이 큰스님 가르침 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이 책은 선(禪) 전문잡지 〈고경〉 2013년 5월호부터 2015년 12월호까지에 실린 스님과 불자들 인터뷰를 수정 보완하고, 여러 사정으로 당시 진행하지 못한 성철 스님 제자들의 회고를 최근에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책 발간을 진행한 원택 스님은 “이 책은 이런저런 아쉬움을 달래고, ‘후학과 후배들이 선지식을 보고도 만나지 못하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주고자 펴내게 됐다. 책에 실린 내용들은 큰스님을 모신 상좌 스님들의 기억에서 찾아낸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신도님들 인터뷰는 ‘오랜 세월동안 익어진 신심들’이 배어 있는 말씀들이라 읽는 맛과 여운(餘韻)이 남다를 것”이라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원택 스님은 “짧은 만남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스승이 주는 간단한 말씀이나 한 올의 가르침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많은 수행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큰스님 열반 25주년’을 기념해 〈성철 큰스님을 그리다〉를 출간했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법전, 성철, 혜암, 일타 스님 순. 사진 뒤쪽은 해인총림 수좌 원융 스님.

직계 상좌 16명 · 재가 제자 20명 추모 인터뷰

10월 24~28일 해인사 백련암서 25주기 추모제

대중들에게 전 권 무료 법보시로 가르침 선양

또한 비매품으로 발간한 이번 책의 배포와 관련해 원택 스님은 “10월 24일부터 백련암서 진행되는 4일4야 추모 참회 법회와 10월 27일 성철 큰스님 사리탑서 계속되는 추모 3천배 정진, 10월 28일 해인사 대적광전서 봉행되는 25주기 추모재 때 대중들에게 이번 책 4천 5백부를 무료 법보시할 계획이다. 많은 불자님들과 시민들께서 한국불교의 성지 해인사서 성철 큰스님의 가르침을 접하는 인연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책에서는 그간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던 성철 스님의 맏상좌 천제 스님과 둘째 상좌 만수 스님이 통영 천제굴과 팔공산 성전암서 성철 스님을 모신 이야기를 전한다.

또한 성철 큰스님 가르침대로 살고자 수행과 포교에 진력중인 제자들의 활약상과 근황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해인총림 수좌와 해인총림 유나인 원융 스님과 원타 스님은 성철 스님의 수행전통을 잇기 위해 정진중이며, 원택 스님은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성철 스님 선양 사업에 진력하고 있다. 원영 스님과 원행 스님 등은 하남 정심사와 창원 정인사 등서 도심포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스님들은 제방에서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고 있다.

재가불자들의 경우, 성철 스님과의 인연은 물론 각자의 일과(日課)에 따라 수행정진하는 이야기도 책을 통해 생생히 전해진다. 또한 직접 만나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성철 스님의 법어를 접하고 수행하는 불자들의 이야기도 책 속에서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재가불자 중에는 특히 부부 2쌍과 남매가 함께 인터뷰에 응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증언하기도 해서 눈길을 끈다.

출재가자 제자들이 본 ‘성철 큰스님’

▲**천제 스님**(성철 스님 문도회장)=“사람들이 물어요. 큰스님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냐고요. 저는 말합니다. 큰스님을 모신 것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닌 그냥 저의 인생이었다고 말입니다. 감히 어떤 점이 좋다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호불호를 따졌으면 다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 없습니다.”

▲**원융 스님**(해인총림 수좌)=“일반적으로 큰스님들을 지칭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가운데 대선사(大禪師)라는 칭호는 선원서 평생 동안 선수행을 하여 본분사(本分事)를 체달한 선지식 스님을 두고 일컫는 이름이고, 종단의 법계(法階)로서는 대종사(大宗師)로 부르기도 합니다. 산중 총림에서는 방장, 종단에서는 종정으로서 대중의 지도자 위치에 계셨지만, 큰스님의 평생 모습을 본다면 역시 ‘본분종사(本分宗師)’라는 칭호가 가장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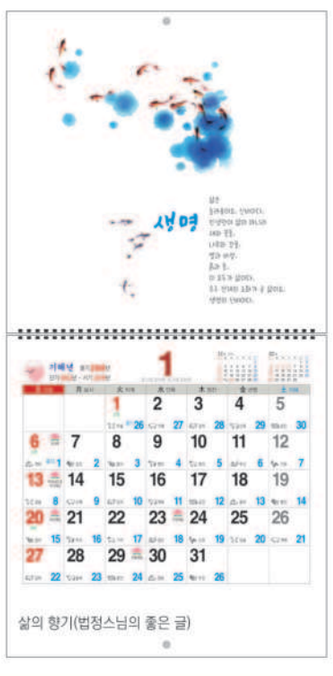
▲**원타 스님**(해인총림 유나)=“큰스님께서는 모든 대중을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가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 왔지만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신 삼천배를 하는 사람이면 그 누구라도 똑같이 만나 제접하셨습니다. 특정인에게 특권을 허용치 않으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니 불교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요즘처럼 정부 기관에는 잘 보이려 애 쓰면서도 국민들 아픔을 보듬지 못한다면 한국불교의 위상 추락은 계속될 것입니다.”

▲**김선근** 동국대 인철과 명예교수=“큰스님의 정신은 출가송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는 다짐이 묻어나잖아요. 큰스님께서는 부처님 진리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승복을 벗고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실정도로 진리 추구를 강조셨습니다. 이러한 큰스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기며 살면 좋겠습니다.”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큰스님처럼 중도를 잘 설명하고 또 강조한 분이 안계시잖아요. 중도를 조금만 이해하면 정말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나 ‘자기를 바로보라’는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향기(법정스님의 좋은 글)



부처님과의 소통(사찰의 옛 다리)



동승의 행복



지혜동자



연꽃향기



동승이야기



민족의 산하



법음이 깃든 산사

위 카렌다 외에도 총16종의 카렌다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6절 (305 × 306)	정가 1,800원	1,4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6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 2,000부 주문시 1,300원
12절 (255 × 260)	정가 1,600원	1,1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3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 2,000부 주문시 1,000원
미니스프링 (90 × 98)	정가 800원	할인가 600원
미니 수첩 (90 × 130)	정가 1,000원	할인가 700원
비닐캡 (90 × 160)	정가 800원	할인가 400원
탁상카렌다 (260 × 190)	정가 2,500원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

판화로 보는 '신과 함께'

원주 고판화박물관 특별전
'판화로 보는 극락과 지옥' 展
10월 19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아미타경(덕주사본)' 등 100여 점

제9회 원주 세계 고판화문화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10월 19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특별전 '판화로 보는 극락과 지옥' 전을 개최한다. 2018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10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열린 제9회 원주 세계고판화문화제를 기념하여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만화의 원형인 판화의 세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동양 신들의 세계를 총 망라하는 것으로 '판화로 보는 신과 함께'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인들의 극락과 지옥을 상징하는 신들을 인쇄했던 목판을 비롯해 삽화가 들어있는 목판본과 불화 판화, 문자도, 동판화, 석판화 등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원주 세계 고판화문화제'는 2006년 처음 개최된 이후 9회째를 맞이하는 세계 유일의 국제 고판화 축제이며, 특히 유형문화제와 무형문화제가 결합된 융복합 문화제 축제로 유명하다. 인쇄문화의 꽃인 명품 고판화를 소개하는 특별전과 한, 중, 일 학자들의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의 전통판화 명인 시연회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티벳, 몽골 등 나라별로 독특한 인쇄문화를 엿볼 수 있으며, 올해 최초로 전통인쇄 인출장을 배출하기 위해 제6회 원주전통판화공모전은 '전통판화인출경연대회'로 개최되어 전통 인쇄 인출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전 '판화로 보는 극락과 지옥'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극락의 세계를 아름답게 표현한, 500여 년 전 조선에서 만들어진 덕주사본 〈아미타경(강원도 유형문화재 152호)〉과 용천사본 〈아미타경(강원도 유형문화재 153호)〉으로, 책 상단은 그림으로, 책 하단은 글씨로 되어 있는 상도하문식으로 표현하여 독자들이 극락세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작품으로는 광저우 불산에서 제작된 반야용선(극락으로 인도하는 배)을 새긴 '반야용선도', '아미타래영도' 목판을 비롯하여, 극락세계를 아름다운 채색 석판화로 표현한 남경 금릉각경처의 '극락장엄도' 판화가 전시된다.

일본 작품에서는 아미타부처님이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아미타래영도'를 다양한 채색판화로 표현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극락세계를 대형 만다라 형식의 예배용으로 제작한 대형 '정토 만다라'와 '아미타경변상도' 불화판화가 소개되며, '무량수경 만다라' 판화는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 중 하나이다.

베트남 작품 중에는 대형 아미타래영도 목판이 눈여겨 볼 만하며, 티베트 극락관련 무량수불 대형 불화 판화도 눈에 띈다.

지옥을 상징하는 판화로는 고려시대 해인사에서 발행된 시왕판화를 비롯하여, 북한의 묘향산 보현사에서 16세기에 만들어진 6지장보살과 8대 보살 중에 들어가 있는 지장보살 판화 등 7점의 지장보살 대형불화판화가 전시된다.


아미타경변상도(부분 · 사진 위)와 지장보살시왕 변상도.

중국 작품으로는 불교와 도교가 결합된 형태로 청나라 말기에 유행하였던 옥력보초류 고서를 비롯하여 책을 인쇄할 때 사용하였던 목판들이 전시되며, 특히 불교의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 '신상지마(神像紙馬)'를 인쇄하기 위해 제작된 천도제 목판이 세트로 공개된다. '신상지마'는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 천도제를 지낼 때 의식용으로 사용하는 판화들이다.

일본 작품으로는 중국 원본을 그대로 복각한 '불설지장발심인연시왕경'과 극락과 육도윤회 지옥을 세 권으로 나누어 지옥세계를 극대화시켜 표현하고 있는 '왕생요집'을 비롯하여 '감득전' 등 만화의 원형이 되었던 일본 특유의 다양한 그림책들이 소개되며, 지옥의 세계를 채색 만다라 형식으로 표현한 대형 '지옥도' 불화판화가 최초로 공개된다.

몽골 작품으로는 조선시대 감로탱을 연상시키는 '지옥경'이 소개되며, 티벳 불화판화는 '육도윤회도' 목판을 비롯하여 신라의 '김교각 지장보살상'을 판화로 표현한 대형 불화 판화가 최초로 공개된다.

전시회를 기획한 한선학 관장은 "이번에 기획한 특별전은 고판화박물관의 역량이 총 망라된 대규모 전시회로, 그동안 수집된 고판화박물관 유물 6,000여 점 중 불교 회화사와 판화사에서 주목 받는 '극락과 지옥'에 관련된 목판과 전적, 불화 판화 등 100여 점을 선별했으며, 관련학자들과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도, 동아시아인들의 생사관(生死觀)을 고판화를 통해 더욱 쉽게 이해 할 수 있어 동양 문화를 심층적으로 연구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033)761-7885.

왜 다시 선서화, 선묵, 선필인가?


고산 혜원 作 '佛'.

특별선묵전 '고산 · 성각 선묵전 – 물속의 달 水月'展
서울 예술의 전당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기존 선묵과 다른 혁신 작품
고산 · 성각 스님 선묵 450여 점
현실비판적인 서예언어 구사
기계문명시대서 선묵 가치 재발견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는 선묵전이 열렸다. 쌍계총림방장 고산 혜원 대종사와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선화기능보유자인 망운사 주지 성각 스님(원각선원장)의 선묵특별전 '물속의 달 水月' 전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2층 전관)에서 열린다.

선화보존회와 (사)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특별전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한다는 점과 아울러 기존에 발표된 선묵과는 다른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성각 스님은 30여 년 간 20여 차례 선서화전을 하면서 원상과 동자, 법어를 중심으로 한 선묵을 선보여 왔다. 하지만 이번 특별전에서는 전서와 행초를 뒤섞은 일자대자서 설치작품, 자작시 한글행초대자 연작 등 혁신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고산 방장스님의 대자 행초서 '佛'자를 비롯하여 성각스님의 ▲〈반야심경般若心經〉 270자를 전서와 행초서로 쓴 대자일자서(大字一字書) 270점 ▲'반야심경(般若心經), 화엄경약찬게(華嚴經略饌偈), 금강경(金剛經), 금강경찬(金剛經撰)' 전서8폭 대병, ▲행초 대자일자서(大字一字書) 35점으로 구성한 설치작품 '물속의 달 水月' ▲자작시를 전서 필획으로 행초서를 자유자재로 구사한 12폭 한글연작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르느냐' ▲요즘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을 두꺼비를 통해 우화적으로 풍자한 작품 '정답은?' 등 총 45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고산 · 성각 선묵전 '물속의 달 水月'은 주로 예술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서예를 추구하는 서예가들의 서(書)와는 조형미학이나 정신의 지향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실비판적인 서예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별된다. 그래서 왜 지금 선서화, 선묵, 선필이 다시 부활 · 복원 · 활성화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정율 스님 힐링콘서트 회향공연

정율 스님 힐링콘서트 '돌아보니 당신'
11월 4일 오후 5시 부산 문화회관대극장
7집 음반 '돌아보니 당신' 발매



공연 포스터

행복을 만들어가는 정율 스님의 힐링 콘서트 '돌아보니 당신'이 11월 4일 오후 5시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사부대중에게 자신을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기 위해 2016년 12월 광주 공연으로 시작된 정율 스님의 힐링 콘서트는 서울, 인천, 대구로 이어지면서 1만여 명의 관객이 힐링의 시간을 함께 했다. '인연'을 주제로 한 이번 부산 공연은 회향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공연으로, 정율 스님은 'Ti sarana(삼보께 귀의하는 노래)'를 시작으로 도선 스님, 정율 스님의 108인의 Buddha's 합창단, 샤카디타(비구니) 앙상블, BTN중창단과 함께 '좋은 인연', '인연', '천의 손 천의 눈', '얼마나 닦아야 거울 마음 닮을까' 등 10여 곡의 노래를 스토리텔링으로 선보이고, 살풀이춤의 원형으로 영가의 넋을 깨끗이 씻겨 극락으로 인도하는 춤 지전무도 선보인다.

아울러 정율 스님은 이번 공연에 맞추어 7집 음반 '돌아보니 당신'을 발매했다. 음반에는 정율 스님이 그 동안 콘서트를 통해 선보였던 '천의 손 천의 눈'을 비롯해 13곡이 담겼다.

뮤지컬 '원효'와 명동성당에서 '아베마리아'와 찬불가 '향심'을 선보여 큰 감동을 안겨준 바 있는 정율 스님은 운문사 승가대학 졸업 후 원광대와 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했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캐나다, 대만, 태국 등에서 1천 회 이상 공연 활동을 펼쳐왔다.

Buddha's (010)2230-5498. 박재완 기자



야학·구제·포교… 근대 '공주포교당' 활발

공주 동불사, 13일 창건 100주년 학술대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충남 공주 동불사(주지 현중)의 전신인 마곡사 공주포교당이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야학·구제·강연회 등 근대계몽운동에 앞장서며 활발한 전법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주 동불사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는 10월 13일 동불사 경내에서 '공주 동불사 역사와 문화유산'을 주제로 창건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근대에 창건된 사찰인 동불사가 마곡사의 공주지역 거점 포교 사찰이었던 점과 이를 바탕으로 펼쳐진 다양한 신행운동과 포교활동 등이 조명돼 눈길을 끌었다.

이병욱 고려대 강사는 '1920년대 공주포교당의 포교 방향'을 통해 공주포교당의 포교관과 활동에 대해 살폈다.

이병욱 강사는 공주포교당이 〈조선불교유신론〉의 만해 스님과 〈조선불교혁신론〉의 이영재의 포교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현실에서 구체화했음을 전제했다. 실제로 공주포교당은 1922년 처음 야학을 시작해 잠시 중단했다가 1926년 실달강습원(능인야학강습원)으로 재개했다.

〈불교〉 제30호(1926)에 따르면 공주포교당을 담당했던 현서봉 포교사가 돈이 없어 어려운 남녀아동을 모집해 가르쳤는데, 교사 모두 보수 없이 일할 정도로 열의가 대단했다고 기록됐다. 당시 학생수는 남자 70명, 여자 80명이었고, 이는 공주에서 처음 세워진 '노동야학강습소'의 학생 수 35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이병욱 강사는 "이는 만해 스님이 말하는 자선사업을 일으켜 포교하자는 주장, 구체적으로 이영재가 노동야학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주포교당은 청소년·청년·여성 등 계층법회 부흥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병욱 강사에 따르면 공주포교당에는 불교(부흥)청년회를 비롯해 불교소년회(능인불교소년회), 아리다라불교부인회가 구성돼 있었으며, 이들 단체들은 야학, 강연회, 구제활동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공주 동불사는 10월 13일 경내에서 창건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918년 마곡사 공주포교당 시작
만해 스님·이영재 포교론에 수용
소년회·부인회 등 계몽운동 전개
계층법회 성황… 지역 전법 주도
본사와의 갈등·일제 감시로 침체

이런 활동은 자연스럽게 공주포교당이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는 요인이 됐다. 농인강연회(農人講演會), 상번회(商繁會), 충남공주소년동맹 창립대회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가 공주포교당에서 개최됐다.

이병욱 강사는 "이는 공주포교당이 공주 지역 사람에게 신뢰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사찰이 지역문화와 민중생활에 기여한다면 자연히 해당 사찰은 지역에서 구심점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주포교당은 활발한 활동에도 포교사 인선 문제 등 내부 갈등과 일제의 감시로 인해 차차 동력을 잃어갔다.

김성순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은 '공주 동불사의 근대 불교신앙결사'에서 능인불교소년회와 아리다라불교부인회의 활동 상황과 공주포교당의 한계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1925년 본산 마곡사 주지로 취임한 유인명이 포교당을 폐지하고 포교사 현서봉을 해임한다. 유인명은 도심 중심가에 있던 포교당을 한가한 초가와 바꾼 후 잉여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고, 이에 분개한 신자들은 일제히 반발해 폭력사태가 야기되기도 했다. 이후 공주포교당과 야학강습소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또한 일제의 감시도 공주포교당의 한 계로 작용했다. 마곡사는 500원을 출연해 공주포교당의 능인학원을 지역 유지들이 운영해줄 것을 1933년 공주 지역 신년 간친회에서 제안했으나 지역 경찰이 "분순한 단체에 학원을 인계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토의를 무산시켰다.

포교당 야학강습소에서 '조선어'를 가르치고, 빈민층 자녀 대상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점을 일제 경찰들은 '불순함'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게 김성순 연구원의 추론이다.

이에 김성순 연구원은 "강습소 폐쇄 등의 사건은 본사 독단 이면에 일제의 감시 및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까지 맞물려 갈등의 배경으로 작동한 사례"라면서 "공주포교당의 활동은 지역 포교당에서 신행과 포교, 사회봉사까지 지향했던 의미있는 시도였지만 결국 시대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의 한국불교의 자원들이 일제의 감시와 불합리한 제도의 압박을 견뎌냈던 근대불교의 산통의 축적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마곡사 공주포교당의 설립 의미(공주 원효사 주지 해월 스님) △공주 동불사 목조여래좌상 연구(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공주 동불사의 풍수지형(김규순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탄허 현토역해본 가치 조명한다

탄허강숙, 26일 학술세미나

탄허 스님의 교육 철학과 이를 반영한 현토역해본의 가치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대산 월정사 탄허강숙은 오는 10월 26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탄허 스님의 교육이념과 현토역해본의 가치와 의의'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의 '한암과 탄허의 승가교육이념과 실천양상' △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의 '조선조 불서언해·사기(私記)와 탄허의 현토·역주의 비교 고찰'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의 '탄허 시문의 문학성' △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광 스님의 '통현화엄과 청량화엄에 대한 탄허의 관점' △이원석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의 '탄허의 학술과 회통론'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탄허 현토 역해본의 의의와 가치'가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장미란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김종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신영주 성신여대 한문학과 교수, 석길암 동국대 교수,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고령사회 사찰 운영·복지 어떻게

천태종, 11월 10일 학술대회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령사회에서의 사찰 운영과 신도 복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천태종(원장 문덕)은 오는 11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고령화 사회의 사찰 운영과 신도복지'를 주제로 2018년 천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고령 사회에서 불교 공동체 운영과 신도 복지 등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논문으로는 이혜숙 금강대 초빙교수가 '천태종 실버공동체 운영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노년기 불자의 건강과 수행 프로그램'을, 이원식 금강대 교수가 '천태종 노년불자의 사회봉사와 회향'을,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수가 '은퇴 신도의 종단 활동과 기여 방안 모색'을 발표한다. 신성민 기자

'詩僧' 경봉 스님 면모를 살피다

최두헌의 '경봉 정석의 한시 연구'



근대 한국불교의 산증인이자 통도사를 대표하는 선지식인 경봉 정석(鏡峰 靖錫, 1892~1982, 사진)은 선승(禪僧)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스님은 36세에 화엄산림 기간 중 오도하고 이후 통도사 극락암에 선원을 설립해 수많은 납자들을 제접하며 근대 선풍의 중흥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선승의 면모 뒤에는 한시로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했던 시승(詩僧)으로서의 모습도 존재했다.

최두헌 통도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의 연구저서 〈경봉 정석의 한시 연구-생애를 중심으로〉는 선승만이 아닌 시승으로서 경봉 스님의 면모를 조명한다.

시승으로서 경봉 스님을 조명할 수 있던 것은 스님이 자신의 삶을 〈일지(日誌)〉를 통해 남겼기 때문이다. 경봉 스님은 개인의 사소한 일상이나 자연에 느끼는 감성, 주변인과의 교류, 문학작품들을 〈일지〉를 통해 남겼다. 저자는 〈일지〉를 기본으로 해 경봉 스님의 생애와 작품의 특성과 의의들을 분석·연구했다.

연구서는 총 5장으로 구성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3장의 '경봉 생애의 시적 표현'이다. 저자는 경봉 스님의 생애를 오도 전과 오도기, 보림기로 나누고 시기마다 스님이 쓴 한시들을 분석해 그 양상을 살폈다.

최두현 실장은 "경봉 스님은 화엄산림법회 6번째 날인 12월 13일 새벽에 활연개오를 하여 이전까지 화엄의 테두리 안에서 경계 지어진 화엄의 틀을 깨고 조사선의 진정한 위용과 함께 선승으로서 이사무애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서 "그 이후 읊은 시들은 화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닌 선을 기초로 하여 선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담아낸다. '평상심시도'를 통한 도의 실천과 자아를 일상과 자연에 합일시키는 일들이 그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봉 스님 남긴 '日誌' 서
생애·사상·한시 등 분석
통도사 시승 계보도 조명

통도사 시승의 계보를 대략적으로 살핀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저자는 통도사의 시승 계맥을 총 149수의 시를 수록한 시문집을 내놓은 환성 지안(1664~1729)에서 시작된다고 봤다. 이후 면면히 이어져오던 시풍은 근대에 들어와 용악 혜견(1830~1908)이 주석하며 부활하기 시작했고, 성해 남거가 통도사 시풍을 부흥시켰다. 또한 성해의 제자인 구하·경봉·경하 대에 이르러 통도사의 시풍은 만개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경봉 스님은 평생 시를 통해 불교와 유교, 도교의 경계를 뛰어넘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인생사를 주제로 동시대 사람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담아냈다"면서 "신분에 구애받지 않았고 종교적 영역에도 국한되지 않았다. 이는 불교시사(佛教詩史)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內 여성 역할 진단

불교여성硏 11월 3일 토론회

한국불교 내 여성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진단하는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여성연구소와 샤카디타 코리아는 11월 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불교의 새로운 지평-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여성'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학술토론회는 총 3부로 진행되며, 각각 한국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과제, 전망 등을 다룬다. 주요 발표로는 △일상에서 4성제 실천하기-붓다선원의 삶을 중심으로(진경 스님, 붓다선원장) △비구니와 군인의 만남-비구니 군승의 경험을 중심으로(정완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 일반연구원) △한국불교 세계화-한마음선원의 활동을 중심으로(혜유 스님,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九龍의 소원...
❑ 사찰의 모든 장소 장식 가능, 분수 가능
❑ 소원당(소원지, 소원패등) 주작품
❑ 작품 소장사찰 : 여수 향일암, 강화보문사 등
❑ 크기 : 4,200(가로)×1,000(세로)×1,300(높이)mm
❑ 가격 : 상담 후 결정
기획불사상담문의
승원아트조형 010-9195-1044
네이버 : 승원아트조형



재소자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⑳ 무기수 김무한

죽음으로써 업장소멸한 무기수

친아버지의 모진 학대를 견디다 못해 천륜대죄를 저지른 이가 있었다. 무기수 김무한이다. 정당방위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살인은 살인이었다. 그것도 형이 가중되는 중죄의 '존속살인'이었다. 김 씨 본인이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 씨는 친부를 살해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무기수 김무한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늘 생각나는 인연 중의 인연으로 내 삶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무기수였다.

어느 날 대구교도소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김 씨가 내게 보낸 편지였다. 편지 내용은 모범무기수로 20년 동안 형을 산 그에게 가석방 기회가 생겼다는 소식이었다. 복역기간, 수형태도 등 절차상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췄으나 딱 한 가지, 신원보증인이 없어서 문제였다.

"혹시 교도소에서 〈금강경〉 강의를 하실 때마다 칠판에 적혀있던 경구들이 기억나십니까? 매번 스님 도착하시기 전 정성껏 한 자 한 자 써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부디 스님께서 제 보증인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나는 〈금강경〉 인연으로 김 씨의 보증을 섰다. 가석방돼 출소한 김 씨는 나를 따라 김천 개운사서 다른 출소자들과 함께 지냈다. 김 씨는 여느 출소자와 달랐다. 대부분 출소자들은 청소 등 소일거리를 돕고 나서 어린아이가 칭찬을 바라듯 쪼르르 달려와 일일이 보고하려고 안달들이었다. 하지만 김무한은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일했다. 김 씨는 자신이 지은 업을 소멸하기 위해선 도량을 열심히 닦고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김천서 6개월 쯤 지내다 부산으로 옮겨 자비사를 만들 때였다. 당시 사찰 재정상황은 포교당을 지은 일꾼들의 품삯을 못 쳐줄 정도로 어려웠다. 내가 여러 번 정산을 미뤘기 때문에 일당을 못 받은 일꾼들은 단체로 절에 찾아와 난동을 피우기 일쑤였다. 인건비 백만 원을 도저히 구할 길이 없던 때 김 씨가 불쑥 돈 봉투를 내밀었다.

"절이 시끄럽습니다. 이 돈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란 내가 김 씨에게 이게 어디서 난 돈이냐고 묻자, 그는 훔치거나 얻은 돈이 아니니 마음 놓으란 말을 할 뿐이었다. 그 돈 백만 원은 김 씨가 감옥에서 일당 5원, 10원을 모아 만든 목돈이었다. 무기수가 감옥에서 피땀으로 번,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귀한 돈이었다. 나는 당연히 그 돈을 거절했고, 심지어 그에게 야단까지 쳤다.

"이 돈을 가지고 당신 떠나시오. 당신 같은 사람과 같이 산다면, 내가 큰 업을 짓고 살 것 같소. 만약 이 돈을 쓰고 갚지 못한다면 나는 참으로 큰 빚을 지는 거요. 무서워서 이 돈은 받을 수 없소."

남의 돈을 일절 받지 않고, 신세도 지지 않으면서 이제는 제 전부와도 같은 돈까지 나에게 내어준다는 김 씨였다. 난 그런 출소자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

몇 달간 돈을 구하지 못한 나는 결국 김 씨의 돈을 받아 일꾼들의 품삯을 치렀다. 김 씨는 보시한 것이라 했지만 나는 반드시 갚을 요량이었다.

'금강경' 인연으로 신원보증 서
석방 후 출소자들과 사찰공동생활
은인에게 화 될까 스님과 작별
유일한 꿈 합동결혼식 직전 사고사

그러던 중 김 씨와 작별의 순간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어느 날 그는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팔에 깁스를 하고 나를 찾아와 떠나겠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김 씨는 묻지 말라며 이렇게 말했다.

"저 혼자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장 스님이 저를 석방시켜주신 은인인데, 차마 스님께 배은망덕한 짓을 할 수 없어 참았습니다. 다음에는 분심을 참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저만 떠나면 스님이 편하십니다."

내가 김 씨를 편애한다고 생각한 다른 출소자들이 그를 야산에 끌고 가 집단폭행한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됐다.

김 씨의 요청대로 김 씨는 갱생보호회로 보내졌다. 그곳은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공공기관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일 하는 곳이었다. 김 씨가 갱생보호회로 간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김 씨에게 마지막 꿈이 있다면 착한 여자를 만나 살림 한 번 차려보는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김 씨 나이는 60세쯤 됐다.

나는 돈을 빌린 지 꼬박 1년 만에 김 씨에게 빚을 갚았다. 때마침 김 씨는 보호회서 소개받은 한 과부와 합동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 나는 김 씨의 신혼자금에 보탤 백만 원을 보낼 수 있어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끝내 김 씨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 얼마 뒤 갱생보호회 지부장에게 걸려온 전화는 내게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결혼식 며칠 전, 김 씨와 예비 신부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된 봉고차가 인도를 덮쳐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였다. 예비 신부는 다치지 않고,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난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김 씨가 모아둔 돈과 사고 보상금을 처분해야만 했다. 김 씨의 재산은 유일한 유족인 그의 조카에게 승계됐다. 김 씨의 49재를 치르는 내내 나는 그의 조카를 보지 못했다.

나는 감히 부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다. 부처님은 어찌하여 이 자를 데려가신 것일까. 수행자인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산 김 씨를 왜 이렇게 무상하게 데려가십니까. 난 그렇게 하염없이 되뇔 뿐이었다.

나는 생각을 정리했다. 김 씨는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죽었다. 그리고 죽은 뒤에도 목숨을 바쳐 만든 돈을 다른 이에게 줬다. 이로써 김 씨는 금생에 지은 업을 전부 소멸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김 씨는 지금쯤 어딘가에 다시 태어나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내가 신장병을 얻어 병원을 다닌 지 벌써 6년이 됐다. 뱃속에 관을 삽입하고 투석액을 주입한 뒤 죽음을 만나는 고통의 4시간이 끝나면 특히 더 김 씨가 떠오른다. 어느 날인가는 내가 한 혼잣말을 들었는지 간호사가 말을 걸어왔다.

"고통스러운 것 압니다. 하지만 스님, 살기 위해 투석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조금 달라요. 내가 중이다보니까 생사를 조금 알아요.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하겠지만 난 싱긋 웃을 것 같네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은 병원을 안 와도 되는구나 싶어서 웃지요."

정리=김지원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⑲ 혜암 스님 · 박순금 아줌마



스님은 나비 모습으로 나에게 들어왔다. 스님께서는 "나비가 되어 이 꽃 저 꽃을 마주하며 공부하다 죽어야 해." 하는 말씀을 화두 아닌 화두로 삼으라 하셨다. 적어도 나에겐 그렇게 각인이 되었다. 나는 다음달 11월 말이면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는다. 글을 쓰는 시간이 용맹 정진하는 시간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말씀해주신 스님, 그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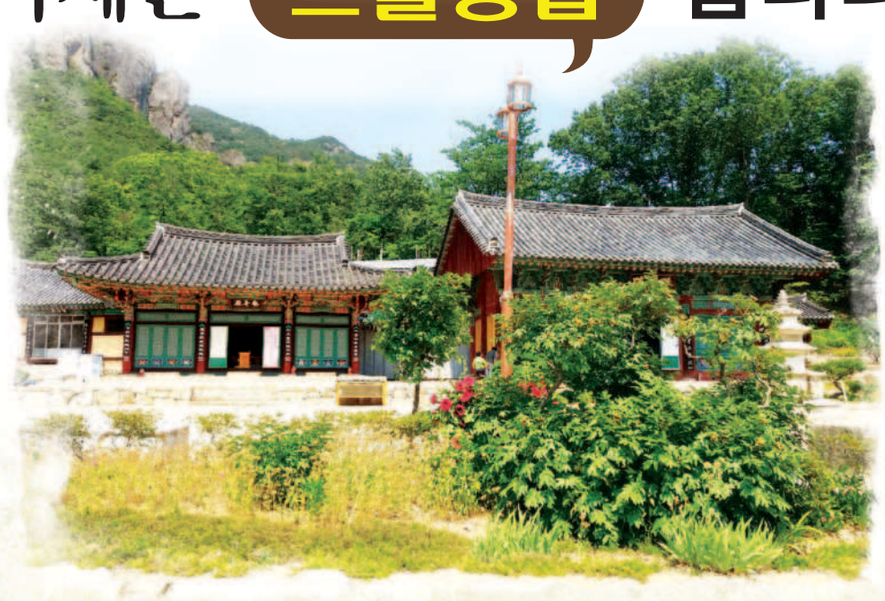
박순금 아줌마는 30년 째 우리 집 일을 거들어 주고 있다. 순금(順金)으로 왔지만 성실하여 지금은 '박성실(誠實)'로 불리며 '보현행'이라는 불명으로도 불리고 있다. 옆의 그림은 한 때 집안이 어려워지는 것을 알게 된 아줌마가 나에게 "거사님 돈 조금만 더 벌게 기도 좀 해 주세요"하는 말을 하게 되어 둘이서 나눈 대화 일부이다.

며칠 전, 아줌마는 나에게 물었다. 더 나이 들면 요양원도 같이 가냐고. "그럼, 같이 가야지"하고 나는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인연 이야기를 많이 한다. 아줌마와 나는 어떤 인연일까. 나의 부족한 면을 채워 주고 가끔 잘난 척하는 나를 바라봐 주며, 단정하게 옷 손질 해주고는 입고 나가서 하는 일마다 부처님 일이라고 등 떠밀며 현관 앞에서 인사하는 아줌마가 보살이다.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휘몰아치는 여러분의 정보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IT PLUS + ONE
ELSWIVER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회원을 관리하는 모든 웹사이트의 보안서비스 개선
+ 시스템 보안관리
+ 서버운영 및 관리
+ 업무용 전산 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
+ PC 유지보수

http://www.elswiver.com http://www.itplusone.com
Venture for Tomorrow
Korean Venture Entrepreneurship

IT PLUS + ONE 으로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IT PLUS + ONE 은 (주) 엘스위버의 정보보안 및 전산 통합관리 서비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ELSWIVER
IT PLUS + ONE

TEL : 070-4060-7460

©Copyright 2018 ELSWIVER co.Ltd. ALL RIGHT RESERVED